

광세구본

수정요정

누가복음
테자칭정
양심문광세구본



누가복음에 일장

뒤키 열어 사람이 부슬들여 우리가 온 뒤 일은 바일을 쓰기 난
처음으로 부터 보고 도를 면하 난 자 가 우리 를 좃 밧 치 너 가 또
하 처 음 으 로 모 든 일 을 자 세 이 상 고 하 여 치 레 로 쓰 쫓 고 귀
한 티 오 비 노 의 합 하 의 앙 달 하 문 녕 으 로 뵈 온 바 의 곳 건 하 물
알 게 하 미 라 유 뒤 왕 헤 롯 의 썩 를 당 하 여 아 비 아 의 반 념 에 제
사 일 흠 은 사 가 라 오 그 처 는 아 론 의 후 예 일 흠 은 이 리 사 벳 이
니 두 사 람 이 하 나 남 의 압 폐 셔 을 은 자 라 쥬 의 경 계 와 레
의 를 좃 차 흥 하 기 를 흠 이 업 사 되 다 못 아 달 이 업 사 문 이 리 사
벳 이 잉 티 치 못 하 고 두 사 람 의 나 이 또 늘 그 미 라 마 즘 사 가 라
그 반 념 을 의 지 하 여 제 사 의 직 분 을 하 나 남 의 압 폐 흥 다
니 제 사 의 규 레 를 좃 차 그 제 비 로 쥬 의 전 에 들 어 가 분 향 하
는 뒤 썩 여 못 빅 성 은 밧 게 셔 빌 다 라 쥬 의 사 자 터 으 게 나 타
나 향 단 우 편 에 서 거 날 사 가 라 보 고 올 올 흥 고 무 셔 위 흥 니 사

자갈오디사카랴는무셔워말나너의비난거시들터스니너
의쳐이리사벳이아랄을나아리니일흔을요안너라하너
즐거워호며희락호고열어사람이그나물즐거할거시 주
의압페셔터가크미되어청주파독주를마시지안코되루붓
터성신이차이살일사람으로만이 주그 하나님으게돌
아가게호고또 주를압셔헹호여이리아의성경파능간으
로써아밤의마음으로그 아달으게와거스리진쟈로올온쟈
의지혜에돌아가게호여 주를위호여슈리한복성을예비
호리라호니사카랴턴사게갈오디엇지써그려호물알나오
너가늘근사람이요너의쳐나이스한늘것나이다턴사갈오
디나는갑열이니 하나님압페모시느쟈로불이물밭들
어베키말호여알음다운기별을보호노니네가잠잠호여말
호지못호고일일운난날에느문너의말이셔느으리응협
호리라물밋지안으미라호다라복성이사카랴를기다려그

성전안에셔올이물기히네기다니밋나오미능히말하지
못하거날성전안에셔본바이사물알문형용으로써보이고
맛츠너병열이되다라파만이차집에돌아가니후에그쳐이
리사벳이잉티하여수문지다삿달만에말하되 주나를돌
아보며뒤접을이갓치하여붓구리물인간에식난다하다라
여삿달에턴사갑열이 하나님의불이올밭들어가리리의
나살잇고늘에가체네마리암으게남하니다빛의일가요섭
의빙문한밭자라턴사들이가갈오디은혜를바든체넨편
안하라 주너를합기한다하니마리암이그말을황망하여
엇더한문안인가싱과하니턴사갈오디마리암은무셔위말
나네가 하나님의은총을어더잉티하여아달을나을이니
예수라일흔하라데크미되여지극기놈뿐이의아달이라
칭할거시 주하나님이그조상다빛의위로써주워긴니가
꿈의집에왕이되여그나라이다하미업사리라하니마리암

이 갈오되 너가 격인치 못하여 사니 엇지 이를 호료던사 갈오
되 성신이 네게 강림하여 지극히 높으신이의 능호 무로 너를 티
우리니 일노 써나는 바 성자를 하나님의 아달이라 칭호리
라 또 네의 친척이 리사벳이 늘마에 아달을 비여 스니 아버지
못하던 자가 이제 샅달이니 하나님의 말은 능치 못한 바
업나니라 마리아 말이 갈오되 주의 시비여 귀이사니 녁감의
말갓기를 원호노라 하니 이 여편사가 다라 그쳐 마리아 말이
속기 넘어 산디 방에 가유되 한고을에 날으리사 가랴의 집에
들어가 이리사벳으게 문안호니 이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을 들으되 티가 뛰놀고 쉰이 리사벳이 성신이 너의 한지라 크
게 불너 갈오되 모든 체네 중에 내가 기리콜 보고네의 빈바도
기리콜 보왔도다 주의 어맘이니 게 남호니 이 엇더한일이
노 문안소리 너귀예 들니 미티가 깃거 뛰니니 주의 말이 응
험호리라 물 빛는 표복이 잇다 호다 라 마리아 말이 갈오되 너

마음이 주를 뵈고 너령 혼이나 들 구완 호난 하나님을
희락 호터 니테 시비의 미약 호물 돌아보와스니 일노 후에 난
만세 여나를 목이 잇다 일을 거시 능하 이가 나를 위 호 여 디사
를 일 위스니 성인 스러운 지라 그 일 흠이 여 두려 위 호 난 샤를
어 업 비네 거 디 디예 날 을 거 시 그 팔 노 힘을 베 푸 리 마 음 에 피
만 한 자 난 헤 치 고 권 세 잇는 자 는 그 위 예 너 치 고 나 존 자 난 거
천 호 고 주 린 자 난 조 은 음 식 으 로 비 부 루 게 호 고 부 자 로 공 연
이 돌아 가 게 호 여 그 종 이 살 일을 못 들 으 문 압 라 함 파 그 자 손
을 긴 너 어 업 비 네 기 시 미 니 우 리 조 상 파 칼 호 심 갖 다 호 고 마
리 암 이 석 달 을 함 니 호 다 가 돌아 가 니 라 이 리 사 벳 의 아 나 을
괴 약 이 차 아 달 을 나 으 니 린 니 와 친 척 이 주 크 게 어 업 비 네
기 물 듯 고 다 즐 거 워 호 고 팔 일 반 에 날 으 리 아 달 으 게 할 네 를
헝 호 고 그 아 밤 의 일 흠 사 가 라 로 써 일 흠 고 쟈 호 니 그 어 맘 이
갈 오 디 올 치 안 타 요 안 니 라 일 흠 호 니 못 사 람 이 갈 오 디 친 척

중에이일홍잇난차업다호고이여그야밤으게형용호여무
어스로일홍할고호니아밤이분판늘청호여써감오되고일
홍을요안너라호니못사람이괴괴히베기고즉시입이열니
고헤가푸려져말호여하나님을찬미호니린니다무셔워
이일이다오은유덕의산에허여져듯난자마음에간직호고
일으되그림면이야희엇지호리오호니주의손으로못들
엇다라그야밤사카랴성령이느느호여말이말호되찬미할
지라 주의살일의하나님이여호문그빅성을돌아보와
속케호고우리를위호여구완호는주를그사환다윗외집
에셔우니 주리벽쳐오우로그성션지개부탁호여말한바
갓란거시우리를원슈파우리를미워호난자의손에구완호
고우리조삿을어염비베겨그성약을기록호여스니곳우리
조상압라함으로더부리밍세한바라우리를원슈의손에번
겨평생을 주의압페서정성파의로써무셔우미업시섬길

지니이아희를지극기쁨뿐이의선지라칭할거시 쥬를압
 셔헝헝여그길을예비헝기를그빅성으로구완이죄샤헝는
 데이스물알게헝문 하나님이어염비베키는마음으로써
 앓흠날을우으로부터우리게넘헝여어두은데와주근근을
 에거한쟈으께빛치우고우리발을편안한길에인도헝미라
 헝다라아희잘이여정신이건장헝며들게이서이살일나타
 나날에늘으다라

누가복음테이장

마침그쳐여 기살아구스토가련하사롬으게죄세하며호
 적을올니난닥쿠레뇨는수리아방뵈이되여이호적이처음
 으로헝하프못사람은가호적을올니고각각그고을노돌아
 가난뒤요섭은다빛의족보라고로가리리의나살잇노부터
 유뒤에나아가다빛의고을에보니일홈은벳니염이라빙
 문한바마리아아빈쟈로터부러호적을올니니거괴셔아나

을괴약이차맛아달을나으니비로써싸고말궁이에누이둔
죄점에용납할곳이업사미라그디방에목인이이서빛테셔
바음에양의무리를직기논뒤 주의사쟈갇티셔서 주의
영광이두루빛치우거날터덜이크게무셔워하니사쟈같은
뒤무셔워말나니너의게더희할괴별을보하노니이논못뵈
성을위할쟈라오날다빛의고을에너의를위하여구완하난
쥬기리스토를싱하나니얼인아희를빅에싸말궁이에누이
물보라이거시괴호라하논디문득열어뵈군이이서사쟈파
합괴 하나님을송양하여일오뒤우에는 하나님으게영
화하고알에논평안할거시사람이깃부물넘으리라하고사
쟈셔나하날노가니목인이서로갈오뒤우리벳니염에가
쥬우리게보여일윤일올보쟈하고급피가마리얏파요섭파
말궁이에얼인아희누이물보고즉시뵈사말한바얼인아희
일노써고하니듯논쟈목인의말을괴기히네기되마리얏은

이말노써마음에간슈하여유림하다라목인이본바와들은
바다천사의말갓타무로써영화하여하나님을송양하고
도라오다라팔일만에아희를위하여할례를행하고예수
라일홍하니곳아비기전에천사칭한바다라모쇼의례를의
지하여정한날이차미일인아희를안고에루살임에올나가
주으게질이고 주의례에쓴바갓치무룬첫번으로난아달
을 주으게성한물건이라칭하고아올나한쌍반구와혹두
리식기비들기로써제물질여 주의례갓치하다다예루살
임에일홍을시몬이라난쟈가이사니그사람이올고또성심
이이서이살일의위로를사모하는쟈로성령이감동한지
라성령의묵시를어더죽기를맛보기전에 주의키리스토
를보리라하다니이셔여성령으게감동하여성전에들어가
니마즘 예수의부모얼인아희를안고들어와례를좃차행
고져하거날시몬이아희를안고 하나님을찬미하여갈오

뒤이제 주의말한바갓치종을노와안연이갓게호난거시
너눈이 주의구완을보니 주만민의암페갓춘바오빗치
외방에빗치위이사일 주의복성의영화되미라호니 예
수의부모그말을그리히네기거날시몬이축슈호고마리아
게갈오뒤이아희셔서이사일에만이성소를위호고결우볼
밧년표가되여칼노네마음을질너췌여허다한마음의싱각
으로호여금나지계하라다라안나라하난무인이이사
니아설의지피여바누열의살인테션지오나이늘근지라쳐
네로출가한지칠년만에파부되어나이여든너인데성편을
셔나지안코지계하며빌기로밤낫섬기다니당시여압페나
아와 주게감샤하고또예루살임에구완바리던사람으께
이아희를말하다라 예수의부모 주의려를좃차일을맛
추고가리리의나살잇벧고을노돌아가니아희잘이며건장
하고지해가덕덕하니 하나님은총으로하다라미년넘

년절에 그 부모 예루살임에 나가 다니 예수 열두월에 나실
세여 절기의 규례 좃차 예루살임에 올라 가 기약을 맛추고
돌아 오난 뒤 예수는 오일 여 예루살임에 잇는지 라고 부모
는 아지 못하고 동행중에 잇난가 뜻하고 향루 길을 가서 친척
과 친고사이에 차자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임에 돌아 가 찾다
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니 선심가 온디 안저 들으며 쏘물
우니 듯는쟝 그 총명파 대답호물 기기히 배기 거날 부모 보고
이상이 데겨 그 어말이 같오 뒤 아희야 잇지 이갓타 물우리게
행호 나냐 네의 아 밤이나 로터 부리 속이 상호 여 너를 차 찾다
하니 예수 갔오 디 잇지 나를 차즈며 너가 맛당이 아반이 소
에 이사 불아 지 못호 나 니 잇가 하되 부모 난세 닳지 못하 다라
예수 터부리 나 살 잇에 돌아 가 부모 불순종 하니 그 어말이
일노 써 모두 마음에 간슈 하 다라 예수 지혜와 키가 잘인 여
하나님과 사람이 온총을 너 하 다라

누가복음에 삼장

기살디 비류위에 이산지습오년에 본토포나토는 유디방빅
이되고 헤롯손가리리분봉군이 되고 그동성비니포는 이투
리와 툴코니티도쌍분봉군이 되고 누산유난아비리니분봉
군이 되고 아나와키아바제사장되여 살씨여 들게셔 하나
님의말이사카라의아달요안너으미닐으리올단사방에와
회키의밥팀레를전하여 써죄를샤게하니 선지이사야의클
에신바갓치들게셔 불으논소리관오더 쥬의길을예비하
며 그디로를발으게하라 모든골이치가 멧기우고 산파두
턴이나자지고 그분거시발으고 사나온데가평더되게하여
무문형피잇는자난 하나님의구완을보리라 하다나와
밥팀레를바들러하난쟈으게요안너관오더 독샤의자식아
누가더의를갈아쳐쟈너의노를피하라 님회키에합당한
열음을밧쳐스사로압타함을우리조상이라하지말나하문

너 너의게 말하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을 벌이워압라함
의 자식이 되게 하미라 이제 독구가 남우살이에 이사니 무론
남기 선한 열음이 밋치지 안는 자는 석여 불에 더지리라 하니
못 사람이 물어 괄오되 우리엇지 하리오 하니 더답하여 괄오
더 옷 두벌이 이사면 노나 옷 업산 자를 주고 밥도 쏘한 글어하
여 라 하고 세 판이 벌으리 밥 팀 테를 바들여 하며 괄오되 선성
님 우리엇지 하리오 하니 괄오되 텅한 부세 외에는 취치 말나
하고 군사 쏘한 물어 괄오되 우리엇지 하리오 하니 괄오되 사
람으 게 토 식지 말며 거 죽고 치 말며 어든 바 낭 식으로 써 죽하
다 하라 하 다라 빅성이 기 다려 다 마음에 요 안 너를 기 리스톤
가의 심 하니 요 안 너 못 사랑 게 되 답 하여 괄오되 나는 꿀 노 써
너 의 를 밥 팀 레 주 되 오 직 나 를 이 기 난 자 올 이 니 그 신 들 밋 들
풀 나 하여 도 너 쏘한 감 당 치 못 할 거 시 테 는 성 령 파 불 노 써
너 의 를 밥 팀 레 주 고 그 손 에 키 를 잡 고 그 마 당 을 정 이 살 이 여

일은창에떨이고계는새지지만노를노써살으리라하고또
열어말노써권하여복음을뵈성으게전하다니분봉군해롯
시동성의쳐헤로도이일파밋힌한바악으로써다침망을요
안너으게보고그이를터하여요안너를옥에가두니라마침
뭇죄성이밤틈레밤을적에 예수또한밤틈레를밧고밧셔
여하날이열니고 성령이그우에넘하니형상이비들기갓
고하날노뭇터소리이서같오디너는너의사랑하난아말이
요너의깃거하노바라하다라 예수비르소말아치느디나
이삼습이니사람이써요섭의아말이라하고그아밤은헤니
요그아밤은마티요그아밤은너위요그아밤은밀키요그아
밤은얀너요그아밤은요섭이요그아밤은맛타디요그아밤
은아뭇이요그아밤은나움이요그아밤은예솔니요그아밤
은낙키요그아밤은마앗시요그아밤은맛타디요그아밤은
시밧인이요그아밤은요섭이요그아밤은유다요그아밤은

요야논이요그야밤은래사요그야밤은소로바밭이요그야
밤은사나털이요그야밤은네리요그야밤은밀키요그야밤
은갓디요그야밤은꼬삼이요그야밤은일마담이요그야밤
은열이요그야밤은요수요그야밤은이네살이요그야밤은
요림이요그야밤은맛닷이요그야밤은니위요그야밤은수
몬이요그야밤은유다요그야밤은보섬이요그야밤은요남
이요그야밤은열야김이요그야밤은밀야요그야밤은민나
요그야밤은맛타요그야밤은나단이요그야밤은다빛이요
그야밤은엿쇠요그야밤은오벳시요그야밤은보웃시요그
야밤은살몬이요그야밤은낫손이요그야밤은아미나답이
요그야밤은알디요그야밤은의사론이요그야밤은바릿시
요그야밤은유다요그야밤은야곱이요그야밤은이삭이요
그야밤은압라함이요그야밤은바라요그야밤은기르리요
그야밤은사룩이요그야밤은라가우요그야밤은발의이요

귀아밤은익빛이요귀아밤은사나요귀아밤은기난이요귀
아밤은아발삿시요귀아밤은섬이요귀아밤은노아요귀아
밤은나뉘이요귀아밤은마두사나요귀아밤은익이요귀
아밤은야릿시요귀아밤은마늬넬이요귀아밤은기논이요
귀아밤은익뜻시요귀아밤은셋시요귀아밤은아담이요귀
아밤은하나님이니라

누가복음에사장

예수 성령이너넬한지라올단기골노부터돌아가니 성
령이인도하여들게가사슴일에시염을미귀게보와그셔여
먹지못하고피약이차비곰과하니마귀잡오디네만약 하
나님의아달이면이돌노써척이되게하라하니 예수디답
하되글에일너스되사람의살미척만안이라하니미귀달이
고올나가순식간에턴하각국으로써보여갈오디니이모든
권세와영화로써너를즐거시이거산너게맛친거시라너의

하고저 하는바를 줄이니 너만약 너게 절하면 다 배히라 하니
 예수도 답하여 갈오디 글에 이사니 주 너의 하나님으
 절하여 호을 노섬기 갓다 하니 또 슬고 예루사림에 날으리
 텅에서 우고 갈오디 너만약 하나님 의 아 딸이면 여귀 뒤
 너리라 글에 일터스되 그사자를 명하여 너를 보호하여 또한
 손으로 붓들어 발이 들에 질니 우물면 하리라 하니 예수도
 답하여 갈오디 글에 이사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염치 말
 나 하미 귀게 구가 다 하여 잠산셔 나 나라 예수 명령의
 능간으로 가리기로 돌아 가니 그명성이 사방에 페지 다 회
 당에서 가라치니 못사람이 영화하 다라 자리는 곳나 살
 잇에 가사 밧일에 규례를 좃차 회당에 들어가 서서 오이려
 하미 선 지이사야의 글노 써주거 날칙을 펴그 냐 풀보
 니 써스되 주 의 명령이 너게 이스문 나를 기
 림 발나 복음을 가난한 사람
 으게 전하며 나를 보너 여사루
 잡편자를 노이기를 표하며 소

스

경을 밭 밍 하며 썩 꺾진 자를 노와 가 꺾 여 써 주 의 희 념 을
던 호 라 호 엇 거 날 이 여 칙 을 텨 사 환 를 주 고 안 즈 니 회 당 못
사 람 이 눈 을 못 난 지 라 에 수 비 르 소 같 오 디 이 클 이 오 날 녀
의 귀 에 응 호 엇 다 호 니 못 사 람 이 간 증 호 고 그 입 으 로 은 총 의
말 나 오 물 귀 귀 히 네 꺾 괄 오 디 이 요 션 의 아 딸 이 안 이 냐 호 니
에 수 같 오 디 녀 의 실 노 속 담 을 인 호 여 니 꺾 말 호 라 의 원 이
스 사 로 꺾 치 라 우 리 가 밍 남 에 서 형 한 바 를 들 으 니 또 한 본 토
에 서 형 호 라 니 실 노 녀 의 꺾 말 호 노 니 션 지 가 본 토 에 서 밍 자
한 자 업 나 니 라 오 직 니 실 노 녀 의 꺾 말 호 노 니 이 리 야 서 여
하 날 이 삼 년 반 을 밍 거 오 은 쌍 이 크 꺾 귀 황 호 여 이 살 일 에 꺾
부 만 호 되 이 리 야 부 리 물 밍 들 어 한 사 람 으 꺾 가 미 업 고 오 직
시 돈 의 사 립 다 하 파 부 꺾 만 나 아 가 고 션 지 이 리 시 서 여 이 살
일 에 밍 남 풍 이 만 으 되 한 나 토 정 호 미 업 사 되 오 직 수 리 아 의
사 람 나 만 이 라 호 니 회 당 못 사 람 이 듯 고 심 이 노 호 여 불 어 성

밧개썩차슬고성지은산벼랑에밀치고저호되다못 예수
 못사람가운뒤로지나가다라가리릭의한고을가빌남에닐
 으리사밧일에가라치니못사람이그가라치를경동호문그
 말이권세이사미다라회당에한사람이터려우귀의신에붓
 든바된지라크게볼터괄오뒤나살잇의 예수난우리너의
 로터부딕어들어기로너와셔우리를망호나너너를원출
 아난거시 하나님으의성자라호니 예수최망호여괄오뒤
 입닷고나오라호미사귀못사람가온터업두리치고나오피
 그사람이상호미업사니못사람이이상이베겨서로말호여
 괄오뒤이엇터한말이기로권세와능호무로써샤귀명호
 여곳나온다호고이여명이사방에나다카 예수회당에나
 와시몬의집에들어가니시몬의장모연병이심이중호여사
 람이위호여 예수계구호니 예수갓가이셔서연병을최
 당호미연병이물너가고부인이긔볼어나일술엿투다라히

+

질서여 모든 사람이 잇난바 병호는 자를 다리고 날으거 날
예수한나 식손을안찰호여 곳치니 귀신이 열어서 사람으로나
와 불너갈오디너난 하나님이라호니 예수경게
호여말치발나호문네가 자괴를기리스토되물알미라발서
여 예수들게나 가미못사람이차자나 아와가지말파티호
여 몇추되다 못예수갈오디너맛당이 하나님이라 목음
을달은고을에전할거시너가 불이물밭들이를위호미라
호고이여도를가리키모든 회당에전호다라

누가복음데오장

마침못사람이옹위호여 하나님의를도를듯난디 예수긴
니사릿히변에셔서두비히변에이사물보니고기낙는사람
이비를셔나그물을씻난디비한척은시몬의히라 예수올
나명호여비를옴겨못를조금셔나비가온디안저가라치다
니말을다호고시몬게말호여갈오디비를옴겨김꾼데닐으

러그물쳐낙그라호니시몬이갈오디네감우리종야를입부
 고어든바업사니이제네감의말노써그물치리라호고척그
 물을치니고기결닌거시심이만아그물이거의씩여질나거
 날달오비에동무를불너와셔도우라호미오니고기를두바
 여치와거의잡길나거날시몬피들이보고예수의발알에
 업저여갈오디 주나를셔나소셔나논죄인이라호고시몬
 파밋함괴호난사람이다이상이네기문고기잡운거시만으
 마라시몬의동부시비디의아말야꿈파요안너또한글어호
 니 예수시몬게갈오디무셔워말나이제부터너사람을어
 드리라호니테덜이비를살어못테디이고모든물건을버리
 고 예수를좃다라마즘한고을에서전신에뵈남풍호난자
 예수를보고업저여구호여갈오디 주즐니시면나를간
 정개호시리이다호니 예수손을펴민져갈오디너즐거호
 니너는간성호라호미뵈남풍이즉시났는지라예수경개호

되 사랑으께 고치말고 다 못가 제사으께 보이고 모쇼의 차린
바갓치네 물을질이고 너간 정후 무로 써 못 사랑의 간증을 삼
우라 하니 그 소문이 더욱 퍼져 못 사랑이 모여 들으려 하니 병
을 곳치려 하니 예수물더가 들게서 빌다라 그 세여 하루는
가라 칠적에 바리시인 파범가라 치는 자 가리리 모든 마을파
유디와 예루사림으로 부터와 안젓는 치라 주의 능후 미합
괴 후여 써 병을 곳치니 사람이 상으로 써 발암 증후는 자를 머
이고 삼블어 더 들어가 예수압페 두포져 후 되 사람이 만
아 시리 금갓가 이 못 후고 이여 집 영에 올라기와 셀노 상으로
써들이 워 못 사랑중에 예수의 압페 당하니 그 미드물 보포
갈오 뒤 사랑아네 죄 사 후 엿다 하니 선비와 바리시인이 그으
키의 논 후여 갈오 뒤이 참 남한 말 후는 자가 누냐 하나 남외여
누능히 죄를 사 후 리요 하니 예수 그 뜻을 알고 더 답 후여 갈
오 뒤 너의 엿지 마음에 의논 후나 누말 후여 죄 사 후는 것 파블

어 허하난 거 세 어 너 거 시 쉽 갖 나 냐 다 못 너 의 로 하여 금 인 차
세 상 에 셔 죄 사 하 는 권 세 이 사 물 알 게 하 리 라 하 고 이 여 바 람
증 하 난 자 께 말 하 여 갈 오 디 너 명 하 노 니 너 불 어 나 상 을 가 지
고 집 에 돌 아 가 라 하 니 그 사 람 이 즉 시 날 어 나 못 사 람 압 페 셔
누 워 션 거 슬 가 지 고 집 에 돌 아 가 며 하 나 님 을 영 화 하 고 못
사 람 이 또 한 혼 나 하 나 님 을 영 화 하 고 또 놀 너 여 갈 오 디 노
날 의 외 지 사 를 보 았 다 하 다 라 그 후 에 예 수 나 가 세 판 리 위
라 는 자 세 소 에 안 저 사 물 보 고 갈 오 디 나 를 좃 추 라 하 니 이 여
일 절 을 버 리 고 날 어 좃 다 라 리 위 예 수 를 위 하 여 더 연 을 집
에 비 설 하 고 허 다 한 세 판 파 달 은 사 람 이 참 예 하 여 사 니 바 리
시 인 파 션 비 테 자 께 시 비 하 여 갈 오 디 엇 지 세 판 파 죄 인 으 로
더 부 러 음 식 하 나 냐 하 미 예 수 더 답 하 여 갈 오 디 든 든 한 자
난 의 원 을 쓰 지 안 코 오 지 병 하 난 자 야 하 나 니 너 가 오 문 을 은
사 람 을 불 으 미 안 이 요 죄 인 을 불 너 희 키 께 하 미 라 하 다 라 못

사람이 같오디요 안너의테 자는 자 주게 하 여 빌고 바리시
 테 자도 또 한 글어 하느디 오직 너의테 자는 음식 한다 하니
 예수 같오디 실 낭이 이 사 미 엇 지 능히 경 하 하는 사람으로 하
 여 금지게 하랴 오직 훗 날 실 낭이 간 후에 야 이 여지게 하 나
 니라 하 고 비 사 를 베 풀 어 못 사 람 게 말 하 되 시 무 명 으 로 현 옷
 꺾 는 사 람 이 업 사 문 식 거 시 그 현 거 슬 안 고 날 어 나 기 운 바 시
 거 시 현 거 세 합 지 못 할 가 접 퍼 하 미 요 식 술 노 현 피 디 여 넷 는
 사 람 이 업 사 문 식 술 이 그 피 디 를 터 쳐 술 이 식 고 피 디 또 한 망
 하 게 될 가 접 퍼 하 미 니 오 직 식 술 을 식 피 디 예 베 으 야 온 전 하
 나 니라 목 은 술 을 마 시 고 식 술 싱 각 하 는 자 업 사 문 목 은 거 시
 죠 타 일 으 미 라

누가복음에 독장

마침사밧일에 예수곡석밧틀지니 난디테 자 이 삭을싸 비
 비여 먹으니 바리시인이 혹 같오디 사밧일에 행하기가 합당

치못할바를엇지하하나냐 예수갈오더너의닷빛과밋쫓
논쟈비곰풀써여헝하바들오이지못하하나냐 하느님의턴
에어드게들어가진설한씩을취하여먹고또죽난쟈를주어
스니다못이씩은제사외여논합당치안인거시라하코또갈
오더위자도또한사밧일의주인이라하다라또한번사밧일
에 예수회당에들어가가라치난디올은편손괄은쟈이사
니션비와바리시인이 예수사밧일에꽃치는가엇비와쌈
을어더죄주고져하니 예수그뜻을알고손괄은쟈세명하
여갈오더닐어가온디셔라하미이여닐어셔니 예수웃사
람게갈오더너의게못논니사밧일에션을칭하며악을헝
한파싱명을구완하며싱명을망한거세이닉거시합강하
갓나냐하고이여못사람을둘드보고그사람으끼갈오키손
을펴라하미펴치니소복하거날못사람이심기노하여함피
엇지셔 예수를쳐치할고의논하다라그성여예수산애가

빌녀하여 밤이 맛도록 하나 남으 세 빌고 말시여 세 자 딸을
 불녀 열 두 사 람을 퇴하여 몸테 자라 칭하니 시몬 피들이 가 칭
 하는 자 파그 동성 안드라 파야 곱파 유안 너 짜 비 립 파 말도로
 미와 마 티 파 도 마 파 알 비 의 아 딸 야 곱 파 예 라 칭 하는 시몬 파
 야 곱 의 동 성 유 다 외 이 속 가 요 유 다 니 곳 스 식 을 팔 자 다 라
 예 수 몸 테 자 파 함 기 산 게 너 리 평 다 예 서 니 허 다 한 테 자 파 못
 사 람 이 유 덕 사 방 짜 예 루 살 입 파 투 로 와 시 돈 이 히 변 으 문 북
 터 와 들 으 며 병 을 곳 치 고 쫓 한 터 리 운 귀 의 억 제 한 바 된 자 다
 나 으 물 어 드 니 예 수 능 하 물 나 타 너 여 써 사 람 을 곳 치 난 고
 루 못 사 람 이 민 지 고 저 하 다 라 예 수 눈 을 들 어 테 자 를 보 고
 관 오 뒤 간 는 한 자 복 이 문 하 나 남 의 나 라 이 너 의 게 잇 는 바 요
 주 름 자 복 이 문 너 의 장 차 비 부 를 거 시 요 우 는 자 복 이 문 너 의
 장 차 우 슬 거 시 요 인 자 를 위 하 여 사 람 이 너 의 들 미 위 하 더 벌

당일에 즐거워뵈는 거시 하날에셔 너의 상주미클지 너 조
 상이 선지를 또한 이갓치 하였나니라 부한 자지 화문일즉 안
 위를 어드미요 비부른 자지 화문장차 줄일 거시요 웃난 자지
 화문인통할 거시요 웃사랑이 칭예 하는 자지 화문 그 조상이
 가 선지를 또한 이갓치 하였나니라 너의게 말하노니 너의
 들디적 하는 자를 사랑 하며 미워 하는 자를 선디 하며 악연
 난 자를 축수 하며 함히 하는 자를 위하야 빌며 너의 생을 치면
 달은 생애 지돌이 워주며 밧견 옷을 썩야 스면 속 옷기 지금치
 말며 너의게 구하는 자를 주며 너의 물건 가진 자를 다 시달너
 지 말며 사랑으로 너의게 힘코져 하난 거슬 너의 또한 이갓치
 사랑으게 할라 너의를 사랑 하는 자를 사랑 하면 무삼은 총
 이 이사리요 죄인이 또한 저 사랑 하는 자를 사랑 하나니 너
 의록 선디 하는 자를 선디 하면 무삼은 총 이 이사리요 죄인이
 또한 이갓타니라 사랑으게 빌니고 갑기를 바린면 무삼은 총

이이사리요죄인이죄인으게빌니또또한그감기를의수이
하논이라너의를디적하논자롤사당하며션되호고빌너고
바리올버리지안은즉너의상주미크고지극기놈꾼의의아
말이될거시네의해감이미우해록비반호고션치안은사람
으게밋츠미니어업비네기기를너의아반이갓치호져와사
람을의논치안은즉너의를의논치안이하고사락을죄주지
안이하즉너의를죄주지안이하고사락을접어싱각한즉너
의를접어싱각하고사락을준즉너의를주고큰말노써누루
고혼들여밧게넘지게너의를줄이니너의가무삼할노써준
즉또환고말노써너의를줄이라하고또비사로말하되죄경
이죄경을인도하라서로웅터리에씩지안이래태자가션
심을넘지못하되오직가큰자난션싱파갓타니라동싱의눈
에가시이사물너의보고자괴눈에북장이사물싱각지못하
니엇지냐도리여동싱게갈오되네눈에가시를나를용납하

여버리게 하라 하고 자괴눈에 못샨을 보자 못하니 거죽선을
하난쟈야만셔네눈에 못샨을 버리고 발기 보이거든 가셔동
싱의눈에 가시를 버리라 선한남게 악한 열음기 밋치지 안코
악한남게 선한 열음기 밋치지 안눈이 무른남클그 열음으로
써아나니라 형극가온디 부화파를 싸자 못하고 능샨가온디
포도를 키지 못하니 선한사람은 마음에 선을 싸앗기로 그
선을 너이고 악한사람은 악을 싸앗기로 그 악을 너이기 논무
룬마음에 잇난 거슬 입에 말하미라 너의 잇시기를 징하여
쥬야 쥬야 하니 너의 말은 형치 안가야 무론나비나가와
말을듯고 형하는쟈난것지 써비기라 집지음갓타니 과거를
집피하고 터을 반석우에 누면 큰축이년셔그 집을 킬쳐도 능
히진동치 못하문터이 반석우이미요오직듯고 형치안는쟈
논터업시 집을 흑우에 지음갓타니 탕슈가 밀치면이여너머
지고 불어지미고리라

누가복음에 칠장

에 수뵈성을 이르러 쳐 발을 다 하 고 가 밭 남에 들어가 니 한 파총
의 사랑 하는 종이 병하여 죽어가 난지라 예수를 공손 하 고
유디 장노수인을 모니 여와 씨종 갖치 물 주 하 가 하니 장노
에 수으게 나 아와 간 쉼이 구 하 며 말 노 디 이 일 노 끼 이 사 람으
게 베 푸기 썬 거 시 테 우리 뵈성을 이르러 하 여 회당을 세워 사 하
니 예수 합귀 가 집 에 서 머 지 안 아 씨 파 총 이 그 버 슬 보 니 여
나 아 와 관 오 디 슈 입 부 지 말 노 소 씨 너 집 에 남 하 시 면 너 가
감 당 치 못 하 고 또 한 너 가 아 가 지 도 못 할 시 니 다 뜻 한 들 만
말 하 신 속 종이 반 다 시 나 을 거 시 나 도 사 람으 니 붓 고 또 사 는
너 게 붓 터 스 니 명 여 가 라 한 속 가 고 오 리 한 측 오 노 종 으 로
후 여 금 이 를 흥 라 면 곳 흥 하나 이 다 니 예 스 듯 고 귀 히 네
겨 죽 는 자 들 돌 아 보 와 같 오 디 너 너 의 게 말 호 노 니 이 살 일 에
이 갖 치 못 타 이 맛 난 자 들 보 지 못 었 다 다 라 사 환 이 놀 아

가 보니 병하단 종의 슈성하다 카 불원에 제 소한 고늘에 가니
일흠은 나인이 착 모든 데 자 파 허다 한 사 착이 화 기 형하 여성
문 에 갓 가 오 미 죽은 자 들 머 이 고 나 오 난 디 고 어 맘 은 파 부 로
이 거 시 독 자 라 고 을 뵙 성 이 호 상 하 난 자 만 게 날 주 보 고 어
염 비 네 겨 같 오 디 우 지 말 나 하 고 갓 가 이 가 그 널 을 만 지 니 머
인 자 밋 추 난 지 라 예 수 같 오 디 쇼 자 야 니 네 게 명 하 노 니 날
어 나 라 하 미 죽은 자 날 어 간 저 말 하 거 날 예 수 아 달 노 쓰 그
어 맘 을 주 니 못 사 착 이 놀 니 여 하 나 님 을 영 화 하 여 같 오 디
즌 션 지 가 우 리 중 에 날 어 스 니 하 나 님 이 그 뵙 성 을 돌 아 보
왓 다 하 고 이 여 명 성 이 유 디 파 사 방 에 허 여 지 다 라 요 안 니 의
테 자 이 일 노 쓰 스 칭 으 세 고 하 니 요 안 니 두 테 자 를 불 너 예
수 으 게 보 니 여 같 오 디 맛 당 이 올 자 가 괴 디 노 물 오 미 달 은 사
름 을 기 다 리 카 난 가 하 라 하 니 두 사 람 이 예 수 으 게 나 이 와
갈 오 디 밤 틈 데 복 배 푸 난 요 이 니 가 우 리 를 보 니 여 션 성 을 보

고일으되맛당이올샤가션성이니잇가몰오미말은사롬을
기다리라난잇가하다이다씨여 예수모든병과악귀뭇튼
쟈를끗치며쇠경을보게하다니디압하여갈오디너의본바
와들은바로써가셔요안니게고하되쇠경을보게하며안잔
방이를가게하며빅납풍하는쟈를정게하며귀먹성이틀듯
게하며죽은샤를다시볼게하며가난한쟈로복음을늘니고
무룬나를껏치지안는쟈는복이라하여라요안니의사환이
돌아가니 예수요안니를빙쟈하여뭇사람으게갈오디너
의들게나가무어슬모려하나냐같이바람에진동하는거시
냐너의나가무어슬모려하나냐사람이알음다운옷슬입은
거시냐더기알음다운옷파호샤한쟈는왕궁에잇는거시라
글언즉너의나가무어슬모려하나냐션지냐실노클어면너
너의게말하노니이션지보담큰거시클게일너스되니가
사쟈를너의압페보너여너의길을슈리하리카하미곳이사

롬이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인이 나온 바에 난요 안너 보담
큰쟈 업사 되글어나 하나님이나에 지극기 저근쟈가 오
일어이사 롬부담크니라 하니 못빅성파세관이 밧팅테를요
안너으게바든지라 이말을듯고 하나님의를올으물칭찬하
도오직바리시인파법관이그 밧팅테를밧지한코스사론위
하여 하나님의를뜻을박난지라 주갈오더이세상사람을
장차엇지써비하며무삼비사로써비갈이요 아희렬이당니
에안저서로볼너갈오더우리피리를볼너의쉬브결이지
안코우리슬판놀이름이되너의우지안이한다함갓타니라
요안너와셔먹지도안꼬마시지도안이하도너의가써귀
신을품엇다하꼬인자논와셔임의로음식하도너의가말하
기물탐식하꼬슬을즐니는세관파죄인이벗이라하나오직
지혜난그아달노써이를삼나니라 하다라한바리시인이
예수를칭하여 밧을함기하려하미 예수그집에들어

가 뜻밖안 첫난 더 성중에 한테 인은 벌너 죄잇난지라 예수
 바리석인의 집에 안즌 줄을 알고 옥합에 몰약을 담아가지고
 예수의 뒤에 발을 의지하여 서서 울이 눈물노 그 발을 적시고
 먼이 솔노 썬 더며 입을 그 발에 접하고 몰약으 뽀뽀 발으니
 예수 청한 바리석인이 보고 마음에 일오되 이 사랑이 만약 선
 지면 만지느자가 잇더한 부인 일줄 알니라 하문테가 죄인이
 미러 예수 더답하여 갈오더시몬아 너네 께할 말이 잇다하
 니 갈오더선 성념 청긴던 말삼하소서 갈오더 빛낫난 자가 두
 빛진자 이시니 한나 은은 오슴 놓지코 한나 은닷 놓을져스
 나 감풀길 이 업스미 다면 하여 주어스니 그 둘이 사랑하기를
 누가 더 하갓나냐 시몬이 더답하여 갈오더 닐 뜻에 난만이면
 한자 니이다 하니 갈오더 너 소견이 올타고 부인을 돌아보
 며 시몬게 갈오더 너이 부인을 보나냐 너가 너의 집에 들어오
 미너 난물노 썬 너 발을 씻지안 이호되 오직 네 난 눈물노 너 발

을적시고멀이슬노문되고너는입으로나를맛추지안이하
 되오직데논나들어오턴새로벗터니발에접히기를마지안
 이하고너난길음으로써니멀이에발이지안이하되오직데
 논몰약으로써니발에발은다고로니네게말하노니데의만
 은죄사하문그사랑하미만요사하미적은자난그사랑
 하미적으미라하고이여부인게갈오뒤네죄사하엿다하니
 할피안젓턴자사스로이갈오뒤이엇터한사람이죄를샤하
 나냐하니 예수부인게일너갈오뒤네의밋으미너를구완
 하노니안연이돌아가라하라

누가복음데팔장

마침에 예수두로성촌에행하엿으며 하나님외나라
 복음을보하느뒤열두데자합히고또한두어부인이이사
 니악귀의부터연약한바로곳치물어든자막달엔의마리아
 이니닐굽귀신이그몸으로나온자요또헤롯의집지상쿠사

의쳐요안나요또소산나파달은부인열어이다잇는바로꺼
일을엇두다라허다한사람이모든고을노부터모여나아오
니 예수비사로말하되농군이나가종자를헤친다헤칠씨
여길것티씨러진거슨사람이발부며공중에시가다먹고또
돌식시리에씨러진거슨어음이나쟈곳말으문저즈미업사
미요또가시가온디씨러진거슨가갓치잘이여갈이우
고또조은쌍에씨러진거슨나셔결실이빅곰이라하여말을
다하고볼오되귀이사면들으라하니데자물오되이비사가
엇지니잇가갈오디 하나님이나라비결은너의를주워알
비하고오직다른사람인즉비사를베풀운그보고발지못하
며듯고씨앗지못하미니이비사가이거시라종자는 하나
님의도니길것티씨러진거슨사람이도를늘으미미귀곳날
으리그마음으로말위암아아사가문밋어구완을어들가하
미요돌식시리에씨러진거슨사람이도를늘고즐거워바다

시나 다 못썩리가 업서 잠간 밋다가 시험 할 만 나면 비 반 고 난
거시 요가 시가 온 디 썩러진 거 손 사람이 도를 듯 고 가 나 이 세
상의 모든 생각과 죄를 파 열 박이 짓 눌니 워 결실 치 못 하 난 거
시 요 조은 쌍에 썩러진 거 손 사람이 울 괴어 진 마음 으로 썩도
를 들어 직 기고 참 으 무로 썩 결 실 하 는 거 시 라 사 람 이 불 놀 혀
고 그 르 스 로 썩 더 밍 푸 며 상 알 게 두 지 안 괴 오 직 화 덕 우 에 노 으
문 들어 오 난 차 로 그 빛 출 보 게 하 미 라 감 춘 거 시 나 타 나 지 안
으 미 업 고 은 밀 한 거 시 나 져 아 지 못 하 미 업 사 니 라 괴 로 듯 는
바 를 삼 가 하 다 잇 는 차 는 티 주 고 업 는 차 는 곳 싹 에 잇 는 바 세
지 아 사 가 나 니 라 하 다 라 예 수 의 어 맘 파 동 심 이 나 아 와 사
롬 이 만 아 시 러 금 갓 가 이 못 하 니 혹 이 고 하 여 끌 오 더 주 의
모 친 파 동 심 이 뱃 게 셔 서 주 를 모 고 져 하 나 이 다 하 니 더 답
하 여 같 오 더 너 의 어 맘 파 동 심 은 이 하 나 님 의 도 를 듯 고 킹
하 는 차 라 하 다 라 고 셔 여 하 루 는 예 수 테 자 로 합 귀 비 예 올

나 같오되 우리 호슈를 건네랴 하고 형션하니 힘할새 여
 수자난디마 좀바롬놀이 호슈에 너럭비가 온디 물이 차심이
 워터하니 테자나 아가씨와 같오되 선님우리 망하여가나
 이다하니 예수씨여 바람과 물결을 칩망한디 즉시 밋고 안
 정하난지라 테자게 일오되 너의 밋오미어디 잇나냐 하니 못
 사롬이 두리워끼기히베겨서로 갈노디 이엇던 사람이기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쏜한순종한다 하라 키라 신쌍에 날으
 니 가리릭마 존겐이라 예수 못되 너리미한사롬을 받너니
 성너사람인데 귀신이 붓터오리 옷슬 남지안꼬 집에도 거치
 안꼬 두덤에 거하는자라 예수 들모고 업터여크게 불타갈
 오디지극기놉쑤 하나님의아달 예수난너녕감으료터
 부러어들어나노구호노니 나를고상제말나호문 예수일
 즉귀신을 명하여그사람으키나오미라이귀신이억제한지
 가올이여직기여소사슬과고랑을치우되끼게갓츠거슬문

고귀신으리들게쫓추미된지라 예수홀으되배무삼일홀
이냐하니갈오디군이라하문귀신든자만으미라 예수으
리구하기를명하여지옥에들어가지안게하라다니거괴듯
트우리이서산에서먹거날들어가물구하미허하니귀신이
그사람으리나와듯트게들어가니그무리산견들마기로달
아닐여호슈에싸지거날목인이보고달아나성시파촌에고
한디못사람이나가하느바를보려하여 예수으리나아가
귀신뭇던사람을보니옷슬남고던연이 예수의발알에
의지하엇거날못사람이무셔워하니본자귀신뭇던자엇
터게구완어드무로써고한디라신사방엇못사람이그셔
나기를구하문무셔우미심하미다라 예수비에올나돌아
가는디귀신뭇던자합괴하기를구하니 예수보닉여갈
오디네집에돌아가 하나님이네게행한바큰일노써사람
으리고하라하니터이여가오은고을에서 예수자괴를위

하여 행한바를 면하여 다라 돌아올새 여릇 사람이 영접하 문기
 다리 물인하 미다라 한 사람의 일흠은 이로니 회당 차지하는
 자라와셔 예수 의 발알에 업녀 여그 집에 놀으 불구하 문외
 쌀의나 이 열두 흘인테 거의 죽어가 미라 예수 행할적에 못
 사람이 옹위하 난더 한테 인이 더 핫충 열두히 여의원 으르 위
 하여 그 산업이 모진하 고도 능이 곳치미 업슨자라 예수의
 뒤예나 아와 그 옷단을 만지니 더 핫증이 곳 멧는지라 예수의
 갈오 더위가 나를 만지나 나하 니다 업나 이다하 는더 피들파
 밋함피하 는자 갈오 더 션성님 못 사람이 밀밀이 옹위하 옯나
 이다하 니 예수 갈오 더 나를 만지는자 이사니 능하 마나로
 갈미암 아나 오 불씨 맛노라하 니네 인이 능히 숨기지 못 할줄
 을알고 션며 볼으려 업더 여릇 사람의 압페셔 만진연고와다
 못즉시나 으루로써고하 니 갈오 더네 인아네 밋으미 느를구
 완하 니안연이 돌아가라하 다라 말 할새 여 회당 차지한자의

짐으로오는자갈오디병감의쌀이죽어스니선싱출입부께
 말으소서하거날 예수듯요디답하되무셔워말고오직밋
 은죽네쌀이구완홀어드리라하고집에들어가난디피들파
 야곰파요안넌파네이의부모외여논말은사롬은늘어가지
 못하게하다라못사람이울로통곡하니 예수갈오디우지
 말나네이죽지안코잔다하니못사롬이비우스큰그죽으물
 알미라 예수네이의손을잡고불너갈오디네이야늘어나
 라하미그령혼이회복하여즉시불어나거날명하여먹을거
 술주라하니그부모괴괴히네기논지라 예수경게하여행
 한바로써사롬으괴괴치말나하다라

누가복음데구장

예수열두네자들불너능함과권세를주워모든귀신은억제
 하며병을긋치게하교보닉여 하나님피나사을면하며언
 약하물앗게하며갈오디길에쓰는것파혹지팡이파혹자루

파혹양식파혹은파혹두벌옷슬가지지말고너의들어가난
바집에거하다가또한거기셔싸나라너의들디점지안난자
잇거든그고을을셔날셔여발에몬주를터러써못사름으
귀간증을삼으라하니데자나가두로촌에노닐어복음을전
하며병을끗치다라분봉군헤롯이 예수의칭한바를듯고쥬
제하문혹요안니가다시닐엇다하며혹이리야가낫타낫다
하며혹넛션지한나이다시닐엇다하며라헤롯이갈오디요
안니를니버엿난디이제또이런말을들으니파연엇더한사
름이노하야보고져하다라몸테자돌아와칭한바로써 예
수으귀고하니다리고그옥기물너가비식다들게가노디못
사람이알고쫓거날 예수디점하야 하나님이나라을말
하며무룬의원쓸자를끗치다라날이져물키여열두테자나
아와갈오디우리어귀난들기니청컨뎡뭇사름을헛쳐두로
촌니예가뉴속하고밤을엇게하소서 예수갈오디너의가

공급하라 하니 갈오디 우리게는 섹다 샷기와 꼬기 두리만이
사니가 셔먹을 거 살사지 안으면 엇지 써 못사 략을 메기 리요
호문그사 례이디 강오천이미라 예수테자피 갈오디 못사
롬을 세를 지어 안지 올디미 세예쉬인 식하라 하니 테자그말
갓치다 안지우미 예수섹다 샷기와 꼬기 두리를 가지꼬하
날을 올어려 축슈호고 세여테자를 주워 못사람으피 노으니
다비부르게 먹고그 남은부슬어기 열두광지를 거두니라 마
즘 예수혼자비논디 데자 할피 하니 물으되 못사 례아나를
누라 하다냐 디답호여 갈오디 혹 밥팀레를 베풀던 요안니라
호며 혹이 리야라 호며 혹 넷션지 한나이다 시브엇다 호다 이
다 예수갈오디 너의 난나를 누라 하니냐 피들이 갈오디
하나님의 키리스토 니이다 하니 예수경게 호여 사람으피고
치말나 호고 또 갈오디 인자가 반다 시고 상호여 장노와 제사
장파션비의 버린바 도여 취기 볼보왔다 가 삭일만에 다시 날

갓다하고 또 뜻사람게 일오디 너의 데 자되고져 하면 몸들이
기여 날노 습직들을 지고 좃추라 무룬그 생명을 구원코져
는 차는 돌이여 망하고 나를 위하 여 생명을 망한 차는 구원하
리라 사람이면 호을 엿고 스사로 망하며 힐으면 누삼니의 하
미이사리요 무룬나파 너의 도를 못그려 위하는 차난 인자가
자기 텨부와 밋텨사 영화로써 남할새 여또한그 사람을 못그
려 위하리라 니실노 너의게 일오노 너어 귀선 차혹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을 보리라 하다 그 후 칠팔일만에 예수
피들과요 안니파야 곱을 다리고 산에 올라 빌녀하다 니 빌새
여용모가 변하고 그 옷시 결뵈하 여 빛출듯코 모쇼와 이라야
두사람이 텨부리 말하난 디 영광으로 나타나 예수장차 해
루살입에서 죽움 일으물 말하니 피들과 합귀하는 차 끈하 여
졸다 가세여 그 영광파또 두사람이 합귀셔 스물보고서로써
날새여 피들이 예수으귀 일오디 선 생남우 리어 귀이사미

초으니 우리 복용 남고 여막 세간을 지늘던 한나 온주를 위하
 고 한나 온모쇼를 위하 고 한나 온이 리야를 위하 고 다이다하
 나 스사로 일은 바를 아지 못하 다 라 말할 세여 구름이 터퍼 몸
 이 구름에 들어가 거발우셔 위하 니 구름으로 누터 소리가서
 갈오던 이는 너의 사랑하 난 아말이니 너의 불으라 하 다 하 소
 리고 주판하 면 에스후자 이사돌보고 례자 잠잠하 고 당시여
 본바로 써사름으 시고 치안타 하 이튼발산에 너리니 못사름
 이 영접하 난던 구충에 한사람이 불터 갈오던 선싱남구하 노
 너너의 아말을 돌아보 소셔 이는 외아말인던 귀신이 부터 갑
 작이 불우제기고 지를하 며더 품을 흘너 비하여 히를 더하 고
 색나 기열염기로 슈의테자 계쉴기하 구하 되 능치 못하 다
 이다 하니 예수 갈오던 슬픈지 가 밧으 고 업고 귀역한 세상
 아 너너의 복한 귀하 며 너의 복 참는지가 밧서야 네아 할을 다
 리고 이 고 오라 하니 올세여 귀선이 새구려치고 지물게 하거

날 예수더러 온귀신을 쫓망하고 아희를 낫쳐 그인비들 주
니 못사름이 하나님의 크물경동하미 예수외의 험한바른
괴괴히네기니 예수태자계일오디인자장자사름으괴못
치울이니이말노써귀예간척하라되태자명빅지못하문
이말이온밀하여씨닷지못하니감이못지못하라태자사
사로이의논하여뉘가르냐하니 예수그뜻을알고얼위아
희를취하여갓뒤두고태자계일오디무론너의일흥으로써
일런얼인아희를디접하는쟈는나를디접하미요나를디접
하면나보닌이를디하미너의중에가장저근자가크미되
나니라요안너갈오디션성님우라한사람이 주의일흥으
로써귀신쫓추놀보고금하문그우리를쫓지안이미니이다
예수갈오디금치말나무론나를치지안는쟈난우리를향
하나니라하다라 예수하날에을을날이거의날으미형형
에루살임에가기를형하고사람을압셔보너산마랴한마

을에 놀으러 써야 판을 예비할 나느다 마을 사람이 들이지 안
이문그예루살임을 향하여 행하미다 라테자야 곱파요 안
이를 보고 갈오되 주야 우리도 불을 불너 하날 노너려 멸하
갓논 잇가 예수돌아 보고 최망하고 달은 마을 노가 다라 행
할 씨여혹이 갈오되 주무룬 어되 텨 지어 좃고 저하나이다
예수갈오되 여우도 골이 잇고 나난 식도 깃시이사되 오직 인
자논 벌이 들것이 업다 하고 또한 사람의 귀말하되 나를 좃추
라하니 갈오되 주나를 용납하겨 돌아가 아밤을 장사게하
소서 예수갈오되 죽은 자들 맛쳐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다라 또한 사람이 갈
오되 너 주를 좃가 스니다 뜻나 용납하여 먼저 집 나름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갈오되 손에 붓심을 잡고 뒤를 돌아 보
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당하니라 하다라

누가복음에 십장

그 후에 주칠습인을 셔워들 식보닌 여저의 가꼬저하는 바
모든 고을과 모든 쌍에 가게 하며 갈오디 거동 거손만 꼬삭군
이 적으니 동주 개구하여 삭군을 보닌 여힐 씨 거 두 개 하리니
가라닌 너의 를 보닌 거 시 양의 식기가 일이 불이에 들어가
는 것 갖타니라 전디 파혹자로 파혹신을 가지 말며 팔에 서
사람으로 터부터인사 치말고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갈오디 이
집이 편안하라 하여라 만약 편안하는 사람이 이사면 너의 빈
바편안이 남하고 클어 치안은 죽너의 게로 돌아오나니라 그
집에 거하여 공급하난 바를 먹으며 마시라 삭군이 그 감슬어
드미싸니 이 집으로 터집에 오지 말고 들어가 노고을 사람이
너의 를 더 접한즉 그 베푸난 바를 먹고 그 중에 병하난 자 잇거
든 곳치고 쏘 못사를 으기고 하되 하나 남의 나라이 너의 게
갓가 왔다 하고 들어가 난고을 사람이 너의 를 더 접지 안인 즉
혈이 에 나가 갈오디 우리 게을은 온수 새지 터리 너의 를 주리

라 하고 다 못 하나 남의 나라 이 너의 게 갓 가 온 줄 알나 하여
 라 너의 게 일 노니 그 날에 소도 모의 형벌이 이 고을 보담
 견점 즉 하리라 죄화라 너의 코라 신아 죄화라 너의 비시 디야
 너의 가 온 뒤 셔히 한바 능한 일을 만약 투로와 시돈에 셔히 하
 여 스면 일즉 이 죄파 죄를 쓰고 안저 회기 하여 스리라 다 못 판
 죄 하는 날에 투루와 시돈의 형벌이 너의 보담 견점 즉 하리라
 가 빌 남아 너의 하 날 갓 치 놓 갓 나냐 장차 지부에 셔리 지라
 너의 록 듯 난자 너를 들으 미요 너의 록 막는 자 난 나를 막으
 미요 나를 막는 자 난 나를 보닌 이를 막으 미라 하니 칠습인이
 줄 거 워 돌아와 갈 오 뒤 주야 주의 일 흠으로써 귀신 새지
 우리 게 항복 한다 하니 예수 갈 오 뒤 너사 탄이 번 리 갓 치 하
 날 노 셔 리 지를 보와 스나 너의 록 권세를 주워 비암 파 전 갈
 을 발 부며 원수의 능한 물역 세 하여 너의 록 히 하는 자 업스리
 라 글 어 나 귀신 이 너의 게 항복 후 무로써 줄 거 워 말 고 다 못 너

의 일홈을 하날에 기록하물 즐거워하라 하다 라당시에 예
수 성령이 희락하여 갈오디 아반이 텃저의 주아너 아반이
를 찬미호노니 이를 슬거온 자파 통말한 자오기논 감추고적
자오기나 타너 엿나니 션한지라 아반이 여실노이 갓티 깃거
호기는 만물이 아반이로 말미암아 나를 주워스니 아반이 외
여는 누가야 달을 아난이 업고 아달파 밋아 달이 즐겨나 타너
인쟈 외여 난누가 아반이를 아난 자업나이다 호고테 자를 돌
아보고 사사로이 갈오디 너의 보난바를 보니 그눈이 복이라
너너의게 일호노니 션지파 군왕이 너의 보난바를 보고져호
되시리 금보지 못호고 너의듯는바를듯고져호되시리 금듯
지 못호엿나니라 하다 라한 법판이 벌어시엿호여 갈오디 션
싱남너 엿지호야 영성을 어드리요호니 갈오디 법에 기록한
바 엿터호며 너의 오이논 바 엿터호나 디답호여 갈오디 마음
을 다호며 목숨을 다호며 힘을 다호며 뜻을 다호며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근체 사랑하기를 제 몸 갖치라 하였나 이 다 같오되 네의 말이 올타이를 행한즉 사나니라 하니
터스사로 올은 체하고 예수게 같오되 누가 너의 근체요 하니
예수되 답하여 같오되 혹이 예루살임으로부터 예리코
에 너려오다가 강도를 만나 여그 옷을 앓고 또 혹게 쳐거의 죽
게 하여 버리고 갔난디 마즘한 제사이길 노니 려가다가 보고
마주지니 가고 또 리위 사람이 그 곳에 불러나아가 보고 또
한마주지니 가되 사마랴 사람이 힘하여 그쌍에 불러 보고
어염비네겨 압페가가이 하여 기름 파술 노써 상한 곳에 부워
싸미고 자기 증심으로 써 티우고 인도하여 귀점에 불러 들
아 보고 이튼 날 행할적에 은 두돈을 취하여 귀점 주인을 주워
갈오되 이 사랑을 돌아 볼데 부비가 만약 더면 너 돌아 올
서 여갑 푸리라 하여 스니네 뜻에 난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
년자의 근체냐 하니 같오되 어염비네긴 자니이다 예수 같

오더러 가서이갓치행하라 다라 못사람이행할씨여 예
수한마늘에들어가니말다라난베인이집에서맛고그동
성마리암이 예수의발알에안저도를들으니말다엇투난
일이만아심이뵈바 예수으기나아와갈오더너의동성이
나흔자일을엇투라난디 주뜻하지안나니잇가청컨디명
하여나를돕게하소서 예수갈오더말다말다야네넬네하
며번거한거시뵈치만으나클어나쓸바논한나이라하문마
리암이션한직업을퇴하여곳앗지안오미다라

누가복음데십일장

마증한곳에서빌터니다하미한테자갈오더 주아우리를
빌기를가라쳐요안니그테자가라침갓치하소서니 예
수갈오더너의빌씨여일오더야반이아반이일홈이성하시
며나라이넘하시며우리쓰난바냥식을날마당주시고우리
죄를샤하여주시문우리또한우리게진자를샤하여주미니

이다 우라를 미호에 인도차말으소서 하여라 또 갈오다 너의
 중에 벗이 이서 밤에 놀으리 갈오다 벗아 청견되 썩세기 만
 나를 싸이라 너의 벗이 곧 노부터나 아왓느되 공급할거시 업
 다 흥면터 안에서 담하여 갈오다 피롬 깨알나 문을 닷고 아
 희달파 너가 상에 이사니 능히 놀어나 입을 주지 못하갓다 하
 리라 너의게 일으노니 비록 벗의 연고로 놀어 주지안고 그
 간절함을 인하여 놀어 쓸바를 응하여 주리라 너또 너의게 일
 으노니 달년즉 너의를 주고 차준즉 만고 문을 썩진즉 열어
 주리니 무론 구하난 차난 잇고 차난 만고 문을 썩지는
 차는 열날지니라 너의중에 이비된 차누가 아달이 썩을구하
 는디 돌을 주며 고기를 구하느되 고기되로 비암을 주며 개란
 을 구하느디 견갈을 줄야 너의 비록 악하나 조은물건으로써
 자식 줄줄을 알지니 흥을며 턴부야 성령으로써 구하느자를
 주지안으랴 하다라 에수한 병여라 귀신을 썩추마귀신아

내오고 병어리 말하나 웃사람이 괴괴히 네가 는 뒤 혹은 갈오
다터 귀왕 빌시 불을 빙자 하여 귀신을 쫓는다고 쓰고 쓰하날노
부터 징조를 구하여 시염하난 자이니 예수 그 뜻을 알고 갈
오되 나라이 스사로 논이 우면 반다시 멸하고 집이 스사로 논
이 우면 반다시 기울어지나니 만약 사탄이 스사로 논이 우면
그나라이 엇지 써설야 너의 말이 니가 빌시 불을 빙자 하여 써
귀신을 쫓는다고 하니 너가 만약 빌시 불을 빙자 하여 써 귀신을
쫓추면 너의 아달 비논 뒤를 빙자 하여 쫓나냐 고로 너의 이를
판죄하리라 만약 너가 하나님을 손을 빙자 하여 귀신을 쫓
춘즉 하나님이나 너의게 남하였나니 라 장사가 갑주하
고 원을 직 켜 즉 잇는 거시 다 무사 하되 오직 너 날 덴 자 날 으리
이긴 즉 그의 지 하 난 바 갑주를 앓고 그 직 불을 논 으나 니라 나
로터 부러 함 괴안은 자는 나를 뒤적 하미 요나 로터 부러 거 두
지안은 자 난 헤치미라 하다 라 터 러 온 귀신이 사람을 썩나 사

막에 노닐어 편안을 구하디가 잇지 못하고 갈오디 너나 온비
 짐으로 돌아가라 하고 노닐어 정제이 슈리하물 보고이여
 가또닐굽귀신저보담악한쟈를 다리고 들어가거하니 그사
 람의 후환이전보담터옥심하다라말할씨여한네인이 소린
 쳐갈오디 주를나은이파젧매긴이논복이라하니 예수
 갈오디 하나님의도를듯고직귀는쟈의복만갓지못하다
 하다라 못사람이모이미 예수갈오디이세던난악한지라
 징조를구하니션지요나의징조외여논징조로써보이지안
 가싸요나니니위사람으귀징조됨갓치인자또한이세던게
 징조되리라판죄할씨여람방네왕이닐어이세던사람을죄
 주문터디극으로부터솔노몬의지혜를들으미니하물며솔
 노몬보담큰쟈어귀잇나니라판죄할씨여니니위사람이이
 세던로함기닐어판죄하분터요나의던하무로써회기하미
 니하물며요나보담큰쟈어귀잇논이라또사람이등불을혀

그 옥한테와 말알에 두지 안고 화덕우에 두문들어 오노자로
그 빛출보게 하미라 몸예 등불은 네 눈이니 눈이 말근즉 오온
몸이 넉넉기 발고 눈이 흘이 온즉 몸이 넉넉기 이 돕나니 고로
너의 안악 빛치어 두을 가조심하라 만약 오온 몸이 발가 일호
도어 두오미 업사면 등불 빛치 너의 게 빛치우노는 것갓치 말그
리라 하다 라 말할 씨여 바리시인이 합기 밧 먹으려 청하미
애 수들어가 안즈니 바리시인이 그 손 씻지 안고 먹으늘 보코
괴기히네 기거날 주갈오 디 너의 바리시인은 잔과 반의 밧
킨은 정이 하고 오직 그 안악 인즉 토식과 불의로 씨치와스니
밀연한 자야 그 밧 킨을 지은 자 쏘한 그 안악을 지오미 업나냐
오직 담은 바로 씨구 제한 즉 너의 게 정치 안오미 업사리라 시
화라 너의 바리시인 아 너의 박하와 유향과 모든 초소를 열에
그 한나을 들이 고공도와 하나님 사랑하늘 폐 하나 클어나
이 노 너의 밧당이 흥할 바요 터도가 이 안이 치 못할 거시라 지

화라 너의 바리시인 아버지의 눈 회당에 슈자와 당니에 서인사
를 사랑하니라 직화라 너의 눈나타나지안은 무덤가타니
그우에 행하난 자가 아지 못하니라 하다라 한나 법관이 더
말하여 갈오 너 선님이 말이 또한 우리를 능모한다 하니 갈
오 더 직화라 너의 법관이 너의 난맛기 열여 온짐으로 써 사람
오 피맛치고 자 괴난 한손가락으로도 민지지 안으니 직화라
너의 야 너의 난 선지의 무덤을 써우되 너의 조상은 취겨스니
너의 이맛치간 중하고 조상한바 특합의 하니 조상은 취겨고
너의 눈 그 무덤을 써우나니라 고로 하나님이지혜에 일더
스도 너 선지와 몸테 자를 더오 피보난 면혹취기며 혹군박하
리니 창세 써오 무로 흘은 바 선지의 피가 다 이세 더예 돌아 올
더야 빌의 피로부터 사가라 성면 단식여 망한 피 새지 날을 지
라 너 실노 너의 깨일으노니 그 죄를 반다 시이세 더예 차즈리
라 직화라 너의 법관이 너의 가 더식의 열쇠를 아사 스사로 나

아가지안코나아가려호난쟈를막난다호다라말할씨여션
비파바리시인이심이미이비겨열어삿트로충동호며등디
호여그입에나오논말에화가지를잡으려호다라

누가복음비습이장

씨여사랴수만이모여서로발논디 예수테자게일오디바
리시인의누룩을삼가하라곳거죽션이니라감촌거슬나타
닌지안으며은밀한거슬야지안으며업나니고로어두온디
셔말한거슬발근디셔듯고밀실예셔귀에말한거슬집영에
셔턴호나니라너의벗덜아너의게일오노니몸을취긴후에
난달나할바업손쟈를무셔워말나너의게맛당이무셔워
할바를보일이니곳취긴후에권세이셔너의를지옥에터지
논이를무셔워호라참시다삿말이에돈두푼으로사지안나
냐클어나 하나님압페셔그한나늘또한닛지안이호고
너의말이슬도다수가잇나니고로무셔워말나너의가수다

한참식보담귀하니라 너의게일로니 사람의압페셔나
를받기는쟈난인자가 하나님의턴사압페셔또한받기고
사람의압페셔나를비반하니라 하나님의턴사압페셔
또한비반하니라 말노써인자를치는쟈면되오직성령
을참남하니라 말노써인자를치는쟈면되오직성령
판장과권세인니라의압페셔를적에엇지써발명하며무어
스로써말할고 녀치말나 그셔여성령이 너의말할바로써
가라칠이라 하다라 못사람에 하나 같오디셔싱크너의동
싱을명하여날노더부러산업을논으게하소서 하니 같오디
니가나 다려너의중에셔송사하며 산업논으는쟈를삼으라
다냐고 이여 못사람으기일오디삼가 모든탐심을금하라
사람의싱명이그가산덕덕한데잇지안으니라 하고 이여비
사를베푸러갈오디 한부자의뱃테소출이풍성하미스사로
싱각하여갈오디 니이꼭석질일곳이엿사니엇지하리요 하

고도갈오더이를호리라곡간출혈고큰거슬셔워써모든곡
석과물건을간직호리라호고이어스사로갈오더너물건이
만아열어히쓸거슬싸아스니쉬이며음식호고놀나호되오
직 하나님이갈오더밀연한자야이밤에베의목숨을달년
즉예비한바가귀개로돌아가갓나냐자귀게만싸고 호나
님의압패부자안인자또한이갓타나라호고이어테자게갈
오더너의게일으노니목숨에무어스로써먹으며몸에무
이스도써님을고털터치칼나목숨이낭식보담귀호고몸이
의목보담귀호니라가마귀를싱각호라시무지도안고거두
지도안고방노업고곡간도업서도 하나님이치나너
의가식보담얼마나귀호갓나냐너의능히털터로써길에
한자올터호라지극기적근거슬오일어능치곳호거든엇지
그남은거슬털터호라나리셋출싱각호라엇새게자리며피
롭지도안고방척도안이호여도너의게일으노니솔노몬

의 영화극할새여 그 옷시이 한셋만갓지듯하니라 너의 적게
밧는쟈야 들게 팔은 오날은 잇다가 너일은 화리에 터지나니
하나님의 꾸미 잇갓거 날하물며 너의냐 너의 엇지 먹으며
엇지 마시물구 치말고 쏘이 심치 말나 이난다 외방 사람의 구
호는 바라하나님은 너의 쓸거 슬어나니 오직 하나님이나
라을 구한즉 이 거스스사로 너의 깨터하니라 저근 누리야
무셔워 말나 너의 턴부나라 으르셔 너의 주기를 하니라 잇
난 거슬과 라구제 하고 처지지 안는 주머니 파다 하고 지안는 보
비를 하날에 예비하라 도적이 갓가이 못하고 좀이 먹지안는
곳이라 보비 잇난 바에 마음이 쏘한 잇나니라 너의 셔를 묶고
등불을 혀고 그 주인이 잔체 집으로 돌아오물기 다리난쟈 갓
치호여 날으리 문을 쉼질면 즉시 열나 주인이 불러 이르그 셔를
보고 이종달이 복이 잇다 하니라 너실노 너의 게일으 노니 주
인이 셔를 묶고 터로 뜻게 안지우고 압페셔 섬기리라 혹이 경

에닐으며혹삼경에닐으리이갓타울보면이종덜이복이잇
다하리라만약집쥬인이도적이어니써여브을줄을알면씨
여그집에구멍썩로지못하계하리니이난너의알바라고로
맛당이등디하여뜻안이할써여인자닐으닐인하라고피
들이갈오디이비사를베꿀문우리틀위하미니잇가못사람
을위하미니잇가 쥬갈오디누가밋브고총명한차인이되
여쥬인이맛친바로써그집을차지하여써로냥식을논을쟈
냐쥬인이올써여그이갓치형호물보고이종이복이잇다하
리니니실노디의게일으노니쥬인이그오은산업을맛치리
라만약그종이마음에일으되쥬인이터지올이라하여모든
비복을치며음식호고취한즉기달이지안은날파아지못할
씨여쥬인이닐으리썩어올치안은쟈파갓탄기세두리라종
이쥬인의뜻을알고예비치안으며그뜻을숫지안논쟈논미
를만이바들거시오아지못하고미싼일늘짓논쟈논미를바

드미져클이라 무룬만이 주는 자는 취함이 만코만이 부탁하
는 자난 터달니 미니라 너가 와 불노 써쌍에 터져만 약 불이 이
무부터 스면니 무어 슬하고 저하랴 너가 바를 밥 팀 레를 일우
지 못하여 스니 엇지 절통치안으랴 너의 뜻에 는 너가 와 셔화
평을 세상에 베푸물 삼나냐 너의 게일으 노니 클어치안으
니라 오직 논이 우게 함이니라 이제 후에 한 집에 다 샷 사람이
논이 올디서 히들 파하고 들이서 히파하며 아 밤이 아 딸 파 논
이 우고 아 딸이 아 밤 파하며 어 밤이 쌀 파하고 쌀이 어 밤 파하
며 시어 밤이 메 나 리 파하고 메 나 리 가 시어 밤 파 하 리라 하고
이 여 못 사람 게 일 오 디 구름이 세로부터 날으 물 보고 너의 말
이 비 오 리라 하면 파 연 클어하고 바람이 람으로 불 볼 보고 너
의 말이 터 우리라 한 즉 또 한 클어 하냐 니 거 죽 선을 하는 자야
너의 현지의 괴상은 구별 할 줄 알고 엇지 이 씨 구별 할 줄을 아
지 못하냐 냐 또 엇지 올은 바를 스사로 판단치 못하냐 냐 너의

를 송사 하난 자로 함과 판창으 피나 아 같적에 길에서 마음을
다 하여 노으 물어 터터 형판으 괴 슬면 형판이 너의 를 아역으
괴 부쳐 옥에 가도 클면 하라 너의 게일으 노니 호발도 감지
못하고 결단 켜져 괴나 지 못하리라 하다라

누가복음 데 습 삼 장

그 세 여 사람이 피나 토가 가 리 리 사 람 의 피로 썬 터 제 물 에 석
그 물 고 하니 예수 님 님 하 여 팔 오 디 너 의 뜻 에 이 가 리 리 사
람 이 이 갓 치 고 상 한 거 시 못 가 리 리 사 람 보 담 터 죄 가 잇 나 냐
너 너 의 게 일 으 노 니 안 이 라 너 의 회 기 치 안 으 면 또 한 다 이 갓
치 망 하 리 라 쓰 시 노 암 의 탐 불 어 저 늘 니 워 죽 은 자 열 여 들 사
람 이 너 의 뜻 에 못 예 루 살 임 에 거 한 사 람 보 담 터 죄 를 져 나 냐
너 너 의 게 일 으 노 니 안 이 라 너 의 회 기 치 안 으 면 또 한 다 이 갓
치 망 하 리 라 하 고 이 여 비 사 로 말 하 되 무 화 파 를 포 도 원 에 시
문 자 이 서 와 셔 열 음 을 구 하 다 가 엇 지 못 하 고 동 인 게 갈 오 디

너 삼년을 와서 열음을 구하여 었지 못하여 스니 석을 거시 었
치쌍만 잡을 이요 하니 디답하여 갈오 디 주인 남 금년에 다시
용납하여 너 두로 파고 벌금을 너 여 혹 열음이 밋침 거니 와 글
어치 안 으면 석으 소셔 하니 라 사 밧일에 예수 회당에셔 가
라 치는 디 허 부인이 실음 한 지 습 팔년에 곱 장 여 능히 페 지
못 하니 예수 보고 부인 게 불너 갈오 디 네 위 아 네 병을 노으
라 하고 손을 안 찰 하니 부인이 즉 시 페고 하나 님을 영화 하
다 라 회당 차 지 한 자 예수 사 밧일에 병 곳 치 물 성 나 못 사 략
게 일 너 갈 오 디 맛 당 이 일 하니 거 시 었 하니 그 날에 와서 곱 칠
거 시 지 사 밧일에 안 이 라 하니 주 디 답 하여 관 오 디 거 죽 선
을 허 눈 자 델 아 너 의 사 밧일에 인 위 이 쇼 와 나 구 를 공 이 예 셔
풀어 잇 쓸 어 물 매 기 지 안 으 라 하니 물 떠 어 부 인 은 압 라 함 의 자
손 이 사 탄 이 얼 민 지 습 팔 년 인 디 사 밧 일 이 라 고 맛 당 이 얼 민
인 데 풀 지 안 으 라 예수 이를 밧 하니 모든 디 적 허 던 자 붓 그

러워하니 못사람이 그 형사 광명호물 보고 즐거워하다라
예수갈오디 하나님의 나라이 무엇갓타며 쓰무어스로써
비길이요 거자 종지갓타니 사람이 취하여 동산에 시문즉 잘
인여남우를 일우면 나눈 식가 그 가지에 머부나니라 하고 또
갈오디 엇지써 하나님의 나라음 비기리요 누룩을 한네인
이가져서 말갈우에 석거고로이 쇠입갓다 하다라 예수성
촌을 지니여 가라치고 예루살임을 향하여 행하느니 혹이 갈
오디 주아주완하느냐 적으니 잇가 하니 갈오디 힘늘다 하
여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너의게 일으니 나아가기를 구
하여 엇지 못할자 만으리라 집주인이 불러문을 다드미 너의
밭게서서 문을 쉬다려 갈오디 주아문을 열으소서 한즉 터
디답하여 갈오디 너의가 어더로 오는지 아지 못갓다 하면
너의 갈오디 우리 주의 압페셔 음식하고 주또한 우리 결이에
셔가라 쳧다 한즉 터 갈오디 니 말하노니 너의가 어더로 오난

지아지못하갓다 너의 불의는 차나나를 써나 가라 하리라
 세여 너의 압라 함파 이삭 파야 곱파 모든 선지를 하나님의
 나라에셔 보고 너의 눈 빛게 쏘겨나 즉시 인곡 절치 하리라 동
 세 랑복 으로부터 사람이 날으리 하나님의 나라 뜻게 안즈
 도 후에 잇난 자 가혹 만져 가 되고 만져 잇는 자는 후가 되나니
 라 당시 여 멧바리 식인이 날으리 갈오 디어 기를 써나라 헤롯
 이 너를 쥐기 고져 한다 하니 갈오 디가 셔터 여우 게 고 하라 오
 날 파 너 일 에 너 귀신을 쏘추며 병을 곳치리 니 데 삼 일 에 너 가
 일 올지라 비록 클 어나 오 날 파 너 일 파 물 에 는 너 맛 당 이 항 하
 리 라 선 지 가 에 루 살 임 외 여 능 히 망 한 자 업 나 니 라 에 루 살 임
 예 루 살 임 아 너 선 지 를 쥐 기 며 보 니 물 밧 들 어 온 자 를 돌 노 썬
 치 나 나 너 너 의 아 희 델 모 우 고져 기 를 암 닥 이 식 기 를 나 리
 알 에 모 음 갓 치 한 지 가 멧 써 나 너 의 원 치 안 으 니 보 라 너 의 집
 이 터 이 되 리 라 너 너 의 게 일 으 노 니 주 의 일 함 을 부 탁 하 여

온 재의 찬미 할새 전에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누가 복음 데 습사쟝

마침사 밧일에 예수 바리시인의 집 에 들어가 밥 먹으
시니 디뭇 사람이 엿보는지라 한나고 탕증하는 자 그 압페
이사니 예수 법판 파 바리시인의 게일더 갈오더 사 밧일에 병
을 곳치미 합당하노하니 뭇 사람이 잠잠하거날 예수 그 사
락을 곳쳐 보니 고뭇 사람이 게일더 갈오더 그의 쇼파나 구가 사
밧일에 우물에 싸지면 누가 죽시슬어 너지 안으랴 하니 뭇 사
사람이 써디 답지 못하더라 예수 청하여 온 사람이 슈자 퇴
호를 보고 갈오더 사람이 너의를 청하여 혼연에 나아가 되슈
에 안지 말나 저 푸건던 너 보담 놉쑤자 이서 청호 물 보면 너 파
너를 청한 사람이 나와 네게 일오더 자리를 사람이 주라
후면 붓글어 워 말석으로 나아가 리라 오직 청할새 여가 말석
에 안존즉 너를 청한 자 나와 갈오더 벗은 올라 간드라하면

꽃자석에네가영화이사리라무론놈판체호난쟈난낫게호
 고나존체호난쟈논놈미호나니라호고또청한쟈으끼갈오
 더너점심파혹천역을더할씨여벗파동싱파친척파부쟈근
 체를청치말나접푸건던터너의를청호여갑푸물바드리라
 오직인석을비설호고가난한쟈파병신파안잔방이파쇠경
 을청한즉너목이이살거시터난너의게갑푸미업고올은사
 람다시닐씨여너갑푸물어드리라호니함기안것던사람이
 듯고갈오더 하나님의나라게먹난쟈복이라호니 에수
 갈오더혹이더인을비설호고청한바만은더잔체씨여종을
 보너여청한쟈으끼고호여끌오더오소서뵈물을갓초와나
 이다호니못사람이한글갓치사양호되한나은말이닌밧틀
 사서부득불가보가스니청긴던너의사양을준호소서호고
 또한나은말이닌쇼다삿쌍을사스미가시현호가스니청긴
 던사양을준호소서호고또한나은말이닌쳐를취호여가지

三九五

못하갓다하미종이돌아와주인게고한디주인의노하여그
종을명하여갈오디속기성충큰걸이에와골목에가는한
자와병신파쇠경파안간방이름인노하여오라니중이갈
오디주인남명덕트하여셔도오일이남은자리가잇나이다
하니주인이그종으키갈오디길에와바주역에나가사람을
위겨들여다닉집차리에치우라하나니너의게일으노
니만저청한바사람은한나토닉잔체를맛본자업사리라하
다라열어사람이합기행하니 예수돌아보고갈오디너게
나아와그부모파쳐자파동싱파누이파자기목숨을미워안
는쟈는시리금님의데자되지못하고슴직들을지고나를긔
지안는쟈도또한시리금님의데자되지못하나니라너의누
가답쓸셔우고져할진딘저안저그부비를게치안고족키
써일으랴접푸건딘터만닥고일우지못하면보는쟈다우서
갈오디이사람이짓기를시작하고능히일우지못한다하리

라 어니 국왕이 나가달은 왕을 마 조쳐 싸 음 하면 민져 안저 공
 논 치안코 능히 일만으로 써터오는 자 이 만을 뒤적 하랴 그리
 치안 으면 터 오 일 어머 리 실적에 사 자를 보 니 여 화 친을 구 하
 리 니 이 갓치 너 의 잇 난 바 를 니 별 지 안 는 자 는 시 리 금 너 의 테
 자 도 지 못 하 리 라 디 미 소 금 은 죠 은 거 신 디 그 맛 슬 일 흐 면 엇
 지 써 싸 게 하 라 밧 테 파 걸 금 에 도 합 당 치 안 이 하 여 오 직 밧 게
 버 리 나 니 라 귀 이 사 면 들 으 라 하 다 라

누가복음 데 습 오 장

모든 세 판 파 죄 인 이 나 아 와 듯 는 디 바 리 시 인 파 션 비 시 비 하
 여 괄 오 디 이 사 랑 이 죄 인 을 늘 여 함 께 밥 먹 난 다 하 니 예 수
 비 사 를 베 푸 리 괄 오 디 너 의 어 니 사 랑 이 일 뵈 삭 양 에 셔 그 한
 나 을 힐 으 면 아 직 아 혼 아 읊 을 들 게 두 고 그 힐 은 거 슬 쌀 나 만
 너 메 날 으 지 안 으 라 만 년 즉 즐 거 워 억 기 예 늦 코 들 아 와 그 벗
 파 근 체 를 모 오 고 괄 오 디 너 힐 은 바 양 볼 만 니 여 사 니 나 로 합

괴줄거워하쟈하리라 너의게일으노니 이것치조인어한
나이회기한즉하날에셔즐거워하기를회기쓰지안할아흔
아홉올은사람보담승하리라 어너부인이은돈열십에셔그
한나을힐으면불을혀며집을쓸어자세이차자만너메불으
지안으랴만년즉그벗파근체를모오고같오다너힐엇던은
돈을어터스니나로함기즐거워하쟈하리라 너의게일으
노니조인에한나이회기한즉 하나님의사쟈압페즐거오
미또한글어하리라하고또같오다한사람이두아달이잇난
뒤그마즈막이아밤게같오다아바니산업으로써너의깃부
를주소셔하미이여산업을논아주니멧날이못하여마즈막
아달이다가지고먼데노닐어거기셔방탕하여그산업을허
비하여다모진하고후에그쌍이크게기황하여심이군돈하
뒤이여그곳한사람으기붓트니밧테보니여똥틀치난뒤똥
치먹난씩지로서비를치오고적하되주난사람이엄스니방

야호로귀이 처괄오더너의 아바니 난 싹군 이얼뒤로되 그냥
식이 남은 거시 잇는 뒤나 논어 괴셔 줄여 망하 여가니 닐어
아바니 게도라 가 말하 기를 닐 죄들 하나 남파 아바니 게어
터스니 다시 논 아바니 의 아달이라 물 감당 치 못하 가스니 나
를 싹군 파 갖치네 기 소셔하 갖다 하 고이 여 불러 그 아 밤으 괴
가 난 뒤 상 거 오 일 어 멀 어 서 그 아 밤 이 보 고 어 염 비 베 겨 달 아
가 그 목 을 안 고 입 을 맛 초 니 아 달 이 같 오 더 닐 가 죄 를 하나
남 파 아 바 니 게 어 터 스 니 다 시 논 아 바 니 의 아 달 이 라 물 감 당
치 못 하 갖 다 하 니 아 밤 이 좋 을 명 하 여 갈 오 더 아 름 다 온 옷 옷
슬 취 하 여 입 피 며 가 락 지 를 그 손 가 락 에 세 우 며 발 에 신 을 신
기 고 또 살 진 송 아 지 를 쓸 어 다 잡 고 우 리 먹 으 며 놀 자 하 문 이
아 달 은 죽 었 다 다 시 살 며 입 혀 다 다 시 만 닐 었 다 하 고 이 여 시
작 하 여 즐 거 워 놀 다 라 맛 아 달 이 밧 테 셔 돌 아 오 다 가 집 에 갖
가 와 풍 악 파 춤 추 물 듯 고 하 좋 을 볼 터 그 연 고 를 들 은 뒤 갈 오

뒤셔방님의동성이와셔쥬인님이살진송아지를잡으문그
병업시어드미니이다흐니맛아달이노흐여즐겨드러가지
인으미아밤이나와권하니디답하여갈오디니아바니를섬
기난지열어히여명을어클어치지안아셔도아바니한나양
의식기를주워님의벗으로함괴놀나안타니아아달은게집
질노써아바니산업을다먹엇난더오쟈위하여살진송아지
를잡앗나니잇가흐니아밤이갈오디너난늘나파함괴흐고
님의잇논바가다네게붓터스되네의동성은죽엇다다시살
고일헛다다시만니엿기로우리맛당이늘며즐거워한다하
다라

누가복음데십육장

예수테자게갈오디부쟈의차인을산업허비흐무로써혹이
쥬인으괴고한디이여볼너갈오디너듯논바가네무삼일이
너너보던일을찾니고다시난일을보지말나흐니차인이뜻

에갈오디쥬인이너일보던직분을아스니엇지하리요쌍을
팔너도힘이업고동녕을할나도붓그리을지라너할바를아
니일보다너친후에사람으로나를그집에더접게하리라하
고이여쥬인의빛진쟈를하나식불너다그한나오기갈오디
너너의쥬인게진거시얼미냐갈오디기름일빅말이라하니
갈오디너문셔를가져착즉시안저오습말이라쓰라하고또
말은사람오기갈오디너진거시얼미냐갈오디밀일빅석이
라하니갈오디너문셔를가져다여든섬이라쓰라하되쥬인
이이불의엇차인을칭호문그형호미총명하미라더키이세
상사람이그동뉴에는광명한사람보담더총명하니라너
의게일으노니불의의직물노써벗을사구야업서진후에시
러금영원의집에더접게하리라져근데밧브는쟈난근데도
밧브고져근디불의한쟈는근데도또한불의하니라만약
너의불의의직물에밧브지안으면누가참된거스로써너의

게 부탁 하며 앎 약 너의 사랑의 히에 밋브지안 으면 누가 자괴
히로써 너의 뜻을 줄야 한 종이 능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 문혹
이를 미워 하며 너를 사랑하 고 혹 이에 의탁 하며 너를 경이 배
기 미 너의 능히 하나 님 파 죄 신을 섬기지 못하 나 니라 하
다 라 바 리 시 인 은 죄 물을 죠 와 하 난 고 도 이 말을 듯 고 비 우 스
니 예 수 같 오 디 너 의 는 사 람 의 압 페 셔 스 사 로 올 으 록 칭 하 도
오 직 너 의 마 음 을 하나 님 이 아 나 니 디 리 사 람 이 놓 피 는 바
는 하나 님 으 기 난 고 약 한 거 시 라 율 법 파 선 지 가 요 안 너 으
괴 널 으 리 스 니 일 노 부 터 하나 님 의 나 라 복 을 올 전 하 여 사
람 마 당 힘 써 나 아 가 나 니 텨 지 업 서 지 미 율 법 한 회 폐 함 보 담
터 쉬 오 니 라 무 론 그 체 롭 버 리 고 말 니 취 하 난 자 도 음 는 을 행
하 미 요 버 린 바 를 취 하 난 자 도 또 한 음 는 을 하 미 라 한 부 자
가 이 서 자 듀 파 가 는 죄 를 입 고 날 마 당 변 화 이 열 낙 하 고 또 온
몸 에 헌 드 는 누 곁 나 사 르 라 한 자 를 사 람 이 부 자 의 문 밧 게 두

위상에셔 씨러진 거스로써 빈부르고 저하다니리가와 그헌
디를 할치미 누걸이 죽으니 텨사 부드러 암라 함의 품에 두고
부자 또한 죽어 장사 하미지 옥고상 가온디셔 눈을 들어 멀리
암라 함 파나사로 품에이사 물보고 불너갈오디 너의 조상 암
라 함은 나를어 염비 거나사로 볼보너 여손 싹틀물 에직어
다 너의 혜를 차게 하소서 이 불썸치가 온너셔 고상이 심하니
이다 하니 암라 함이 갈오디 아히야 세상에 이 슬썸 여너는 조
은 거슬 밧앗고 나사로 논 못된 거슬 밧으물 싱과 하라이 제터
난 안위를 잇고 너는 고상을 밧나 니라 다투이 썸안이라 우리
파네사 이에 큰웅 거리로 한 정하 여스니 어괴로네게 건너가
고저 하 여도 능치 못하 고괴로 우리 세오고저 하 여도 또한
능치 못하 갖다 하니 갈오디 클언 즉 조상으 괴구하 노니 나사
로를 보너 여너 아바니 집에 가너 형테 다투사 람이 이사너 터
오게 간중 하 여 또한 이 고상 밧는 곳에 불으기를 면케 하소서

하니 암라함이 갈오디터모쇼와 선지이사니 들으리라 디답
하여 갈오디 그리치안소다만약 죽으무로나아가는쟈이사
면터회키하리다 하니 암라함이 갈오디모쇼와 선지를듯지
안으면 곳죽으무로니는쟈이서도그또한 밋지안으리라 하
다라

누가복음에 습칠장

예수테 자게 갈오디 사람을 것치게 하난일이 능히 업지 안으
되다 못것치게 하논쟈 지화니라 그저근사람에 한나을 것치
게 할진딘차라히 큰망돌을 그목에 달고 바다에 터지미니 스
사로 삼가하라 네 동성이 죄를 범하면 칙망하여 회키한즉 사
하고 만약 하로 일굽번 죄를 네게 엇고 일굽번 네게 도라와 갈
오디니 회키하였다 하면 반다시 사하라 하니 몸테 자 주게
갈오디 우리의 밋으물터 하게 하소서 주 갈오디만약 너의
거자 종자 한알 만큼 밋으미이사면 곳이 생남글명하여 선크리

를 썩여 바다에 시무라 하여도 썩은 들을 지니 너의 중에 어니
사람이 종이 이서 흑뱃갈며 흑곰싱치다가 밧트로도 라오면
명하여 돛 배안즈라 하랴 엇지 배 전약을 예비하고 썩을 썩고
나를 섬기다가 너 음식다 먹은 후에 먹으라 일으지 안고 종이
명을 좇차 hing하면은 총하랴 이 갖치 너의 명한 바를 hing하면스
사로 일오디 무의 한 종이 맛당이 hing할 바를 hing하엿다 하리라
하다 라마 즘 예수 예루살임에 갈 썩여 사마랴와 가리릭를
지니다가 한촌에 들어가니 빅남 풍하난 자 열 사람이 만년여
멀니 서서 소리를 쳐갈오디 션싱남 예수 난우리를 어엿비
네기 소셔하니 예수 보고 갈오디가 셔제사 게보이라 하미
갈 썩여 간정하논지라 그중에 한 사람이 나오물 보고 돌아와
큰소리로 하나님을 영화하고 예수의 발알에 엽터여 샤
립하니 이 사마랴 사람이라 예수 갈오디 열 사람이 정치안
앗나 누그아 읍은 이 디 잇나 나 이 외방 사람이 외_四는 돌아와

하나님을 영화화한 자업사냥하고 이어갈오되 불어 가라네
의밋으며 너를 구완하였다 하다라 바리시인이 하나님의
나라이 어 너 세여 불으 클물은 뒤 예수되 람하여 갈오되
하나님의 나라이 나타내 불으 지 안을 지니 말하지 못할거
시어 괴 잇다 터 괴 잇다 하되 하나님 나라이 너의 속에 잇
나 나라하고 쓰테 자게 일오되 세 불으 리 너의 인자의 한 날을
보고 저하나 시 려 금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의 게고 하되 어
괴 잇다 터 괴 잇다 하되 나가 지 말고 좃지도 말나 하날에 번
귀어 괴셔 번 뜻 터 괴셔 빛남 갖치 인자 불을 날이 쓰한 일어 하
리라 다 못맛당이 된져 심이 고상하고 버리 불이 세상에 보와
스니 노아의 씨 갖치 인자의 날이 쓰한 글어 하리라 사람이 음
식이 취하다가 노아 비예 드는 날에 밋쳐 홍슈 불으 리 다 망하
고 쓰놓에 씨 갖치 사람이 음식하며 땅사하며 곡 석심우며 집
짓다가 다 못 뜻이 소름에 나가 는 날에 하날 노 불과 두 왕이 너

려다 망하여 스니 인자 낮타 날날이 쏘한이 갓타리라고 날에
 집우에 잇난쟈 그피명이 집에이셔도 너려와 취치말며 밧테
 잇난쟈 돌아오지말고 늦의체를싱각하라 그싱명을보존코
 저흐는쟈 난들이여 망하고 오직망한쟈는보존하라 너
 의게일으노니 그바음에 두사람이 자리를함피하니 너
 은다려가고 한나 온기치며 두네인이함피망질하니 너
 은다려가고 한나 온기치라 하니 못사람이 물어갈오되
 주아 어디이슬잇가 갈오되 죽은것잇는곳에 쇼로기모이
 니라 하라

누가복음에 습팔장

예수비사를말하여 사람덜노늘빌고 낙담치안케하여갈오
 디아무고을에한판장이 하나님을두려워안으며 사람을
 혐의하지안디고 고을한파부이셔늘나아와서갈오되 청
 권된너의원을원슈으기퍼주소셔하되오리허치안코 후에

스사로싱각하여갈오더너비록 하나님을두려워안으며
사랑을혐의하지안으나다못이파부나를피롭게하니그
원을펴늘와셔나를분주케하물면하리라하니 주갈오더
이불의의판장에말하난바를드르라 하나님외의셴뵙성이
밤낮빌면참아엇지그원을펴지안으랴너의게일으노니
속기퍼리라다못인자늘으리밋으물세상에보라하다라스
사로올은체하교사람을멸시하난쟈를 예수비사로말하
되두사람이성탄에올나비난되한나은바리시인이요한나
은세관이니바리시인이호을노셔서빌어갈오더 하나님
게감샤하노니나난달은사람파갓치토식하며불의하며음
난을안코또이세관갓지안은거시닐에여두번지게하교
무른잇는바로써열에그한나올드리나이다하니세관이밀
니셔서감이눈늘들어하날을올어르지못하교가슴을쳐갈
오더 하나님죄잇는사랑을어염비베키소서하나니라

너의게일으노니 사람이돌아가터보담을으물칭호나
니무른놈쥬체호는쟈는나자지고나존체호난쟈는놈파지
나니라호다라혹이얼인아희를다리고와 예수으기만지
우고져호는디테자보고척망호니 예수불너오고갈오디
얼위아희를용납호여니게나아오게호고금치말나 하나
님의나라이이갓타니라니실노너의게일으노니얼인아희
갓치 하나님의나라을밧지안난쟈는시러금들이가지못
호나니라호다라한판장이물어갈오디션한션성남너엇지
호야씨영성을어들리요호니 예수갈오디너엇지씨나를
션타칭호나냐션한이난오직한분이니곳 하나님이라게
명은너아난바니음는치말며살인말며도적질말며망녕된
간증말며너의부모를공경호라호니갈오디이거슨너얼여
서부터다직기엿나이다 예수그말을듯고갈오디오일어
한나이이즐어저스니잇는바를다파라가난을헌진즉보비

가하날에이사리니또와셔나를좃추라호니턱듯고심이곧
심호문큰부자의연고다라 예수보고갈오더직물잇는자
하나님의나라에나가미엘여오니다약더바늘귀에나
가미부자 하나님나라에나가는것보담오일어쉽다
호니듯난자갈오더큰연즉누능히구완호리잇가갈오더사
람이능치못호난바를 하나님인즉능호나니라피들이갈
오더우리일절을버리고 주를좃찾나이다호니갈오더너
실노녀의게일으노니사람이 하나님나라을위호여집
파부모파동싱파체자를셔나면금세여열어ampus엇고너세
여영성을엇지못호난자업스니라 예수열두데자를다리
고갈오더우리에루살임에올나간즉선지기록한바인자를
가라친말이일우리니그외방사람으피붓쳐희롱호며능모
호며춤바드며치적으르치며취긴즉삼일후에다시날갓다
호되테자세맛지못호문그말이은밀호여일은바를아지못

히미 다라마 즘 예리가 에갓가 올서여 한 쇠경이 길역에 안저
 동녕 하다가 허다 한 사람 지니 가물듯 고그 연고를 들은 뒤 후
 이 갈오더 나 살 잇 예수 지니 간다 하니 쇠경이 불더 갈오더
 다 빛의 후에 예수 눈 나를 어엽 비네기 소셔 하미 압페 항하
 난 작 최망 하여 잠잠 하라 하 되 터 터 크 배 불더 갈오더 다 빛의
 후에 난 나를 어엽 비네기 소셔 하니 예수 서서 명 하여 다 러
 다 갓가 오미 물어 갈오더 나 다 러 무어 슬 하 고져 하나냐 하니
 갈오더 주아 닐 보 고져 하나이다 예수 갈오더 보라 네의
 빛으 미 버를 낮게 한 다 하니 이여 보 난 지라 예수 를 좃 차
 하나 남을 영화 하니 못 사람이 보 고 쏘 한 하나 남을 찬미 하
 다라

누가복음 데 습 구 장

예수 에 리가 에 들 어 가 지 니 갈 서 여 한 사 람 의 일 흥 은 삭 키 니
 세 관 의 두 목 으 로 부 자 라 예수 를 엿 던 사 람 인 가 보 고 겨 호

되 사람이 만아 보지 못함은 기가 적으리라 예수 일노 말미
암아 지니라 하 여 암 푸로 다라 갱 남 게 올나 보고 저 하
니 예수 날으러 올어러 보고 갈오디 삭키야 속키니라 오
날너가 베집에 머물갓다 하니 이여 급피너 려기거 영접하거
날 못 사람이 흥날너 갈오디 터죄인의 집에 머문다 하 다라 삭
키셔서 주게 갈오디 주아 너 잇는 바 절반으로 써가 논을
건지되 만약 누히를 토식하여 스면 사 곱슬 갓갓나 이다 하니
예수 갈오디 오날 구완이 이 집에 남하 문그또한 압라 함의
자손이 미라 인자가 오문 망한 자를 차 구완 함이라 하 다라
못 사람이 이 말을 듯고 또 예수 예루살임에 갓가 오미 하
나님의 나라이 곳 낮타 날가 뜻하논고로 예수 비사를 더 하
여 갈오디 귀한 사람이 먼디가 나라 봉하물 밧고 돌아 오려 하
여 종 열 사람을 물너 은 열근을 주며 갈오디 당사 호여 나 돌아
오물기 다리라 함이 그 빅성이 미워 호여 사자를 뒤이로 보너

여갈오디이사람으로우리게왕노릇코져안갓싸하다니마
즘귀한사람이봉호물밭고돌아와명호여은준종덜을불너
다가니를얼미나님것논지알고져하니그한나이널으리갈
오디주인님의은한근으로열근을님것나이다하니주인이
갈오디올타션한종이여져근디밋브니열고을권세을차지
하라하고그딤이널으리갈오디주인님의은한근으로닷근
을님것나이다하니주인이갈오디너논다삿고을을차지하
라하고또그딤이널으리갈오디주인님의은한근이어괴잇
나이다니슈건으로써간직하문주인은녕원한사람이라
두지안은디취하며시무지안은디거두불너무셔워하미라
하니주인이갈오디악한종아너네입으로말미암아너를판
죄하라나를녕원한사람이라두지안은디취하며시무지
안은디거두는줄을알진딘니은으로써저자에두워니가온
후에그니새지병하여취케안앗나냐하고이여자우를명하

역갈오디은한근을아사다열근잇는쟈를수라호미갈오디
주인남터열근이잇나아다하니갈오디너의게일으노니
무릇잇난쟈는주고업는쟈난그잇는바세지또한앗나니라
하고그날노왕노릇코져안탄쟈파너의원수를살여다너의
압페셔버이라하나니라 예수말을다하고압푸로히하여
예루살임에올나가감남산에닐으니빛바기와비다냐가갓
가온지라두데자를보너역갈오디너의압촌에가들어갈새
여저근나구민거슬만너리니종너타본사람이업사리라폴
어솔되만약사람이나구풀어무엇할나냐물으면디답하
여갈오디 주의솔거시라하라보너엇던쟈가파연그말갓
치만너여풀새여그주인이물어갈오디풀어무엇할나냐
호미갈오디 주의솔거시라호고이여솔고 예수으리나
아와자귀옷슬나구우에낫코 예수를티우고히할새여못
사람이옷으로써길에펴다라머지안이호여감남산에너릴

곳에서 웃테 자 깃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송양 하 문본바 능
하물위 하미 다라 갈 오 디 주의 일 흠으로 쓰와 셔 왕 하 는 이
는 복인 커 시 하 날 에 셔 화 평 함 파 지 극 기 높 폰 데 영 화 라 하 니
곳 사람 중 에 두 어 바 리 식 인 이 예 수 게 갈 오 디 천 신 님 데 자
를 최 망 하 소 셔 하 니 디 답 하 여 갈 오 디 너 너 의 게 일 으 노 니 만
약 이 사 람 델 이 잠 잠 하 면 돌 델 이 능 히 말 하 리 라 하 다 라 깃 가
오 디 성 을 보 고 울 어 갈 오 디 이 너 의 날 에 평 안 할 일 판 할 줄 을
알 면 다 형 이 거 니 와 이 제 너 의 눈 에 씩 기 니 날 이 날 으 리 너 의
원 슈 가 토 성 을 싸 아 돌 너 사 면 으 로 직 기 고 너 의 파 너 의 자 식
을 매 치 며 들 을 들 우 에 깃 치 지 안 으 문 너 의 가 돌 아 보 는 날 을
아 지 못 하 미 라 하 다 라 이 여 성 년 에 들 어 가 당 사 를 쫓 추 며 갈
오 디 클 에 일 너 스 니 너 집 은 비 는 집 인 데 너 의 가 셔 강 도 의 소
혈 을 삼 나 냐 하 고 날 마 당 성 년 에 셔 갈 아 치 니 제 사 장 파 션 뉘
파 뵈 성 의 높 폰 자 망 하 기 를 도 모 하 되 다 못 할 바 를 엿 지 못 하

문뵈성이 다마음싸들으미카카

누가복음테이습장

호루난 예수성턴에서뵈성을가라쳐복음을전할씨여제
사쟝파션비파쟝노나아와과오디우리게무삼권세로써이
를헝호며너를이권세준쟝가닌지고호라하니 예수디답
호여갈오디너또한너의게한말을물을거시니너게고호라
요안년의밥팀레가하날노말미얏나냐사람으로말미얏나
냐호니그사람덜이사사로이의논호여갈오디만약하날노
말미얏다호면터갈오디엇지밋지안나냐호고만약사람으
로말미얏다호면뵈성이돌노우리를칠이라호문뵈성이요
안년틈밋어션지라호미다라이여디답호되아지못호노라
호니 예수갈오디너또한무삼권세로써이를헝호물너의
게고치안갓싸호고이여비사로뵈성이고갈오디혹이포도
원을심겨뽕인으괴세주고말은쌍에가오리잇다가괴약에

밋처종을보너여봉인으피나아가호여금동산엿실파을뵈
치라호미봉인이쳐거저이돌아가게호미또달은종을보너
니또치고업수이네겨거저이돌아가게호거날세번치종을
보너니맛참니상게호여쫓는지라원주갈오디엇지호리요
너의사랑호는아달을보너면아마공경호리라호다니봉인
이보고서로의논호여갈오디이논땡손이니취겨산업이우
리게돌아오게호자호고이여동산뵈쳐취기니원주엇
지써쳐치호리요와셔이봉인을망호고동산을말은사람으
피뵈치리라호니듯는자갈오디이거시말안이오다호거날
예수마주보고갈오디클에일은바장인이버린바돌노집모
통이첫돌을민진다문엇지냐무룬이돌우에써러진자난상
호고이돌이그몸에써러진자난부술어지나나라호니셔여
제사장파션비그비사를베푸러자피털을가라치느줄을알
고잡고져호되빅성을무셔워이여엇보와탐직을보너여거

죽을은사람인체호고그말에하를잡아방외의권세에붓치
고져호니탐직이들어갈오디션성님우리가션성님의말호
는바파가라치논바가다올은줄을아난거시외모로써사람
을취치안코오직참되무로써 하나님의도를가라치미니
이다우리가세를키살으키받치미합당호니잇가호니
수그귀계줄을알고갈오더은돈한푼으로써너게보이라이
화상과기호가늬냐호니갈오더키살이니이다갈오더글언
즉키살의물건은키살으키호고 하나님의물건은하나님
으키들니라호니탐직이복성의암페셔그하를잡지못호고
또그디답을키키히베겨잠잠호다라멧사두키인의말이다
시니난자업다호여나아와물어갈오디션성님모쇼가우리
를보야스되만약사람이체권은잇고자식업시죽으면동성
이그체를취호여자식을나아주고또형데닐굽사람에맛자
가체를취호여자식업시죽고그들지파그새씨가취호여그

닐굽지거지도한그리하여다자식업시죽고그후에네인이
또한죽어스니다시닐씨여이베인이누의체가될이잇가
문닐굽이다취함이라 예수갈오던이세상사람은시집도
가고장기도가되죽기터세상파죽으무로다시니들어든죽
시집도안이가고장기도안이가며또한죽지도안이하여
사갓고또한 하나님리아달이되나이다시니는사랑이
라다뜻죽은쟈다시닐을의논컨던모쇼형극편에발겨스되
주를칭하여압라함의 하나님이사삭의 하나님야곱의
하나님이라하여스니이 하나님은죽은쟈의 하나님
안이요산쟈의 하나님인거시뜻사람이터로말미암아살
미라하니션비수인이갈오던션성님의말삼이올으니이다
하미후에감이웃난쟈업다라 예수뜻사람게갈오던사람
이엇지키리스토를다빛의후에라하나냐시편에다빛이
사로말하기를 주의주게일되니의우편게안저너

의원슈로써 네 발알에 두기를 기다리라 하여 스나 다 빛이 터
를 주라 칭하여 스즉엇지 그 후에 가 될야 하고 못 뵈 성들을
써 여테 자기 갈오디션 비를 삼가 하라 터 난 긴 옷 남고 딴니 기
와 땅니 에셔 문안 파 회당에 놓썬 자리 파 연석에 슈자 록 조와
하나 클어 나 파 부의 집 지물을 삼겨 거 좃길 게 비니 그 죄 밧으
미 터 중 하리 라 하 다 라

누가 복음 테 이 슈 일 장

예수 눈을 들어 부자 네 물 노 썬 고 에 터 지 놀 보 다 가 쏘 가 논 한
파 부 돈 두 썬 터 지 물 보 고 갈 오 디 닌 실 노 너 의 게 일 으 노 니 이
가 논 한 파 부 의 터 지 난 거 시 못 사 람 보 담 터 만 으 문 못 사 람 은
그 남 은 바 로 썬 터 지 되 이 는 좃 지 못 한 디 잇 논 바 를 다 터 지 미
라 하 다 라 혹 이 성 턴 을 아 름 다 온 돌 파 네 물 노 썬 슈 리 하 물 말
하 니 예 수 갈 오 디 니 의 보 논 이 물 건 이 날 이 날 으 리 한 나 들
을 돌 우 에 깃 치 지 안 꼬 다 물 어 질 이 라 하 니 못 사 람 이 물 어 갈

오대년심님어낙셔여아거시이사며이일이용할셔여무삼
징쇼이스리잇가갈오되너의삼가틀니우지말나만이너의
일홍을무름쓰고와갈오되너가기라하리니셔갓가온지라
너의좃지말고또싸음합파논을듯고경동치말나이일이반
다시만져이사되다못마즈막은사로안이라하고또갈오되
뵈성이닐어뵈성을더덕하며나라이나라을되덕하고쌍이
크게진동하여각곳에홍년하고온역하며또무셔온것파큰
징쇼가하날노부터이사리나이일전에사람이너일홍늘위
하여너의를잡으며군박하며회당파옥에붓치며슬어왕파
방뵈의압페닐으리나이거시너의게간증이되리라고로너
의마음을녕하여엇지써발명할고밀이싱각지말나너의
를말지간파지혜를주워너의모든더덕하난쟈로능히결으
며말되답지못하게할지니부모파형테파친척파벗이너의
를판에붓쳐너의중에혹죽으며또너의일홍을위하여못사

람이 미워하나 큰 어하나 너의 한을 이 멀아 슬도 할치 안을지
너 너의 참으루로써 목숨을 보전하라 너의 예루살임이 군사
으기 들니 오물본즉 그 망하미 갖가 온줄 알나 셔여 유더에 잇
난 자산으로도 망하며 성에 잇는 자나 가고 밧테 잇난 자들 어
오지 말나 이 논형벌 너릴 날이니 클에 기록한바 다 응하게
리라 그 셔여 아 빈자 파젧에 기논 자지 화이사 문쌍에 셔곤지
앙파 노하미 이복성으기 밧츠미니 칼날에 죽으며 모든 나라
으기 사로잡피고 예루살임이 외방 사람으기 밧피워외방사
람의 기약이 차메 밧출지니 일월성신이 징조가 이서쌍에 셔
모든 나라이 곤고하문바 다 파물결의 큰소리로써 상심하미
요 사람마당낙담하문쿠셔워세상에 불을 바일늘기 달이 미
요하날에 형세가 진동호미라 셔여 인자능간파 큰영화로써
구름을 타고 오물보리라 이런일이 척나자 맛당이 몸을 썩며
말이를 들은 너의 속할날이 갖가 오미라 하고 이여비사하되

무화과와 모든 남우를 보고 방야 흐로 임나면 너의 너름갓가
 온 줄을 알지니 또한 이 갓타물 너의 본즉 하나님의 나라 갓
 가 온 줄 알나니 실노 너의 계일으 노니 이 세 뒤가 가지 못하
 여 이 일이다 일우리라 텃지가 업셔 저도 니 말은 업서 지지 안으
 리라 스사로 삼가 하라 너의 마음에 비 부르며 취하며 사난 모
 든 녘네에 놀니 워그 날이 갑작이 너의 계념 할가 하니 함정 갓
 치오 온쌍에 거한 사람으 기념 할지라 다 못셔 여늘 빌어 능히
 장 너의 일을 피하 고 인자의 압페셔 계하라 하 고 예수나 진
 즉 성턴에셔 가라 치고 밤인 즉 감남산에 수이니 못뵈성이 발
 셔 여 성턴에 나아가 듯 다라

누가복음에 이십이 장

누룩금호는 절소 일흠은 남난 절인 뒤 갓가 오니 모든 제사장
 과 선비 예수 쥐기기를 도모하 나 빅성을 무셔 워하 다라 셔
 여 열두 데 자중에 이스카롯인 유다으 게사 탄이 들어 가니 제

사장과 중군으리나 아가 예수를 붓치고져 하미터 달이즐거
워은 주기를 작령 하니 유다 허락하고 웃사람 업난 괴미 풀엿
보와 붓치려 하다라 누룩 금하는 날을 당하니 넘는 절양 잡난
새라 예수 피들과 요안니를 보너 여갈오더 너의 가서 절일
연석을 예비하녀 우리로 먹게 하라 하니 갈오더 어니 곳에 가
예비하리잇가 갈오더 성에 들어간 죽물 동에 든 자를 만닐이
니 좃차 집에 들어가 그 주인께 고하여 갈오더 선생님이 웃기
를 님 데자로 더 부러 번는 절음 식 먹을 직방 이어 더 잇나냐 한
즉 터 비설한 큰 다락으로 써 너의 게 보일이니 거 괴셔 예비하
라 하니 데자 가서 파연 말한 바갓치 만너 여절일 연석을 예비
하니라 예수 열두몸 데자로 함 괴고 써 여뎛게 안저 갈오더
니 심이 하고져 하난 거 손고 상하기 전에 너의 파악 괴이 절일
음식을 먹으미라 너의 게 일으노니 먹지 안코 하나님 의
나라 일에 매 밧다 하고 이 여잔을 취하여 축슈하고 갈오더

이거슬가져너의악기논으라너너의게일으노니다시포도
남우에나난바를마시지안고 하나님의나라넘흐메밋갓
다흐고또씩을취흐여축슈흐고세여주어갈오디이느너의
몸이니너의를위흐여준거시니이를헝흐여써나를괴록흐
라흐고먹은후에잔을취흐여또한갓치흐고갈오디이난너
의피신약의잔이니너의를위흐여흘난거시라클어나나를
팔자의손이나파함괴상에이사니인자논한텡한바갓치실
노가되오직인자를파논그사람은죄화이사리라흐니테자
서로물어누가이를헝할고흐다라또서로크미되물닷토니
예수갈오디외방의군왕이그다사리물슈흐고권세를잡
은쟈논은쥬를칭흐되오직너의느클어치안으니다못너의
중에크미된쟈난어린것갓고웃듬이된쟈논흐인갓탈지니
라누가크미되랴듯게안즌쟈냐사환흐는쟈냐뜻게안즌쟈
가크지안으냐클어나니너의중에사환흐는쟈갓타니라너

의난나를 환란 중에 사나지 안아스니 너나라 으로서 너의를
봉호기를 너의 아 밤이나 를 봉호심 갖치호여 너의 로 너나라
뜻게 음식게 호고 쏘 위예 안저 이 살 일 열 두 지 피 를 판 죄 게 호
리 라 호고 시몬 시몬 아 사 탄 이 너의 를 살 이 기 를 밀 갖치 호고
저 호나 오 직 나 난 너의 를 위 호여 빌 어 너의 밋 으 무 로 호여 금
업 서 지 지 안 게 호여 회 기 한 후 에 너의 동 성 을 굿 건 제 호리 라
호 니 피 들 이 갈 오 더 주 아 너 주 로 터 부 러 옥 파 죽 는 디 날
으 기 를 등 디 호 나 이 다 호 니 갈 오 디 피 들 아 너 베 게 일 으 노 니
오 날 말 울 기 전 에 너 세 번 나 를 아 지 못 한 다 호 리 라 쏘 데 자 게
일 오 디 너 너의 를 전 디 파 자 로 와 신 업 시 보 닐 세 여 이 즈 리 지
미 잇 다 나 갈 오 디 업 터 이 다 갈 오 디 이 제 는 전 디 잇 난 자 가 지
고 자 로 도 쏘 한 글 어 호고 칼 업 손 자 난 옷 슬 파 라 칼 을 사 라 너
너의 게 일 으 노 니 글 에 일 은 바 사 람 이 죄 인 으 로 베 꺾 다 한 말
이 맛 당 이 너 게 일 으 문 나 를 가 리 친 바 뜻 치 이 사 미 라 호 니 데

자갈오던 주아갈들이어괴잇나이다갈오던족하다
라 예수나가전파갓치감남산에가미데자좃다라고곳에
닐으러데자게갈오던비림미혹에들놀면하라하고이여셔
나돌터지난것만곰벌니부러빌어갈오던아바니즐기시면
이잔오도써너비지리가게호소서비록글어나너의뜻으로
안꼬오직아바니의뜻으로일우소서하니사자하날노부터
나타나전장계하다라또심이절통하여빌기들터옥간설이
하니쌈이피새울갓치쌍에너려지다라빌고닐어테자으괴
나아의근심하여자물보고갈오던엇지사냐닐어나빌
어미혹에들놀면하라하다말할셔허다한사람이닐으
고또얼두테자에한나유다가그압페행하여 예수으괴나
아와입을맛초니 예수갈오던유다야브입맛초우로써인
자찬파나냐하니자우장차이술일을보고갈오던 주아우
리칼노써치리잇가하는던그중에한사람이제사장의종을

쳐우편귀를씩그니 예수갈오디일이이갓타니너쳐두라
호고이여그귀들만져끗치고 예수온바제사장파성년중
관파장노으기말호여갈오디너의와셔칼파몽치로써강도
잡음갓치호나냐니날마당너의파함기성년애이술적에난
손을놀니지안아스나이제너의씨니어두온권세라호다
라터덜이 예수를잡아살고제사장의집에닐으니피들이
멀니좃다라못사람이원들에게불을푸이고안젓난디피들이
또한참에호니한테종이그불빛출향호여안저스물보고눈
을부어갈오디이또한 예수를함기한쟈라호니피들이불
으난체하여갈오디네이야니아지못한다하다라이잇고또
한사람이보고갈오디너도그물이라하니피들이갈오디사
람아안이라하다라편시여또한사람이힘써말하여갈오디
이사람이실노함기한거시가지리뒤사람이라하니피들이갈
오디사람아너말하난바를니아지못하노라하는디곳달기

을다라 주피들을돌아보니피들이 주의말이달올기전
 세번나를몰으리라하물싱각하고이여박게나가통곡하다
 라 예수를직키난쟈희롱하여치며그낫출갈이우고셈치
 며물어갈오디너를치는쟈가뉘냐말하라하며또열어삿트
 로써욕하다라아춤에빅성의쟝노와제사장션비다모여
 예수를슬고공회여닐으리갈오디네가키리스토면우리게
 고하라하니갈오디너의게고하면밋지안꼬너의게물으
 면디답지안코다뭇이후에인자가 하나님능간우편에
 안즈리라하니다갈오디클언즉네가 하나님의아달이냐
 갈오디너의말하엿다니로다흐니뭇사람이갈오디엇지달
 은간증을쓰랴그말하는바를우리들엇다하다라

누가복음테이십삼쟝

뭇사람이닐어 예수를슬고피나토의압페닐으리송사하
 여갈오디우리가사람을보니빅성을미혹케하며키살으리

빛치는세를금하고스사로왕이라키리스토라하나이다하
니피나토들어갈오더네가유대인의왕이냐하미갈오더
인이말하엿나이다하니피나토제사장파빅성으키갈오
너이사람이무삼홍이사물모지못하엿다하니못사람이
욕힘써갈오더빅성을소동깨하며가라치물오은유대에
전하여가리므로부터이키볼으러나이다하미피나토한번
두고볼오되이가리리사람이냐하고그헤롯의권세에못
출을알고헤롯으게보너니셔여헤롯이예루살임에잇난지
라 예수를보고심이즐거하문듯고오리보고져하며그아
무징조형하는것보기를바리마다라고로열어말노씨물으
되에수더답하는바업사니모든제사장파션비셔서힘써
송사하니헤롯파그군노들이멸시하며희롱하며션명한
의복으로써남피고노호피나토으게보너니피나토는헤
롯으로
터부리볼너원슈로당일에서로벗한지라피나토모든제사

장파뵈성을모우라하고갈오디너의이사람으로써너게슬
어다그뵈성을미혹케한다하니너곳너의송사하난바로써
너의압페셔사실하여시되그흠을보지못하였다하고헤롯
이또한클어하여도로보낙여시니터죽을데싸물헿치안은
지라고로니이제체치하여노으리라하니못사람이일제이
불너갈오디이사람을버리고바라바를노와우리를주소셔
하니바라바는성중에서는지어사람을취기고옥에갓친자
라피나토 예수를뜻고져하여다시못사람을권하되다못
못사람이불너갈오디슴직들에못질하소서슴직들에못질
하소서하니피나토세번말하여갈오디터부삼악을헿하였
나나니그죽을죄를보지못하였다프로체치하여뜻갓다하
니못사람이큰소리로간절이구하기를슴직들에못질하라
하니터델의소리승하였는지라이여피나토구구하는바갓
치딩안하고난지어살인하고옥에갓친자를노으터이난못

사람 구하는 법자라 예수를 못사람으리 부치문 그 뜻을 좃
츠미라 못사람이 살고 갈서여 쿠리니 사람 시몬이 밧트로부
터 오니 잡아 숨지들을 그 우에 늦고 하여 금지워 예수를 좃
츠니 수다 힝 빙성이 좃고 또 열어 부인이 가삼을 치며 통곡하
거날 예수 도라 보와 갈오디 예루살임에 네 인아 나를 위하
여 우지 말고 오직 자기와 자식을 위하여 울어라 날이 날으리
사람이 말하되 아 비지 못하며 아 낫치 못하며 젖메기 지 못한
부인이 복이라 하고 그 씨여 사람이 산과 같오디 우리 기념어
지라 하며 두덤과 같오디 우리를 덤푸라 하고 퍼런 남우에 오
일어 이갓치 힝 거든 말은 남우를 엿지하라 하다 또 두죄
인을 살고 예수로 더부러 합기 취기려 하다 라 한 곳에 날으
니 일흠은 두 끝 잇난 곳이라 숨지들에 못질 하고 또 두죄인을
한 나은 우편에 하고 한 나은 좌편에 하다 라 예수 갈오디 아
바니 이 사람 들을 사하소서 그 할비를 아지 못하나 이 다 하다

라이여 제비하야 그 옷슬 돈으니 백성은 썩서 보고 판장은 비
 우서 갈오디터 말은 사람을 구완하야스니 만약 하나님
 키리스토 요센바자면 스사로 구완하라 하고 곧 노텔이 소한
 히롱하야 나와 초을 가져다 주며 갈오디터가 만약 유디인
 의왕이면 스사로 구완하라 하고 그 우에 방을 써 갈오디이는
 유디인의왕이라 하엿다라 함피 못질한 죄인에 한나에 욱하
 여 갈오디너 키리스토 안이나 자피 파우리를 구완하라 하네
 오직 그 한나이 칙망하야 갈오디너 함피 형벌을 밧으며 오일
 어 하나님을 두려워안나냐 우리는 맛당한 거사 밧을 바요
 핑한바에 사되 오직 사람이 사람은 핑한바가 올치안미 업다하
 고이여 갈오디 예수나라에 나아 갈색여나를 칭파하소서
 하니 예수갈오디네 실노네게 말하노니 오날너 반다서나
 파함피즐거온쌍에이차리라 하다라 그 색가오시중에 오온
 쌍이 어두워미시말에 날으리 날이 금음하며 성년포장이 절

반이 끼여 지니 예수 큰 소리로 불너 가로되 아바니 너 영혼
을 아바니 손에 부탁하나이 다 말을 다 하고 귀운이 쓴어 지니
리 과충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하여 갈오더이 실노
올은 사람이 라고 하고 모여 구경호던 몃사람이 이 일을 보고 다
가삼을 치며 돌아가고 그 아논자와 밋가리기로 부터 합귀 좃
던 부인은 열니셔서 보다 라 한 사람의 일흠은 요셉이니 쟁승
아라 사람도 미어질고 쓰올은 지라 유딤의 아리마티고 올에
부터 지되 티의도 모호며 지은 바일에 참여치 안코 불너 하
나님의 나라을 기다려던 자라 이 사람이 피나 토오피나 아가
예수의 씨신을 구호여 취호여 너리 위가는 뵈로 쓰싸돌에 편
무덤에 두니 종너장사 한 사람 업슨 곳이 다라 셔는 예비호는
날이니 사밧일에 거의 날은 지라 가리기로 부터 예수 파할
귀온 모든 부인이 뒤를 좃차 그 무덤 파어 드게시신 두물 보고
이 여돌아가 향료와 몰약을 예비호여 시되 사밧일을 당호여

개명을 좇차수이다라

누가복음에이습사장

사뻐일첫날발씨여부인덜이갓촌바향노를가재고무덤에
 날으리들을무덤에서굴녀노으물보고들어가주예수의시
 신을보지못하고위호여주제할씨여두사람이뵈는의복을
 남고갓뒤셔시니부인덜이늘녀여쌍에업다내두사람이갈
 오다엇지산자를죽은자가온다셔찾나냐터어과잇지안
 괴블어나시니터가리락에아살씨여녀의게일은말어인자
 맛당이죄인의손에가슴직틀에못질호엇다가테삼일만에
 다시날갓다물상곽호라호니부인덜이여그말을싱각호
 고무덤으로부터돌아가다일노써열한데자팍모든데자괴
 고호니몸테자괴고호는자난이막다난의마리암파요안니
 외야곱의어맘마리암파함괴한바달은부인이다라고말노
 씨다허탄호를삼아밋지안아호되피들은날어무덤에돌아

가 굽어 보고 오직 가는 놈만 보고 일은 바를 과기히 베풀
도라오니라 그 날에 두테 자한 마을에 가난된 일흠은 임맛시
니 에루살임에서 이슴오리 라서로만 낀바 모든 일을 말하
니 약이 할셔여 예수갓가 이와 함께 행하되 두테 자눈이 아득
하여 아지 못하게 하고 예수 갈오되 너의 행하며서로 무순
일을 말하냐 하미터 의셔서 슈식하다 니 그한 나일 흠은 기
료파 니 답하 여 갈오다 니 에루살임에 나가 베풀여 호을 노
이즈음 앓는 바 일을 아지 못하냐 하니 갈오되 무삼일이뇨
갈오되 나 살 잇 예수 의일이 니 곳 선지 되여 하나 님 파 못
빅성의 압페셔 말파 형사에 능하 미 잇다 하 여 우리 모든 제사
장파 판장이 붓쳐 죄를 명하 여 슴직 틀에 못질 하 여 스되 오직
우리 는 그 이 살 일 속하 기를 바 리 었 다 니 이 제 일 일 운 지 삼 일
인 데 우리 중 에 두 어 부 인 이 우리 를 혼 나 게 하 문 터 델 이 아 촌
에 무덤 에 가 그 시 산 을 보 지 못 하 고 와 셔 고 하 되 턴 사 보 여 그

삼았대 말하듯 본보고 우리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파연 부
 인이 말하마 갓치 오직 예수를 보지 못하미라 하니 예수 곧
 오답 일언한 자야 너의 마음에게 선지의 말한 바를 터지 밋는다
 키리스토가 맛탕이이 갓치고 상하고 그 영화에 나아가지 안
 으라 하고 이 저모쇼로 부터 비롯하여 모든 선지게 밋쳐 무론
 글에 쓴 바 자그말이 친일을 다 자세이 강논하고 갈마을이 갓
 가오미 예수사로 행코져 하노것 갓치 하니 두테자 강청하
 여 할오더 우리로 터부러 함의 뉴하라 하문 써져 물어 날이 기
 오미라 이어 들어 가 함의 뉴하난 데 터부러 듯게 안 존 후에 석
 음까지 축슈하고 배여 주니 두테자의 눈이 쾀 열터아니 예
 수를 보보이지 안논지라 두테자 서로 갈오더 길에서 우리로
 터부러 말하미 성령을 허리 할 썩여 우리 마음이었지 싸지 안
 았나 보하고 죽시브어 예루살임에 돌아 가 열한 데자와 함의
 선지사를 모함 데를 만났다 주파연 닥시브어 시몬으게 나

라나를 말하기를 두대자 쯤 할 줄에 서만 바와 석을 떼어
예수 안인을 고하더라 말할새 여 예수스사로 그가 온더셔
시골오더너의 편안하라 하니 못사름이 경동하프 무서워하
여 명혼을 본가 뜻하니 예수갈오더너의 잇지 황망하표마
음에 의심하나 나너 손과 발을 보라 이너로다 나를 린져 보라
명혼은 세와 고기가 업서도 너의 보기야 나눈 잇다 하며 이를
말하고 슈족으로 썩보이니 데자 줄기 우올위하여 밋자 안코
쏘기 기히네 길세여 예수갈오더너의 이의 먹을 거시 잇나
냐 하니 이어 구은 불고기 한편을 주되 예수가 저그 암께셔
먹고 갈오더너가 차로 너의로 함기 하여 너의 깨말한 바모쇼
의 놀네와 선지의 글과 밋시 편에 기록한바 나를 갈이 친거시
다 맛당이 응혈하리라 하고 이어 그 총명을 열어 모든 성령을
저 밋게 하고 썩갈오더 큰에 이갓치 말하여 스니 기리스토가
이갓치고 상하였다가 데삼일만에 죽으루로 부터 다시 날이

그 일흥을 부탁하여 회개와 죄사하난 거슬만 국에 턴 할 데에
루살임으로 부터 비릇하 가스니 너의 눈이 일에 간증하라 너
의 아밤의 허락으로 써 너의 게 보 너다 못 성에 거 하여 능하
미우으로 부터 너의 주물기 다리라 하고 이 여인도 하여 비다
니에 날으리 손을 들어 축슈하다라 축슈할 셔 여셔 나 들니 워
하 날 노 올라 가니 못 사람이 절하고 심이 즐거워 예 루살임에
도라 가 들 성 턴 에 셔 하나 님을 찬미 하 다 라



테 자 회 적 테 일 장

디 오 비 로 야 너 이 무 전 권 에 쫓 거 니 와 예 수 비 르 소 행 하 바
 와 같 아 친 바 와 성 령 으 기 부 탁 하 여 퇴 한 바 몸 네 자 록 명 한 후
 에 거 두 뽀 님 어 올 나 가 난 날 에 밋 첫 고 또 히 바 든 후 에 만 온 덩
 험 으 로 썬 자 기 살 물 보 이 고 사 습 일 을 나 타 나 하 나 님 의 나
 라 일 을 말 하 난 테 테 의 파 함 쇠 모 여 명 하 되 예 루 살 입 을 세 나
 지 말 고 오 직 아 밤 의 허 한 바 록 기 다 리 라 곳 너 의 너 께 들 온 거
 시 문 요 안 너 난 밤 팀 테 록 을 노 썬 베 풀 어 스 되 오 직 너 의 눈 밤
 팀 테 록 성 령 으 로 바 드 미 머 지 안 으 미 라 하 였 나 니 라 크 로
 몸 테 자 모 여 예 수 으 기 들 어 같 오 더 주 아 이 살 일 으 께 나
 래 을 회 복 하 미 잇 세 니 잇 가 하 니 같 오 더 아 밤 이 자 기 권 세 로
 텅 한 일 기 록 너 의 알 바 아 니 라 다 못 성 령 이 너 의 께 님 할 적
 에 너 의 지 간 이 이 사 리 니 또 나 를 위 하 여 간 증 을 예 루 살 입 과
 오 온 유 더 와 사 마 라 파 썬 더 크 거 지 불 으 리 지 으 라 예 수 달

을 다 고고 태의 블 세여 하 날에 올라 가 느데 구름이 같이 위로
이지 안이 하 다라 예수 올을 세여 못 사람이 눈을 부어 하 날
을 올 어러 보니 두 사람이 흰 옷 슬 넘고 거 뒤 서서 갈 오 뒤 가 리
리 사람이 온 엇지 하 여 하 날을 우리 리 셴 나 노이 예수 너의 께
로 하 날에 올라 간 재가 너의 본 바 이 리 탓 올라 가 물의 지 하 여
후에 너 리 오 리 라 하 다 라 이 여 몸 테 자 감 남 산 으 로 부 처 에 루
살 입에 돌아 가 니 이 산은 예 루 살 입에 서 사 밧 일 길 이 라 날 으
리 거 하 난 다 락 에 올 으 니 피 들 파 요 안 닌 파 야 곱 파 안 드 락 약
비 남 파 도 마 파 파 도 룬 미 와 마 뒤 와 알 세 의 야 달 야 곱 파 예 라
칭 하 난 시 문 파 야 곱 의 아 달 유 다 요 두 어 부 인 파 예수 의 어
맘 마 리 암 이 예수 의 동 싱 으 로 너 부 리 일 심 으 로 세 세 서
비 다 락 이 세 여 테 자 모 인 자 일 빅 이 숨 인 가 량 이 라 피 들 이 가
은 뒤 서 서 갈 오 뒤 동 싱 될 아 들 에 성 령 이 다 빛 의 입 축 병 차 하

여 예수 올 자 문 자 블 인 도 한 유 다 를 밀 이 말 한 거 사 맛 당 이

용협한지라 사람이 우리과하고 동녘되어 이 직분에 한 것
은 자로 이 불의의 갑스로써 밧들었고 몸이 석구려 저비가 터
서 비리홀너나 물에 루살 입에 거는 난뢰성이 다 아난고로 방
언으로 그 밧들일 홀려 되어 아길 다 마하하니 곳 혈면이라 시편
에 블너스되 그 집이 황장이 되어 거하는 사람이 업스리라 하
고 또 갈오디 키리스도의 직분을 달은 사람이 마트리라 하
스너 우리 한기 모인 사람에 주 예수니 왕하난 거슬 다 보코
요 안너의 밧팀테베 줄 무로부처 예수하 할계 올락 가는 날
에 블으리 한 사람 볼 두워 예수다 시 블물 간 중하난 거시 맛
당하 다 하고 이어 두 사람을 거 천하나 그 하나 은 유섬키 나 일
흔 들 말 삽바 하 할 피 또 일 홀 용 유사 도 라 할 고 그 들 치는 맛다
나 못 사람이 빌어 감 오터 주 사람의 마음을 아 노너 청 권 면이
두 사람에 누를 퇴하 여 너의 유다 그 곳에 가고 씨는 목테 자의
직분은 맛치 께 고 소셔 하 고 이어 제비 하 여 맛다 들 씨 여 너이

니이여 열한나 몸네 자르더 부러 동넨하 다라

테 자히적 테 이장

오순절을 당하여 태자 한 곳에 다 모였더니 문득 하날에 소리가
잇고 밍렬한 바람 갓튼 거시 안 존집 안에 차고 가랑기 자해가
불세 치갓튼 거시 각인의 우애 머즈니 뜻 사람이 성령이 갓
득하여 비르소 명령이 준바 말지간 갓치 각국 방언을 말하
다 라 세여 정성스리 운유되 사람이 텨 각국으로 예루살임에
우접하다가 이소문이 한번 놀나니 뜻 사람이 모여 혼잡하
군 테 자덜이 각인의 방언을 물들으니 라 혼나고 기이네 거갈오
키 말하난 자가 리리 사람이 알아야 이엇지 우리 각인의 성
장한바 방언을 물들나노하니 이시여 팔되 파메 뒤 파이란
사람과 미소포타마와 유다 파갑과 도카와 폰트와 야시야와
폴우네가와 팜부랴와 이굽파니 부야의 쿠레닉 모든 지방사
람과 로마로 부터 오는 나가의 후유다 사람 옥피에 든 사람과

또 거레 뒤와 아라비 사람이 다 저의 방언의 말을 하나 남의
 큰 일을 말하듯 물듯 고이여 못 사람의 혼나고 주세 하여서도 말
 오디이엇더 한 뜻이 노하니 희롱하는 자 같오디이시 술에 취
 한 사람이 라하니 피들이 열한 데 자루터 부러 붙어서 크게 소
 리하여 갈오디 유다 사람 파에루 살 입에 거추는 자는 이를 알
 지니 너 말을 들으라 이제 진시 초이니 이 사람이 너의 생각
 치 취치안 앗다 오직 선지 요일의 말한바니 하나 남이 갈오
 디 마즈막 날에 너 장차 너의 령으로써 만민으로써 너리 워너의
 자네로 밀이 말하게 하며 절은 자는 현성을 보고 들근 자는 숨
 을 세게 하고 그 날에 너의 령으로써 너의 비복으로써 너리 워
 하 여 금 밀이 말하게 하고 너하 날에 너의 상한 길을 나타키이
 고 땅에는 징조를 나타키일 지니 피파 불파 연피요히가 변하
 여 검과 달이 피빛치된즉 주의 큰 소문은 날이 볼오리니 무론
 주의 일흔을 볼오는 사는 구완호리라 하였나니라 이 살일

至

사람아 너의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 살일 예수 도써
능한 일과 이상과 징조를 너의 중에 행한 줄을 너의 스사로 암
갓치 실은 예수 들 위 하여 너의 계빙 거한 거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한 텅 한 뜻과 예더 무로써 못 친 거신 데 너의 가 불
의 의 손으로 쓰 못 질 하여 쥐 거스 나 클 어나 하나님이 너를
날 깨 호고 오리 죽은 데 미우지 안 게 노 으니 라 다 빛이 예수
를 골 이 쳐 말 호 되 너 주 들 들 기 암 폐 서 보너 주가 너 의 우
편에 잇는 고도 가 진 농 치 안 코 마 음 에 것 부 고 입 으 로 희 락
하 여 육 신 이 발 인 매 이 스 문 주가 너 의 혼 령 으 로 쓰 너 부 에
갓치 지 알 코 쓰 주 의 성 자 로 호 여 금 석 으 물 보 지 안 게 호 니 라
 주 너 계 심 명 의 도 로 쓰 보 여 너 가 주 의 암 폐 서 심 이 것 부 리
라 호 여 스 니 동 심 털 아 나 를 용 남 호 너 발 기 갈 호 게 호 라 우 리
조 상 다 빛 이 죽 어 쓰 장 사 호 여 지 금 셋 그 무 텀 이 디 경 에 이 스
니 년 지 되 여 하나 님이 링 세 를 말 호 여 너 의 사 손 이 그 위

다 시 불 불 할 었 나 니 라 그 혼 령 으 로 더 부 제 기 치 지 않 이 후
 그 그 육 신 으 로 썩 지 안 게 한 이 예 수 를 하 나 님 이 다 시 그
 개 항 물 우 리 다 간 중 었 노 록 놉 피 하 나 님 의 우 권 손 께 를
 니 워 야 밤 의 허 락 한 생 령 을 바 다 썩 어 버 리 워 스 를 이 녀 의 보
 고 들 은 바 라 닷 빛 이 하 님 에 올 보 지 안 여 오 직 스 사 로 말 고 피
 주 우 리 주 께 말 고 기 령 너 의 우 편 에 갈 저 허 네 의 원 슈 을 썩
 네 의 반 등 상 기 를 기 더 리 약 항 여 스 니 클 어 할 진 된 오 온 이 살
 일 사 람 은 곳 건 이 없 아 하 더 의 못 질 항 여 쥐 긴 제 수 를 하
 나 님 이 썩 임 주 과 기 리 스토 록 삼 앗 나 니 록 항 니 못 사 관 이 듯
 표 마 음 이 지 리 는 것 같 타 여 피 들 파 허 낭 앓 몸 데 자 께 갈 오 더
 동 심 녀 를 가 우 리 었 지 항 리 요 항 니 피 들 기 팔 오 더 너 의 회 기 항
 여 예 수 키 리 스토 의 일 흥 으 로 말 된 레 를 밧 요 항 여 금 죄 를
 면 항 랑 이 생 령 을 바 드 문 허 락 이 녀 의 파 자 손 파 먼 디 사 랑

四

으께 거지 돌아가리니 곳 주우리 하나님이 불으미라
고 또 열어 말노간 중하며 권하여 갈오위비의논사기로
은세상에 구완라 하니 이 말을 들이난 자 다 밥된테를 밟으
니 이 날에 티하여 삼천사찰가량이 다 텃텃시 몸내 자의가
리 치를바드며 샅회하며 색을 췌며 빌다 텃텃사람이 무셔워
하니 몸테 차한이 이상파 징조를 행다 텃텃자다 함과
서 각을 공용하고 붓튼바와 들을과 각위의 소용되
쓰고 날마당 텃텃시 일심으로 성면고 집서 색을
희락하여 성심노트라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성오
디를바드니 주날마당 구완하는 사람들 텃텃라

자한적태삼장

마의 빌새여 피들과 요한너 성면애 올라가 난뒤
와 존방의가 사람으터며 위날마당 성면미 문답
에 들어가 난 사람으터 구제 텃텃다니 피들과 요한너
에 들어

어감나늘보꼬구제하기를구하니피들파요안너늘을부워
 보꼬끌오더우리를모라호미곳씨달아어들거시영남기테
 리니피들이갈오더은파금은너가업스피오직잇는바살너
 靈술테나살일 예수기리스도의일홈으로써너희하러호
 꼬이여우견손늘잡아늘이치니그말파발복이긋긴하여쉬
 여닐어헝헝여두사략파학기텐세들어가헝헝며쉬말벌이
 며 하나님을송양하니못사람이그헝헝난것파 하나님
 을송양호난거늘보꼬다성면피문에안지구제호라던자출
 을알꼬그일을이상이네겨혼나다라터나아피들파요안너
 靈붓잡난뒤못사람이크게이상이네겨살나솔노문의헝냥
 세모이니피들이뵈성으게일오더이살일사람은엇지호여
 일노써그괴이네기며엇지호여눈을부워우리를보며우리
 능간파성심으로써이사람을헝게할갓치네기나냐압다함
 파이삭파야곱의 하나님우리조상의 하나님이그사환

五

예수를 영화케 하미 너의 가뭇치고 피나 트는 듯기 좃듯
되 너의 가그 압페셔 물나스니 이는 너의 가성하고 올은 자는
물으고 살안 하자 주기를 구하시니 너의 가성명의 왕을 주
기민테 하나님이 죽으무로 부터 날게 할우려가 간송이
되여스니 그 일흥을 밋으무로써 그 일흥이 너의 보고야 난사
람을 곳개하나니 실은 티로 밋으미이사람을 너의 못사람
압페셔 온전이나 으물주니라 동성될아 이제 우리 가 너의 아
지 못하무로 행하난 줄을 아노니 너의 관장도 또한 이 같타니
라 오직 일노써 응험한 거시 하나님이 모든 선지의 입을 빙
자하여 밋이 그 키리스토고 상할 줄을 알으엿나니라 요로 너
의 회기하고 쫓아와서 죄를 깨우며 쓰시 권할 말이 주으게
로 본으게 하며 또 주 너의 를 위하여 명한 바 키리스토를 모
너게 하라 곳 예수라 티를 하날이 맛당이 거두워 안을 회복
할새를 기달일이니 곳 하나님이 기백이 리로 성화 선지께

부탁하여 람을 면바라 모쇼가 실노 말하되 주 하나님은
 의 동성 가온히 연지나 갈탄거슬러 의셔워 말하난바를
 다들으리듯지안노자난빅성가온히 문으리라 하에스라사
 후일노뭇터써호로모든연지가얼미나말하되이날을보이
 첫나니라 너의가연지파 하나님이 너의조상을준바 언약
 의자손이되여스니이압라함으게말하되턴하만즉이장차
 네의사식으로복을바드리라하여스니일노씨 하나님이
 그사환을빌기쳐만저의게보이여찬미하든너의각일으
 로하여금약을뵈반게하니라

데사형적테사장

터덜이빅성으게말할씨여제사파중군파잇사두기인어와
 그빅성블아치는것파 예수다시사난도턴하볼심이불간
 하여잡을시씨가이무저우니가뵈고아적을기말기나칼어
 나도르른자는자만이밋어사람의수가오천이다라마즘이문

날에판당과장고와션비가예루살임에모여제사아나와키
아과요인너파아리산뒤와밋제사장의일이잇는뒤로모
여뒤를가온뒤셔우고늘으되너의가무삼승간파누의일흥
으로써이를헹흐나냐흐니피들이 셜령이너너호여호
뒤되성의판장과장노야우리가오날약한사람으게조는일
을호무로써엇지나앗나냐물으니뜻너의파이살일뵈성이
나살잇 예수를습식들에못질흐미 하나님이죽으무로
다시날게호물알지라컷그일흥이이사책을낫게호여너의
압페셔스니뒤기 예수난너의석유가멀시한돌노집호통
이첫들올일운거시라달니난구완호미업스문던호입간에
준바가이일흥외여는우리를맛당이구완할자업스미라호
니못사람이피둘파요안너당돌호를보고그무식한부민안
줄씨맛고괴괴이네겨그 예수를합피한술아되그병너는
사람파합괴셔스물보니결올바업난시라오직공당에너보

노고서로의논하여귀오디이사람으게엇지써칭호리요
 문터분명이징조히한거슬에루살임에거후난빅성이다명
 빅하니오리가능히몰으지못할지라오직못사람으게터해
 치지못하게다시이일흠으로사람으게말하지말나골우리
 라하교이여불디예수의일흠으로써조금도사람으게말
 하여갈가치지말나경히하니피흘파요안닐갈오디너기를
 듯난거시하나빅을듯난테지너며하나님이압페셔
 올우지너이스사루판죄하라우리가보고듯난바를말하지
 안이치못할지라후니터의가척망치못호고골의보던문빅
 성이그후난바로써하나님을역화하미라징조가낮게
 한사략의나이사슴에세다자목테자노이민동우오베나아
 가제사장과장노의말하단바로써고하니동우덜이듯모일
 심으로하나님으베소리를헤쳐살오키수논하후크
 이니하날파싸파바다파밋그잇난바를다지은자라성령

七

으르그사 환오리 조상 다 빛의 입으로 말하되 외방이 분누하
며 모든 백성이 공연이 누모하니 잊지 하리 유세상 모든 왕이
서고 판장이 모여 주파 및 키리스토를 대적하다 하더니 헤
롯과 판토피나 토파 외방 위파 이 살일 퇴척이 파연이 성에 모
여 주길 음발 부성한 사환 여수를 대적하여 주의 손과
뜻으로 밀이 텅 한 일을 행하여 스니 지금 티의 공갈을 감하여
총으로 하여 금당 돌이 하나 님의 도를 투하게 하고 주 손
을 펴고 치며성한 사환 예수의 일홈으로 써 징조와 이 상을
행하리 하소서 하다 라 빈 뒤 메 모 인 꽃이 진동하리 무사 리으
게 성령이 너 너 하여 당 불이 하나 님의 도를 행하니 믿는
곳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제 직물이 라 하나 토사 스 리이 업
코 다 공용 하니 몸 데 자 큰 능 간 으 로 써 주 예수 다 세 일 능
간 중 하며 무사 람으 게 큰 은 총 이 잇 다 라 고 로 그 시 여 부 족 환
자 업 사 문 된 퇴 잇 난 자 다 파 라 그 갑 슬 가 저 다 몸 데 자 의 압 페

두고 각인의 소용되기로 논오다라 세여니 위사람들류에 상징
한자일홈은 요신데 목테 자열이 또 발나 바라물으니 신기즉
권하는 아말이라 터가 밧치이스미과라 금을가져다 목테자
의암페 두라라

테자히적테오장

아나나라하난사람이쳐삼비라로터부리산업을과라감을
털어두미그쳐난아난지라남온거슬가져다 목테자의암페
두니피들이길오뒤아나야아엇지호여사탄이네의나음에
차 성령을쇠겨박감을얼미뉴호영나야이슬세여네히인
이며과라손즉베의권세가안이나마음에이일을너이호엇
지미노네가사람을쇠기미안이요이 하나님이라하니아
나야이말을듯고꽃씩쿨너저괴설하거발듯는자크씨루셔
워하고철문사람수이이늘어주거을쇼령하며여다장사
하니라마즘함시반동암에그쳐가일유바불아지못하고들

어오니 피들이 갈오되 너의 밧갑 시잇분인지 너게 말하라 하
미갈오되 잇분이라 하니 피들이 갈오되 잇지 한 뜻하여 주
의 셜령을 시험하나냐 네의 가장장사 한자의 밧이 문에 크
을가 보다 또 한 너를 머여 너가 리라 하니 그네 위이 그압페씩
굴이 저괴 절호 거날 절호 사람이 들어와 그숙어 스혹보며
여너다 그깃아 비갓뒤장사 하니 온피회와 이일듯 난자다 그
게 무셔워하다 라 몸네자의 손으로 문간에 너징조와 이양으
닐니 힘하니 네털이 일심으로 솔노문의 힘냥에 모이꼬 그남
이 난감이 친근하는 자 업스나 클어나 못빅성이 좁퍼남네 밧
난자더옥 만으니 사람이 또 한 병인을 머이 卍 결이에 나와 상
파탐에셔 자며 피들이 지닐적에 기림지나 후티올 卍 하다라
예루살임닌 음긋사람이 모져 병든 사람 파샤 귀게 억세 한바
된자 록다리꼬와 다 낮다 라 제사 잣파 함피하는 자는 다사 투
기 무리라 투기가 너너 하여 큰이 몸네 자를 잡아 옥에 가 두터

나 주의 사자 바음연은 열고 다니고 나와 일오되 성년
 에 가서 이 성명의 도로 쓰다 빅 성으로 말하라 하던 몸테 사신
 벽에 성년 에 들어가 갈아 치다 라 마즈 제사 징피 함피 하는 자
 와 공회 파이 살일 상 노를 다 볼너 모노도 사 람을 모너 여 옥
 에 가 목테 사 를 살이 오라 하니 군 옥에 가서 보지 못하고 졸
 아 안 일오되 우리가 옥루 닷기를 곳 번이 하피 직기는 자 문밖
 게 셔스 르보 고다 문 열씩에 가 에 사 람은 보지 못 하였나 이
 다 하니 성년 중 군 파 못 제사 작이 이 말을 듯고 주 제 하여 엿지
 할 줄을 아지 못 하더니 한 사 람이 와 말노되 옥에 가 든 사 람이
 성년 에 서 빅 성을 가 라 친다 하 리 성년 중 군 이 군 노로 크 부
 러 가 목테 자 를 쓰 나 클 어 나 강 겁 지 못 하 빅 성이 즐노 칠가
 무셔 위 하 키 다 라 살 어 다 공 회 의 압 페 녀 오 고 제 사 작 이 들 거
 갈 오 되 우리 가 너 의 를 엄 금 히 여 이 일 흥 으 로 가 살 을 살 아 치
 지 말 나 하였는 디 너 의 가 오 는 에 루 살 입 에 서 가 라 치 할 헤 쳐

久

이차락의 피로써 허물을 우리게 들러기를 뜻한다 하니 피들
피몸대자 더 답하여 곁오네 하나님 불을 으니 사탄에게 지
넘어 맛당하니라 주의 남게 달아 주긴 예수를 우리 소양의
하나님이 불케 하여 지귀 우견손으로 들여 왕파 구원을 삼
으론 이 살일 빅성의 꾀회기 외 죄사 하를 주미 라 우리가 이 간
증이 되고 하나님이 터를 뜻난 자를 순바 성령이 삼긴 간
증이 되었다 한니 못 사람이 이 말을 뜻고 절통하여 주기가 될
뜻이니 공회 가 온키 바리사 학일 흠은 가야 널이니 번가 락
치는 자 되어 빅성이 다 돕피는 바라느 여셔서 몸데가로 하여
곰 잠간 나가 라 호미 여 살오 뒤 이 살일 사 락 덜 아 이사 칼을
조심하여 처치하라 적에 유다가 불이나 스사 코 무어 시라 호
리 사 빅예 인이 부터 써니 유다가 쥐기 물 남으 미 주던 자 다 해
여 저스니 일운 거 시 업 후 에 호적 올크 셔 여 또 가 리 리 에 유
다가 불이 빅성을 좃게 하다 니 터사 망하 리 좃던 자 다 해 여 첫

나니라 이제 너의게 말하노니 사람이 늘멀니 하여 용납하
 라 하문 그 뜻과 한바가 사람으로써로나스면 너머지고 하
 나님으로써로나스면 능히 너머치지 못하리니 후 하나님을
 더적할가 접푸다 하니 못사람이 글어이네겨 몸뎌자 툄물너
 들여치며 예수이 일홈으로써 사람으로써 말하지 말나 하고
 노으니 몸뎌자이여 공회를 써나 다즐거워 하문 예수이 일
 홈을 위하 여욕을 바드미 싸다 하기도 라이여 날마당 성년과
 집에서 사랑을 가라쳐 예수를 기리스토라 뎌하 여쉬이 미
 업다라

테자형적테육장

그씨여테자가터하난뒤시리니의유뒤사속이힉리사랑을
 시비하문날마당구제를베푸되그과부난싸지미라별두리
 못테자를볼너다갈오뒤우리가하나님의도뵈셔나표이
 상을차지하는거시답지안운지라동성뎌아너의중에인망

+

잇고 성령과 지혜 넉넉한 자 칠인을 퇴하라 우리가 터로 하여
금이 일을 가 맡고 다 뜻우리 난 빌기 와도 튼하기를 덧덧서 하
리리 하니 못사라 이그 말을 듯고 깃거 하여 여스티반 밋음
과 성령이 넉넉한 자 파비립과 포로 길피니가 놀파 티몬과
팔미나 피안 티옥에 회예 든 자 니코라를 퇴하여 몸테 자의
압페셔 유니 몸테 자 빌고 손으로 인찰 하니 하나님 의도가
잘인고 예루살임에 서테 자가 트만코 제사가 만이 밋으 돌쫓
다라 스티반이 은총과 능간이 넉넉하여 크게 이상과 징조를
민간에 행하니 서여 리보니 바쿠리너 피아리 산더랴 파키
리가 파 밋아 시야 회당사 람들이 혹 보어 스티반으로 터부러
변논 하니 스티반이 지혜 피어고 루말후 미덕들이 능히 더적
지 못하 고 이 여사람을 취거 할후 보우리 이 사람을 들으니 모
쇼파 하나님을 찬남한다 하여 백성과 장노파 선비 들 소
동계 하여와 잡아공당에 끌고 가거 죽간 증을 써오니 같오되

이 사람이 이 성 소파 놀법 흉 큰 이 기틀 마지 안 으 문 부 리 그
말 들 들 으 니 이 나 살 길 예 수가 상 차 이 소 울 험 고 모 소 우 리
게 턴 한 바 법 비 록 곳 치 리 라 하 비 니 공 회 예 안 존 사 랫 이 눈
을 부 워 그 용 모 들 부 미 턴 사 의 용 모 갖 다 라

테 자 혁 적 테 칠 장

제 사 장 이 갈 오 뒤 이 일 이 이 갓 타 냐 하 니 갈 오 뒤 모 든 부 영 은
들 으 소 셔 우 리 조 상 압 라 함 이 미 소 포 타 마 에 잇 고 하 란 게 거
흐 기 전 애 영 화 의 하 나 님 이 나 타 나 갈 오 뒤 고 향 파 친 구
셔 나 너 갈 이 치 는 지 방 으 로 오 라 흐 미 이 여 칼 썩 을 셔 나 후 란
애 거 흐 다 가 일 노 좃 차 아 밤 숙 은 후 에 너 의 거 흐 난 바 싸 으 로
올 무 니 거 기 셔 사 로 발 들 곳 도 업 서 스 나 클 이 나 일 노 썩 으
기 허 흐 여 터 파 후 에 사 식 거 기 주 리 라 흐 되 그 셔 여 오 일 이 자
식 이 업 난 지 라 하 나 님 이 이 러 탁 괄 흐 되 터 의 자 식 이 장 차
달 은 나 라 에 거 흐 여 터 가 썩 종 늘 삼 아 사 빅 년 늘 부 뒤 흐 리 라

다니 하나님이 팔오너그종삼난나다을너가관죄호티니
후에나와여끼셔나를섬기리라호고이여할네의언약으로
써주니이러무로압과함이어삭을나아팔닐만에할비를형
호고이삭이야꿈을낫코야꿈이습이조를나으니조상이요
섬을투기호여이굽에팔앗다니 하나님이도려보와모든
신고에건져너여은총파지혜를이굽왕바로의압페주니바
로가이굽파밋종실의지상을몽호엿다니마즘이굽싸가는
따이다흉년파큰신고호미우리소상이냥식을엇지찾하다
니다못야꿈이이굽에곡석잇다물듯고처음으로우리조상
을보너여갓다기두번치요섬이동싱으게간바피여바로으
게일기이나타나니요섬이보너여아밤야꿈파일가칠습오
인늘마자오니이여야꿈이이굽에가터파우리조상이죽으
리수힘에머여다압과함은으로써하물의자손으게산부
를에장사하나라 하나님이압과함으게허락한척가가

와 백성이 인공에 자리고 터하리라 터니 말은 왕이 벌에 갇쳐
요섭늘 아지 못하고 귀홀노 우리일가을도 모호고 우리 조상
을 부더호여 그 일인 거슬 바려호여 금살지 처호게호니 각 그
색여 모쇼가 나미 준수한지 집이 셔 친지 석달만에 바렸난
더의 굽왕의 딸이 거누워 양육호여 자피아 말을 삼으니 모쇼
가 이 굽사람의 학술 트다 어터 말파 행사가 능간이 잇는 시과
나 이 사슴에 이 살일 자손 그 동싱 보기를 생각호여 가보다가
한 사람의 원역호를 보고 호호여 원역 바든 자를 위호여 원
수를 갑과 이 굽사람을 취기고 동싱 털이 하나 굽이 그 손으
르 써 구완호는 줄을 세말늘 가 뜻호여 터니 다 못터 털이 세닷
지 못호는 지라 이 톨날에 동싱 털싸음호는 새으게 나 타나 사
학호고 저호여 갈으리 사람 아더의는 동싱이 카섯 지서로 원
역 캐호나 노호니 그 원역 캐호는 동싱이 모쇼를 거역호여 일고
터 누가 너를 관자 파 관죄호는 자를 삼아 우리 들 관호라 터냐

네가 나를 취기고 저하기를 어제 굽사람 취기듯 할 나 나
흐니 모쇼이 말을 듯고 말아나미다 암에 거하여 거괴셔 두아
말을 낫코 사슴년을 지는 여사나 산들어 떨기나 무화염이 온
뒤 주의 사자가 보이니 모쇼보고 경을 괴괴이 네겨 압페가
보는데 주의 소리를 너 곱오 너 나가 너의 조상의 하나 남
이 요압라 함이 삭야 곱의 하나 남이라 하니 모쇼 열며 감이
보지 못하느니라 주 곱오 너는 신을 버쳐라 너 선곳이 성더의
너의 이 굽에 잇난 빅성의 피로으 흐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
은고로 건지려하되 이제 너를 이 굽에 보니라 하였느니라 이
모쇼를 터덜이 거역하여 곱오 너 뒤가 너를 판샹파 판죄하는
쟈를 삼았느냐 하느니라 하나 남이 열기가 온 너나 타는 바사
쟈게 부탁하여 모쇼를 보너 여 너의 판장파 구완을 삼으니 이
사람이 빅성을 거날이 고 나가 너는 파징조를 이 굽파 흥히 파
광야에 행한지 사슴년이 카아 곳으로 모쇼나 열살일 사람으께

말한바자라갈오되 하나님이너의동심중에선지나갓튼
자를셔우갓다하다니이광야회중에셔시나산에말하던턴
사파우리조상파함기한자라터가성명의도를바다써우리
를주니우리조상이볼순이거역하여마음은이굽에돌아가
려하여아론에게갈오되우리들위하여신을지어우리압페
학게하라모쇼가우리를거날여이굽에나와엿지하느니라
지못하갓다하니이여송아지를지어모쇼에게제사하여자
귀의손으로지은거슬기거하니 하나님이비반하여그턴
상성숙섬기는거슬너쳐두니선지의클에쓴바갓치이살일
일가야너의광야에사슴년을희싱파세쿨노써너게덜엇나
냐또모록의감실파너의신리반의별을머이니곳너의지은
바모상에절함이라너를바부론밭게옴기리라하다니광
야에셔우리조상의장막간증이이스니곳모쇼에게말한자
명하여일오되너본바모양할지이라함갓타니라이후에

하나님이우리조상의압페뿔흔외방의산업늘어터스너우
리조상이야세아로터부림이장막을니여들어와다빛의세
여닐으미다빛이곳은총을 하나님의압페이더야꿈의
하나님을위하여턴을깃요져하다니소로몬이턴을셔워스
나할어나손으로지은집에지극기높은자가거치안나니선
지일온바갓치하날은너의자리요싸은너의반등이니너의
가무순집을너게셔우며무순싸에나를쉬이게하라이물건
이다너의손으로지은거시안이나하엿는더너의가목이세
고마음파귀가막인자라셔셔시령을거역하니너의조
상이어들어물너의가갓치하나니라어너선지를너의조
상이군특지안이하엿나너의조상이장너올부자할일이
발한사람을취기더나이제올부자할너의가붓쳐취겨스너
너의곳놀법은턴사전함갓치밧고직기지안는자라하너못
사람이이를드고절통하여니를가아니스티반은사령이

너의 한지라 눈을 부워 하늘을 우리리
 하나님 의 영화 파
 예수 하나님 의 우편 에 서 스물 보고 갈 오 되 너 가 하 날 열 니
 물 보 니 인 자 가 하나님 의 우편 에 서 다 하 미 터 델 이 크 게 소
 리 하 며 귀 를 갈 이 우 고 일 심 으 로 말 터 들 어 성 에 너 죽 차 돌 노
 치 고 간 증 호 는 자 는 오 슬 버 서 쇼 년 소 로 의 압 께 늦 터 라 터 델
 이 스티 반 을 치 니 스티 반 이 불 터 갈 오 되 주 예수 난 너 의
 혼 령 을 접 호 소 셔 호 고 불 어 안 저 크 게 불 터 갈 오 되 주 야 이
 죄 로 써 터 의 께 돌 니 지 말 으 소 셔 호 고 말 을 다 호 고 자 니 소 로
 그 죽 으 물 합 의 하 다 라

데자헝적테팔장

그 날 에 예 루 살 입 께 회 가 크 게 군 박 을 만 너 여 몸 데 자 밧 께 는
 다 유 터 파 사 마 라 싸 에 헤 여 지 고 정 성 한 차 람 델 이 스티 반 을
 창 사 호 고 위 호 여 크 게 올 다 라 소 로 께 회 를 휘 께 호 고 각 집 에
 들 어 가 남 네 를 잡 아 가 두 니 라 헤 여 진 자 두 로 노 날 어 도 를 면

하다라비립이사마랴고을에너려가기리스토들사람에게
텐하니못사람이비립의말을듯고징조형하물보고일심으
로그말한바일을뉴심하니만이사신붓튼자으게로신이크
게소리하며나오고바라증하는자파저는자만이나으니유
중이크체즐거워하다라마즘시몬이라는사람이이스니볼
너고을에서무당질하여미양스사로한나어룬인체하니사
마랴빅성이혼나못사람이뉴심하여상하업시다갈오뒤이
사람이 하나님으큰능간이라하고터물뉴심하는고로오
릭무당으로써혼나게하다라비립이 하나님이나라복음
파 예수기리스토의일흔을텐하물밋어남네가밤팀레를
밋으니시몬이또한밋어밤팀레를밋고써셔시비립파함께
하여징조파큰능하물보고혼나다라예루살임에잇는바몸
테자델이사마랴가 하나님의도밭으물듯고이여피들파
요안너를보너여너려가못사람을위하여벌어 성령을밋

기호문하나이게도남하미업고 주이여수의일함이라서
밥팀레를밧을다름이미라이여손으로못사람을안찰하니
다 성령을밧는지라시몬이몸테자의손안찰함무로 성
령이주물보고금으로덜여갈오디이권세로또나를주워너
손으로안찰하느바쟈도 성령을밧게하소서하니피들이
갈오디네은너로함기망할거시라네뜻에난 하나님주
는거슬은으로써사갓다하니너난이일에깃파참에가업스
문 하나님압페셔네마음이바라지못하미라고로네이
악을회기하여 하나님으키빌면거의네마음에뜻을샤하
리라너너를본즉쓴열파볼의에얼미운바와하시몬이디
답하여갈오디접장네가나를위하여 주으게빌어말한바
일이너게밧츠물면게하소서하다라두몸테자 주의노를
간증하여말하교예루살임에도라가는테사마라모든촌게
복음을뵈하다라 주의사자비림으게일너갈오디볼어남

주五

권으로 예루살임에 가사 의 길에 불으라 이 난 광야라 하니
이 여블어가 다 가 한 사람을 안히니 고제라 이 난의 디옵네왕
간다가 오게 권세이서 꼬을 차지 한 자라 예루살임에 불으리
절하고 도라 오느니라 수리를 타고 선지이 시야의 글을 오이니
성령이 비림으게 갈오되 압페가 꺾틀 친하라 하니 비림이
달아가 그 선지이 시야의 글 오이 물듯고 이여 갈오되 너 오이
논바를 아나냐 하니 갈오되 나를 인도 하는 자 업스니 엇지 알
니 요하고 이여 비림을 청하여 수리를 함게 타니 오이 난 글뵈
페일너스 되터가 쏠니 우미양이 사더에 나아가 그 입을 열지
못하며 양의 식기가 털갈기는 자의 압페 소리 업슴갓타니 그
겸양 할씨여 판 죄를 폐하 여스니 그 일족을 누가 비즈라하 문
성명을 세상에 아스미라하 엇거 날 환자 비림으게 일너갈오
되 못노니 선지가 이를 말하 여스니 누를 갈이 치미노자 괴노
사람이 노하 거 날 빌입이 입을 열어 이 글노 비릇하 여 예수

를 면하니 길에 행할새 여동사에 이르러 환자 같오되 물인지
 라 밤침례를 밋으미 무삼막이 미이사리요 하니 이여 명하여
 수리를 밋추고 두사람이 물에 너리니 빌립과 환자라 비림이
 밤침례를 버풀고 물노올나오니 주의신이 빌립을 아사가
 니 환자 보지 못하고 즐겨 길에 나가니 라 빌립이 아소토에
 나져지 너가 난모든 고을에 복음을 전하여 기사라에 이르다
 라

테자형격테구장

소로 주의테자으게 굴움파 쥐김을 펴여 제사장으게 나아
 가다 마스꼬모든 회당에 가느글을 구하여 써이도를 좃난남
 네 들맛넌 즉 열미여 예루살임으로 쓸어가려 하여 행하여다
 마스꼬개갓가오미 문득하날에 빛치두로 소로으게 빛치우
 너소로싸에 격굴어져 소리를 들으니 같오되 소로소도야엇
 지하여 너나 불평박하나 나하거날 같오되 주야누시니잇

가 하니 갈오되 나난너 꺾박호는 예수로 다다 못너 난 붙어 성
에 들어가 맛당이 행할 일노 써네 게 말호라 하니 동행하
단 자그 소리는 듯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잠잠하고 섰는데
소로싸 으르늘어나 눈이 열녀 능히 보지 못호거날 그 손을 당
귀여다 리고 다마스코에 들어가 삼일을 보지 못호고 음식을
다 폐호니 라마 좀다마스꼬에 한테 자이스니 일흠은 아나냐
라 현성에 주갈오되 아나냐야 하니 갈오되 주너 오다
호미 주갈오되 늘어득이라 는 거리에 가라 유다의 집에 탈
수 사람 소도 띠 차자라 터가 빌다가 아나냐라 난 사람이 집에
들어와 손을 안찰호여 보게호물 보엿다 하니 아나냐 되답호
되 주아너 열어 사람의 말을 듯사 오니 이 사람이 예루살임
에 서 성자를 열미 엿다 호옵고 여귀제사장의 권세를 어터
주의 일흠 붙으는 자를 열미려 한다 하니 주갈오되 가라 터
난 너의 퇴한고 르시니 너의 일흠을 외망파 왕자 파이살 일빅

성으께 헤치리니 너 장차 보여 티가 너의 실함으로 써 얼미고
상하리라 하니 아나야 이어가 그집에 들어가 손으로 안찰하
여 갈오더 동심소로야 너오 난길에서 나타나 주 예수
가 나를 보너 너로 보며 명령을 너게 하라 하였다
하니 문득 눈에 비늘갓만 거시 설어져서 보니 불어나 밤 틈에
를 밧고 밧먹고 이어 건장하니 라 소로다 마스꼬에 잇난 데 자
로더 부러스 일을 함이 있다 가 이어 못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던지 니 못사 략이 듯 호나 갈고 너이가
에루살임에서 이학흥부르난 것을 찬탄시 할엇난야 여러오
로더 면을 열며 못세사 장으로 불너 갈라 미라 되소로
히이더을 곳간하 여다 마스꼬와 유더사 략을 호환게 하
예수가 케리스토 되듯 닙힘이니 이치고 유더사 략이 소로취
기기를 도로 하리다 못소로 그호모를 야니 주야 성은애 직
귀셔 취기 터하거 남이 여그태자가 바움에 땅지르셔 소로를

성담에 너 리 보 너 니 라 소 르 에 르 살 임 에 불 으 리 데 차 르 친 호
기 름 시 험 호 니 다 무 셔 워 그 태 자 되 는 밋 지 왕 이 호 거 날 말 나
마 달 의 고 몸 데 자 으 께 가 그 께 가 온 너 셔 주 를 보 니 주 터 부
리 말 호 니 다 파 스 소 에 서 당 놀 이 예 수 의 위 흠 을 말 호 들 과
술 호 호 소 호 태 자 로 터 부 립 에 무 살 임 에 이 서 출 입 호 며 당 들
이 주 의 일 흠 을 말 호 여 서 리 너 과 유 터 사 람 호 호 너 부 터 말
호 며 번 논 호 니 그 사 람 들 이 주 기 기 색 도 모 호 며 등 심 별 이 이
호 암 고 리 사 람 호 다 호 고 장 말 호 로 보 너 니 라 호 셔 호 유 너 과
가 리 터 와 사 라 람 호 든 고 회 호 다 편 호 호 고 두 터 이 주 를 전
피 호 며 성 령 의 위 보 볼 어 터 호 호 미 수 가 터 옥 만 다 라 마 즘
피 들 이 두 르 시 방 에 노 볼 이 누 다 에 귀 호 난 성 자 으 호 또 나 아
가 니 거 귀 이 나 리 호 난 사 람 이 바 람 중 으 호 상 에 누 온 지 관 년
이 라 피 들 이 같 으 터 이 나 야 예 수 기 리 스토 가 너 호 나 트 호
니 불 어 나 배 상 을 치 호 라 호 니 곳 볼 어 나 니 라 누 다 과 사 론 에

기호는 비성이 이통 보고 주으게 돌아 가다 라 음파에 네도
 가이스니 일흔불다 비다라 하니 판한 죽들 가라 이네인이 별
 녀 선사 파구 제왕회 하더니 그세 의병들이 죽으민 죽음을 시
 처 팔악에 명구 하엿다 니 누락 가 음파에 서갓가 온지 이 데 자
 락이 피박이 거피 이 스물뚝고 두사 람을 보낸 여 청도 지녀
 오기 할터 지지 않나 하니 피흔이 불거 학 제가 불으 렷사 할이
 인 도 하 여 말악에 올으 니 못파 부가 피를 의 깃테 서 올며 들가
 타 의로 할귀 할 세 여 자 온 의복을 보아 치니 피 들이 못사 람을
 허 로 고 고 들 어 부 저 밧고 속 임을 향 하 여 작 오 내 다 비 하 야 불
 어 다 라 후 니 티 가 눈 이 열 어 피 들 보 고 보 어 앓 즈 니 피 들 이
 손 으 로 모 든 성 조 외 과 부 이 불 고 다 이 다 사 하 라 나 무 르 씨
 부 이 니 오 온 음 파 가 고 사 람 이 많 이 주 왕 밧 버 리 피 들 이
 음 파 에 서 열 어 받 을 피 장 이 시 문 의 집 에 거 호 다 려

대자히적비습장

마즘리사랴에사람이이서일흙은골니도니아다랴영빅부
장인데그사람이정성노여오은집이한개 하나눈을전퍼
고며넌니빅성을구제후며늘 하나넌개빌다니힐우난미
시가량에형성중에 하나넌의사자집에들어오희발기보
니과오디골니료야후겨날골니료눈을부워보고늘너여골
오디 주야잇지미노후니골오디네의비난것퍼구제후미
올나 하나넌개심각되어스니네사람은옴과에보너여시
무이라난피들을청후어오라히변에피장이시몬의집이며
무나니과후고말후던사작들너가니이여두종을불으고군
사한나정성한작를시켜다이일노고하고이여옴과로노너
니라이튼날형후여성에게갓가오니씨가오시가량이라피들
이집에올나빌터히다가시당후여먹고저후미밥을차릴적
에피들이사몽비몽간에하날이열니몰보니클으슬그압페
들이우난디큰외갓타여네귀를미여싸에들이우니그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곤충과 공중의 비요가 잇고 소리가 서갈오
디 피들아 빌어나 잡아 먹으라 하미 피들이 갈오디 쥬아 글
어치 안소이다 속을 정치 못한 거슬 좋너 먹지 안았나이다 하
니 또 갈오디 하나님이 정이 한 거슬 너 속 뇌를 삼지 말나 하
여 이갓치 세 번을 호고 곳그 글으 슬다 시하 날에 서거 두다 라
피들이 본바 현성이 무삼 뜻인지 반이 주제 하다 니 끝니 요보
닌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차 문밖에서 서 볼나 물으도 시몬 피
들이 라는 자가 이 무여 괴머 부나냐 하니 피들이 현성을 생각
할적에 명령이 갈오디 세 사람이 너를 차즈니 빌어 너려가
함께 가의 심치 마라 너가 보닌 거시로 다 하거 날 피들이 그사
람으게 너려가 갈오디 너의 찾난 사람이 너로 나 너의 와서 잇
지 할나 나냐 하니 갈오디 한 빅부장 끝니 요난 올꼬 하나님
을 접퍼 하난 사람인데 유디 오은 나라이 칭찬 하난 바라 터가
성터사 갈이 치물 밧들어 녕감을 청하여 그집에 빌으러 말을

들으려 하나 이다 피들이 다 자라 여 머물고 명일에 함께 가는
데 옴과 함께 수인이 함께 가 나라 이 틈날에 기사 란에 들어가
니 끌니 료 밀이 친척과 조은 벗을 모으고 와 기말 이 다라 피들
이 들어 가 미 끌니 료 다 자 그 압 폐 업 터 여 절 하니 피들이 붓들
어 갈 오 뒤 날 어 나 라 나 도 쏜 한 사 란 이 라 하 고 피들이 터 부러
알 하며 들어 가 못 사 란 모 인 거 슬 보 고 팔 오 뒤 유 더 인 이 말 은
나 라 사 란 파 친 하 며 나 야 가 는 거 시 맛 당 치 안 이 한 줄 너 의 아
난 바라 오 직 하나 님 이 너 게 보 여 사 란 으 로 써 속 되 여 정 치
안 이 불 삼 지 말 나 하 난 고 로 청 하 미 사 양 치 안 고 왓 노 까 못 노
니 너 의 가 나 를 청 함 은 무 삼 연 고 노 하니 끌니 료 팔 오 뒤 나 홀
전에 집에서 비난 디 사 텀 종 으 로 이 셔 여 날 으 러 문 득 한 사 란
이 의 복 이 션 명 한 데 압 폐 셔 서 팔 오 뒤 끌니 료 야 너 비 는 거 슬
듯 고 너 구 제 호 는 거 슬 하나 님 의 압 폐 싱 각 호 여 스 니 사 란
을 보 너 여 옴 과 에 가 시 몬 피 들 이 라 는 자 히 변 에 피 장 이 시 몬

의집에머무는자를정호라하난고로너곳사람을브너여청
 하엿터니온거시심히션하다이제우리다 하나님압페이
 스니 주차린바를다들으려하노이다하니피들이입을열
 어광오리실노 하나님이사람을편디치안논줄을너씨닷
 난바라각국이 하나님을두려위의를행하는자논밧자할
 지라 하나님이이살일뵈성을준바도를반놀의 주 예
 수키리스토으께부탁하여편간한복음을들턴하여스니이말
 이요안너턴한밤텀레후에가리리로시초하여유디에두로
 헤여진줄을뵈의아나니곳 하나님이 성령과능간으로
 나살일 예수으께발나스미 예수두로노닐어션올행호
 여귀신으께억제한바되자를곳치미 하나님이함께하여
 그유더파예루살입에셔행한바를부리가다간증이되교사
 람이남게달아쥐기미를 하나님이삼일만에닐게호여
 주위사람으께보이되뭇뵈성으께안이하교오직 하나님

이 밀이 되한 간증으 게 하니 곳 우리가 죽으 무로 다시 난 후에
터 부러 함께 음식한 자라 쓰 우리를 명하여 도를 빅 성으 게 된
하며 하나님이 한 텅한 바 싱 시 판 죄하 는 지 를 간 중 하니 곳
이 사람이 라 못 셴 지 가 이 사람 을 위 하여 간 중 하여 밋 난 자 로
하여 금 그 일 흠 을 힌 남 어 죄 사 하 풀 엇 게 하니 라 하 다 니 피 들
이 말 할 셔 여 성 령 이 못 도 듯 는 자 게 남 하니 할 배 를 밋 들 어
밋 는 사 람 피 들 파 함 게 온 자 성 령 이 외 방 사 람 으 게 남 하 물
보 고 혼 나 문 그 모 든 방 언 을 말 하 여 하나 님 을 돕 피 들 들 으
미 라 피 들 이 같 오 디 이 사 람 이 성 령 을 밋 으 미 우 리 파 갓 타
니 놀 노 셔 밥 텀 테 를 베 풀 면 뒤 능 히 막 을 이 요 호 고 이 여 명 하
여 예 수 기 리 스토 의 일 흠 으 로 셔 밥 텀 테 를 베 푸 니 못 사 람
이 피 들 을 청 하 여 수 일 을 거 하 다 라

데 자 히 적 테 습 일 장

몸 테 자 와 밋 유 디 에 잇 는 동 성 텀 이 마 즘 외 망 사 람 이 또 한

하나님의도박으뿔뿔고 피들이 예루살임에 올라가니 할례
를 밧은 자들이 변논호여 갈오되 네가 할례를 밧드지 안은 자
으게 들어가 합피 먹는다호니 피들이 비르소피술호여 갈오
되 너 옴파에셔 비난테 사뭇 비뭇 간에 현성을 보니 한나 너리
논클으 시큰뵈갓튼 거시네 귀로써 미여 하날 노설여져 곳너
압페오기로 눈을 부워 구경호니 안에 네 밧가진 짜 즘싱파뿔
즘싱파 끈충파 공충에 비뿔가 잇고 쏘소리를 놀으니 나 파갈
오되 피들아 날어나 잡아 먹으라호기로 너 갈오되 주아클
어치 안소이다 속뿔터 리운 거시 좋너 너의 입에 들어오지 안
앗나이다호니 한소리가 하날 노뿔터 쏘되 답호되 한나 너이
정히한 거시니 너 난속되다 말나호여 이갓치 세 번을호고 이
여하날에셔 다시다 거두다니 문득 세 사람이 키사랴로뿔터
보되 여너 깨나아와 우리 잇난 집 압페셔스니 성령이 나를
명호여의심치 말고 합피가 라호기로 이 동상여 솟사람이 쏘

나과 학피가셔 그집에 들어가니 터가 우리게 표호되 집에서
잇기 텡사 썸스물보니 팔호되 사람을 음파에 보너 여시몬이
라난 피들을 청호여 오라 터장차너 파베집이다 구완할도도
써말호리라호터이다 나가말호자 성령이 터의게 남호기
를 처음에 우리게 남함갓기로니 곳 주의말을싱각호니요
암너는물노써 밤팀테를베풀어스되 오직너의난 밤팀테를
성령으게 밧으리라호여스니 만약 하나님외방사람
주기를우리 주예수기리스토를밧을써여 줌파갓트면나
는누기로능히 하나님을막으라호니 못사람이이룩듯고
잠잠호고 하나님을영화호여갈오디이 하나님이또한
외방사람을싱명의회지로준다호다 라스티반의신고로부
터사방에헤여진자털이 두르보니 키와굽로와안티옥을지
너여다 못도를유디인으게말호니디 그중게 굽로와쿠리니
사람이안티옥에닐으러시리니 사람이르너부러말하여

주 예수 의 복 음 을 전 하 니 주 가 너 를 도 와 밋 고 주 의 계
 목 아 가 난 자 심 히 만 타 라 예 루 살 임 회 당 에 서 이 말 을 듯 고 바
 라 바 를 안 티 옥 에 부 닌 미 보 으 러 하 나 님 의 은 충 을 부 고 즐
 거 워 웃 사 람 을 권 하 여 마 음 을 굿 건 케 하 여 주 으 게 붓 트 라
 향 문 이 는 선 한 사 람 이 요 성 령 파 밋 으 미 녀 녀 하 미 라 이 여
 열 어 사 람 이 주 으 게 터 하 다 라 터 가 탈 수 에 나 가 소 로 를 자 자
 만 닌 즉 안 티 옥 으 로 말 이 고 가 회 충 에 정 일 년 을 함 께 모 여 열
 어 사 람 을 끌 으 치 니 기 리 스토 의 테 자 라 칭 호 기 를 앞 티 옥 으
 로 붓 터 시 작 하 다 라 그 썩 여 썩 지 멧 사 람 이 예 두 살 임 으 로 부
 터 안 티 옥 게 보 으 니 그 중 에 아 가 보 라 난 사 람 이 서 서 성 령
 으 로 말 하 여 전 하 이 잿 차 흥 전 지 리 라 하 다 니 길 도 썩 여 파 연
 응 험 하 니 라 테 자 열 이 썩 을 썩 외 각 기 그 힘 을 의 찰 하 여 유 디
 에 거 하 난 등 심 을 구 제 할 터 부 닌 려 하 고 일 을 일 우 리 바 라 바
 파 소 로 으 게 부 탁 하 여 그 직 물 을 싸 장 노 으 게 보 부 디 다 라

테자형적테습이장

그즈음에해롯왕이손늘펴회중에멧사람을부디하고요안
너의동성아귀을버이미유디사람이깃거호들보고성피들
을잡으려하니이누룩금호는절기라잡아옥에가듬고군사
습독입으게부터드키여년는절기후에잡아너여빅성의뜻
을좃추려호니고도피들이옥계구류호미고회가위호여
하나님께간절이비다니해롯이잡아너고져호는그바음에
피들을두쇠사슬노미여두군사가온디죄우가드키는쟈는
옥문밭게셔드키는덕문득 주의사쟈가갓티셔니옥붓프
에빛치빛치우는지라피들의갈베들터세와갈오디쌀니브
어나라호니쇠사슬이손에셔버서지는지라뵤사갈오디브
를묵고신을신으라호니피들이이갓치호미뵤사도갈오디
오슬늘고나를좃추라호거날좃차가며뵤사의호는바를찰
된줄아지못호여현성인가의심호다니드키난자첫지와들

직을지너여옥에털문이성을통호엿난뒤닐으니문이절노
 열니너터덜이나가결하에나가미턴사가이여셔나니피들
 이씨말아갈오뒤 주가사자를보너여나를헤르의손파유
 뒤뵙성의호고져호난바에건터너물너실노알앗다호기성
 각호여요안너말고라호는자의어맘마리암의집에오니열
 어사란이거괴모여비는데피들이반견문을드디니베이의
 일흠은로다라와셔더답호려다가피들의소리줄을알고
 줄거워문을밋쳐열지못호고말아들어와피들이큰뱃케섯
 다말호니웃사람이갈오뒤너밋쳤다호니베이힐써말호
 올타하거날웃사람이갈오뒤혼이로다하더니구웃피들이
 문두더기름마지간이하거날문을열어브다호나니피들
 이손을흔들어잠잠호라호고 주어드제옥세셔인도호
 너물고호여갈오뒤이일노야꿈파리등성으비고호라호고
 이여말은테로가니라발씨여못군사가피들이엇지호물신

이 혼동하다니 헤롯이 구식하여 었지 못하되 기던 군사를
못고 명하여 쥐기고 유디를 보내리사 다르가 머무다 마
해롯이 심이 투로와 시튼 사람을 노하나 그사 이왕의 사으로
양식을 었는고로 일심으로 함과와 셔왕의 도승지 브라스도
를 힌 남어 평안을 구하니 헤롯이 텅한 괴약에 왕복을 남고 위
예와 저 친이 말하니 빅성이 불너 갈오더이 신의 소리로 사람
은안이라 하되 헤롯이 영화를 하나 남으게 돌너지 안기
나 주의 사자 이어 터벌거지 게 맥킨바 되어 괴 절하니 다
못 하나 남의 도가 작리져 터하니 바와 소로가 그 일을
필하교요 간니 일음을 말코라는 자파 함기에 루살임으로 못
터돌아가다라

테자형격테습삼상

안티옥회여멧분연지파연성이이스니 곧바라바와니결
이라난수몬파쿠리니사칼누코와분몽왕헤롯의젧동심마

난이니 소로라 주를 섬겨 지혜할새여 성령이 갈오디니
바라바파소로를 볼너 할일을 위호여 너의 분별호라호니 이
여지게 호며 빌며 손으로 안찰호고 가라호니 두사람이 성
령의 부리물 밧들어 실누가 에가거긔서 비타고 굽로에 붙으
리살나미에셔 하나님을 유되 회당에 튼호니 요안너
뎡터라 히도를 지너여 과보에 붙으리 유되 인두당호난거죽
션지발 예수라 난자 뵈만너니 방벽살고 보로싸 함괴하니
이 난총명한 사람이라 바라바와 소로를 볼너 하나님을 도
를듯고 저하니 일니 마라하니 신즉 무당이 라 터의 틀되적
하여 방벽으로도 들멀너 하고저하다니 그셔여 소로의 쏘일
흠은 보로니 성령이 너너 하여 눈을 부워갈오디네가 케홀
파간 악이 차스니 키귀의 자식이 라 악에 원슈야엇지 주의
정도 록 구부리치기를 마지아 나냐 이제 주이 소이네게 이스
니 너반다 시 소경되여 잠간히 볼보지 못하리라 하미 그눈에

즉시아기어두위두로인두할사락을구하니방빅이하는바
를보고 주이도즉경동하여밋다라보르와종이이파불에
셔비타고팜부라의필가에느르서요한니작별하고예루
살임으로돌아가다라터덜이필가를지니여피시야의안티
옥에느으리나방일에히닷에들어가아저놀범파셔지기글
오이기를다하니히당차디하는쟈나름을시겨각오디동심
은만약빅성을권할밭이이스면청권딘말하라하니보로느
어나손을흔들여갈오디이살일사름 하나님을두려워하
는쟈노들으라이빅성이살일의 하나님이우리조상을퇴
하엿터니이굽사에나가네하미 하나님이또도두와든손
으로거날이프그싸을나가광야에사슴넌을용납하다가가
는싸칠속빅성을멸하고그싸을깃부한지사빅오습넌에관
장을주워션지사무일에밋치고후에빅성이왕을구하니
하나님이빈야민의지피사람깃의아달사올를사슴넌을주

위사가 하나님에 폐하고 다 빛을 들어 왕을 삼고 간증한 바
에 갈오되 너가 옛시의 아달 다 빛을 만년 너 마음에 맞고 너
의 뜻을 다 좃는 자라 하고 하나님에 허락을 인찰 하여 이사
람의 자손으로 이 살 일을 위 하여 구완 하는 예수를 서우 갖
다 하더니 구오기 전에 요안니 반져 회기의 밤 틈 테를 이 살 일
뵈 성으 깨 다 떤 하니 라 요안니 장차 일을 맞 추고 오 길 되 너의
나를 뒤라 하니 나 나 안 이 로 다 너 후에 오는 자 그 신 신 기 기
를 너가 감당 치 못 할 것 다 하여 스니 동성 열 압 다 함의 자 손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야 이 구원의 도로 써 우리 게 보 너 옛
난 데 예루살 임에 거 한 자와 그 권 장 이 터 파 못 사 밧 일 에 오
이 는 바 선 지의 칼 을 아 지 못 하고 텅 으로 써 응 험 게 하니 쥐
길 죄 찰 차 자 너 지 못 하고 피 나 토 으 게 구 하여 쥐 겨 손 즉 터 들
괴 롭 한 바 가 다 응 험 한 거 시 남 그 로 못 터 취 하여 장 사 하니 오
직 하나님 이 죽 으 무 도 블 게 한 거 슬 가 리 터 로 부 터 함 괴 예

루살입에가는자열어날로와스니이제복성으게간증되일
지라 하나님이조상으게허락을주워세로노의게턴호노
니이노 예수다시날게호무로써우리자손으게일흔거슬
우리가너의게턴호노니시이장에쓴바노는니의이름이니
오날디를나앗다함갓고쓰날터스노터를죽으무로니시날
게호여후에씩난데날으지업게호여이갓치말호노니성호
고실하다빛의은헤로너를주리라고시예다시일니스되
주 주의성자로호여금씩으늘보지안게호갓다호문다빛
이당되어는 하나님의뜻을좃고죽으미조상으로합피두
위씩으늘보되오직 하나님이늘게한바난씩으늘보지안
으미라동성널은알나이사람으로말미여죄사할노를너의
게턴호노니모든일에모쇼의늘법으로너의능히올게뜻한
바를티로말미여밋는자늘올게호나니라삼가호여션지의
말한바로네몸에응치말게호라멸시호는샤야보며그의이

네기며 멸하라 하니 너의 날에 너 일출함이 일출 비록 너의
게고 하여도 밋지 안으미라 하고 너 일어나 갈서여 구하되 후
사 밋일에 다시 말을 말하라 다라 화당이 헤여 지난 디유
디 사람과 정성술어 이진포한 자 알고 보로파 바라바를 솟츠
니 너 털이 권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누하라 하니 라 후사 밋
일에 고을 퇴성이 거의 모여 하나님의 도를 들으니 유디사
람이 만이 모인 거슬 보고 투기하기를 너 키 하여 보로의 말
을 열너 욕하니 보로파 바라바 당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도
를 부득불 반져 너의 개뎐함이 너의 가버려 스사로 영성에 사
지 못하난 데 하니 우리 가외방 사람으게 향하니 주명하
여 일오디 너를 세워 외방 사람으게 빛출삼아 너로 하여금
구완하되 극에 이르라 하니 외방 사람이 이를 들고 즐거하
여 하나님의 도를 영화하고 영하여 영성을 엿난 자 다 밋으
니 이여 주의 도가 사방에 퍼지되 오직 유디인이 정성하고

귀한부인파고음에 존중한 사람을 취겨 보로파 바라바를군
박호여 디경에 니 싯추니 터덜이 못사람을 디호여 발에 뒤를
을 셴치고 이고론에 오니 터 자들이 심이 줄고 고션 생령이
덕덕하다라

테자회적테습사장

마즘두테자가 이고론에 서함피유더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
갓치말호니 유더 피시리니 사람이 허다 이 밋고 좃지인 눈유
더인이 외방 사람을 취겨 못동심을 부더호니 두 사람이 올의
거피머무리 주로써 당돌이 밋호니 주가 터의 손으로써
징조파 이상한 일을 행케 하여 그 온총의 도를 간중호니 고을
에 못사람이 편을 팔나 유더인 파도 함과 호고 두테자 파도 함
피하니 외방 사람 파 유더인 파 그 편장이 들어 부터 두 사람을
능모호고 돌노 디려호니 두 사람이 알고 루카 오나 의 룯숫라
파 될 비고 을 사면에 도망하여 거피셔 복음을 설했다라 룯숫

관에 한 사람이 안저스니 말이 병신인데 성녀여 안준방이로
종녀형치 못하다니 보로의 말을 듯거날 보로 눈을 부워 그 밋
으미이서 나를 줄을 보꼬 그게 소리하여 갔오디 바로셔라 하
미이여 쉬여 형하니 못사람이 보로의 형은 바를 보꼬 루가 오
냐 방언으로 써 소리를 헤쳐 갔오디 신이 인형으로 우리게 남
하엿다 호고 이어 바라바를 슈사라 칭하고 보로 난 웃음으로
말하는 자라 헛미라 칭하다니 성밖게 슈사의 제사가 향쇼파
화판을 밧들어 문에 남으리 못사람과 합기 제사코져하니 데
자 바라바 파보로 듯고 오슬 썩며 못사람가 온디 쉬여 들어가
불너 갔오디 세 위는 엇지 하여 이를 험하나 노우리도 또 한녀
의 파성정이 갓튼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여 너기를 주노니 이
허망으로부터 하날 파싸파 바다 깎밋잇는 바를 구지은 하
나 남으케로도 라가게 하노카 전세 키에 하 나 남기 못되 성
을 스사로 그 형하는 바를 맛터스나 클어나 하 나 남이 자기

로간승안이치안은거시션을행하여하날노부터비파열음
열세홀주워너의게양식을너너기하여마음에김부게하나
니라하여이를말하여겨우뜻사름의제사를막으니라유더
인이알티옥파이코론으로부터거기와셔뜻사름을취겨들
노보로를터죽엇다헛치고슬어성밧게너가니네자덜이들
너섯거날보로블어나성에들어가이튼삼바라바호함괴덜
비에나가그성에복음을턴하여열어테자를삼고릇숫라싸
이코론파안티옥으로돌아가테자의마음을긋건이하고권
하여셔셔시밋으라하고또말하되우리가하나님의나라
에들어가려할진던맛당이만신고를지닐리라호고사두
름이과회당에장노를퇴하고지게하여빌어그밋는바를
주으게거천하고피사다를지니보팜부랴에닐으려도를별
가에턴하고이여앗다랴에가거괴셔비타고안티옥에닐으
니이난뜻사름이하나님의은총으게거천하여그다한직

분을 위하던 곳이라 볼 으리 회회를 모우고 하나님 기자
기를 위하 여 행하 단 일 노써 고하고 신문을 외방 사람으 게 열
고 두 사람이 테자 파 함 괴을 이 머 무 다 라

테자 형격 네 습 오 샹

옛 사람이 유디 온 북터와 동심을 끌아 치 러 모 쇼 의 네 로 할 테
를 밧지 안 인 즉 구 완 치 못 한 다 하 여 보 로 파 바 라 바 르 터 부 러
크 게 맞 토 라 학 변 하 니 못 사 각 이 텅 하 처 모 로 파 바 라 바 와 멧
사람을 이 를 위 하 여 게 루 살 입 에 몸 테 자 파 장 노 으 세 울 나 가
라 하 요 이 여 회 회 가 전 송 하 니 보 니 기 와 사 마 라 불 지 너 여 외
방 사람이 주 으 세 출 가 가 무 로 서 괴 솔 하 니 못 동 심 이 크 세
즐 거 워 하 다 라 예 루 살 입 에 볼 으 니 회 파 몸 테 자 파 장 노 가
접 하 거 날 하나 님 기 자 괴 크 써 행 하 단 일 을 모 하 니 밋 난 바
리 식 인 두 여 시 블 어 셔 각 오 터 맛 당 이 할 테 를 주 워 명 하 여 모
쇼 의 네 를 득 기 라 하 니 몸 테 자 파 장 노 다 모 여 이 일 을 의 논 하

여학변이분분하니피들이블어갓오뒤동성털은다알나전
에하나님이비의중에서나를퇴하여니입으로외방사름
이복음을듯고밋게하려하고또하나님이마음을아난지
라성령으로써외방사름주기를부리를줍파갓치하여써
간증을삼아피차업시오직밋으무로써그가음을정계하여
스니고로엇지하여하나님을시험하여조상파우리지디
못할익을테자이목게안찰하나냐슈예수의은총으로
말미여우리가구완하미터갓타물잇노라하니못사름이잠
잠하고바라바파보로가하나님이자기로외방사름가온
뒤징쇼와이상을헿함괴술하물듯다라말을다하미야곱이
뒤답하여갓오뒤동성털은나를늘으라시몬이하나님이
처음으로외방사름노라보물괴술하여그중에서빅성을새
여그일흠을위하여써하나님을놈펴싸하니션지의말이
이것파합한지라쓴바갓치이후에너가돌아와다빛의불어

친 짐을 다시 벌이우며 그물어친 거슬다 시셔 우고 그 남의 빚
성파 너의 일홈 밧드느 외방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
리라 하여스니 하나님 이 기벽으로 이 일 들 알게 한 말이라
고로 너 뜻에 외방 사람으로 하나님으 게 돌아 가는 자를 피
롭게 말고 오직 글을 주워 경계 하여 갈오 뒤 우 상의 터러운 것
파 음난 파 딘 육 파 피 짝 멀니 하라 하 군 넷 적으로 부터 모 소를
뎐 하느 자 이 서 사 밧 일 마 당 회 당 에 서 오 이 미 라 찾 몸 테 자 파
장 노 파 오 온 회 회 가 뜻 을 결 단 하여 그 중 에 서 사 람 을 퇴 하 니
바 삼 바 라 칭 하 난 유 다 와 시 라 니 이 동 심 에 웃 들 이 라 보 로 파
바 라 바 함 기 안 티 옥 에 보 니 며 글 노 부 탁 하 되 몸 테 자 파 장 노
파 동 심 털 이 안 티 옥 파 수 라 와 키 리 가 와 외 방 의 모 든 동 심 은
편 안 하 라 하 문 들 으 니 우 리 중 에 멧 사 람 이 나 가 너 의 들 요 동
게 하 며 마 음 을 혹 란 게 하 되 다 못 우 리 난 명 한 바 업 스 미 니 우
리 가 일 심 되 여 뜻 을 결 단 하 고 사 람 을 퇴 하 여 사 람 하 느 바 바

라바파보도로함기너의게보너니이난우리... 주... 예수키
리스토의일흔을위하여명늘블이우난자라유다파시라할
보너여소임으로이일을고하문... 성경과우리가뜻을결단
하여큰짐을너의게안찰치안직오직요긴한거시우상의제
물과피파단유파음논을멀니하라이를위하여직기면다행
이니복유안복하라하니이사람들이보너를넘어안티옥에
닐으러글을주니오이고그위로을즐거하라날유다파시라
논션지라열어말노동싱델을권하여곳건이하고멧날잇다
가동싱델이편안이보너여터보너자으끼로돌아가게하니
다못보로파바라바열어사람으로터부러안티옥에머무러
갈야쳐 주의도를현하다라수일후게보도바라바으게갈
오너우리돌아가 주의도현단모든고늘에동싱델이엇
터한가보자하니바라바가또마고라하논요안니로함기가
기를뜻하되보로가팜브라에서자기를써나일을함기안이

한고로다 리고가고져안이 하니 아여닷투와 피차에니 별호
고바라바논마고를말이 고비타고 굽로로가고 보로논시라
를되하니 동싱델이 주의은총에 거천호여가 수랴와기리
가들지너여 모든 회당을곳건이 하다라

테자형적테습독장

보로또딜비와 룿숫라에느으러한테자를만나 일홈은티
모도니 그어맘은유딤의밋는샤요 그아밤은시리니 사람이
니 룿숫라파이 꼬넬에 동싱델이 칭호난 바라보로함피가고
져호나 그곳잇는유딤인이다 그아밤이시리니 사람이 줄아
난고로호여금할테들밧게호고 모든고을을지너여 예루살
임의몸테자파장노팅한바명으로써테자를주워디기라호
니 모든포회가밋기를곳건이 호여날마당그수가터호다라
터델이 부루가와가라타라 방을지너미 성령이 그도를아
샤에던호기를금호니 무샤를디호여 비두냐로가고져호미

예수의령이허치안이흐난고로무샤를지키여트로아에
너러보로바음에현성을보니마기도냐의한사람이서서구
호여값오되마기도냐를건네여우리를도우라하니보로이
현성을보고험치되 쥬가우리를볼너복음을마기도냐에
턴후미라호고곳가기를변통호여이여트로아에셔비타고
바로사못라키에가명일에냐포리에갓다가거기로비립비
에가니곳마기도냐그모통이첫고늘이니식으로이셜입한데
라수일늘머무다가사밧일에이고을에서성문에나가기골
역에발곳이이슬가호고안저셔모인바부인게말하니한부
인의일홈은루다니두야티로고을사람으로자두탈과난데
하나님께절호는쟈라우리를들으니 쥬가그마음을열어
호여금보로의말을뉴심호여부인파오는집이밤틈레를밧
고우리게구호여값오되만약나로써 쥬탈밧년다호면너
집에들어가머뭇이라호며우리를강권호다라마즘우리가

비논곳에가다가한네종이우리를만니너무당신의붓튼바
되어점으로써그주인을크게니게한지라터가보로파우리
를좃차볼너갈오디이사람이지극기놈뿐하나님의종이
니구완의도로써너의게던한다호고이갓치호기를열어날
호니보로심이불안호여돌아서신으게갈오디너예수기
리스토의일홈으르써네게명호노니이게집을써나라호미
곳나오난지라종의주인이바리던소리힐으물보고보로파
시라를잡아당니의판장으헤슬고가선중군으게붓쳐갈오
디이유디인이우리고을을소동이호고우리로마사람바다
헝호난데합당치안은규레로써던한다호니못사람이늘어
디적호니중군이그오슬벳기고권장으로터열어기룰티고
옥에가두고옥니를명호여곳건이디키라호니옥니명을바
다니옥에가둡고나무칼노그발에치왓는지라야반에보로
파시라가빌어시를 하나님으헤읍푸니갓친쟈가듯는디

문득싸이그배진동하여서옥터를동재하니모든문이열니
고괴게가다버서지니옥니씨여옥문열난거슬보표갓친자
말이다도망하였난가뜻하고갈을씨여스사로죽으려하니
보로크배불더괄오뒤스사로히치말나우리가다잇다하니
불을구식하여뛰어들어와셜며보로파시라의암페업터여
인도하여나가괄오뒤선싱은너맛당이엇지하여구완하려
요하니괄오뒤 주 예수를밋으라더파너의집이구완하
리라하고이여 주의도로터의파그집에잇는사람으께말
하니이바음그씨여두사람을밋자하여그미를씻고곳자괴
파오은집이밤틈테를밋고마자집에들어가뚝글펴고 하
나님을밋어오온집이희락하다라앗춤에중군이장표를보
너여괄오뒤이두사람을노오라하니옥니이말을모로으게
고하고중군이사람을보너여선싱을노오라하니편안이가
소셔하고거날보로괄오뒤우리가쓰하로마사람이라죄를뉘

치안고발기력옥에가뉘고이제사사로이우리를너보너려
 하나냐클어치안으니다못스사로와셔우리들인도하여너
 라하니장포이말을중군으게고한디그로마사략이라물듯
 꼬무셔위이여와셔위로하꼬인도하여너여그꼬을을셔나
 라청하니이여옥에나와류다의집에들어가동싱털을보고
 위로하꼬나가다라

테자형적테습칠장

보로파시라두로암비포리파아포로냐에노닐다가셋사로
 니가에닐으럭유더인회당이이스니보로의연이들어가세
 번사밧일에터으게성경으로의논하니그클에기리스토가
 맛당이고상하여죽으무로다시닐물발기며질성하고또일
 으되너너의게던하느바 예수가기리스토라하니멧사람
 파또정성한시리니사람이허다하꼬귀한부인이적지안이
 하여그도물밧어보로파시라를친하니유더위이투귀하여

시경에 란 뉴 멧놈을 밧자 하여 작당 하여 성을 분요 이 하며 야
손의 집에 돌입 하여 보로 파 시라를 쓸어 다 빅성을 닐 주고 저
하 다니 만 닐 지 못 하고 야 손 파 멧동성을 쓸어 다 판 가 에 보 너
여 괸 오 디 턴 하여 즐 어 이 난 자 가 여 기 닐 으 미 야 손 이 밧자 하
여 스 니 터 의 흥 위 가 키 사 의 명 을 어 글 어 치 고 말 은 왕 예 수
가 잇 다 말 한 다 하니 판 가 와 못 사 람 이 이 를 듯 고 요 동 하 니 판
장 이 야 손 파 그 남 에 보 주 를 밧 고 노 으 니 이 바 음 에 동 성 닐 이
급 피 보 로 파 시라 를 비 뵈 아 로 보 닐 으 리 유 디 인 의 회 당
에 들 어 가 니 그 사 람 닐 은 셋 사 로 니 가 사 람 보 담 어 디 문 도 를
바 다 날 마 당 성 경 을 송 상 하 여 이 말 은 올 운 가 하 미 라 고 로 만
이 밧 고 또 시 리 니 귀 한 부 인 파 남 자 가 또 하 적 지 안 타 라 셋 사
로 니 가 에 유 디 인 이 보 로 가 하나 님 의 도 를 또 비 뵈 아 에 턴
하 물 알 고 그 고 을 에 닐 으 리 빅 성 을 진 동 하 여 소 동 게 하 니 동
성 닐 이 곳 보 로 를 보 니 여 바 다 으 로 가 게 하 고 오 직 시라 파 터

모도가거과머무다라보로를인도하느자말이교아텐에닐
으리보로으게시라파티모도를쌀니오라느명을바다돌아
오고보로논아텐에서터틀기다리터니그고을에찬거시우
샹이물보고마음이조급하여이여회당에서유디인파정성
한사람으로의논하고날마당당니에서만난사람으게또
한이갓치하다니그씩여이피쿠랴파쓰토이가에멧션비서
로마주쳐혹갈오뒤이지결이난자난무삼말을하고저하나
노하며혹갈오뒤나보기여는말은귀신을텐한다하문보도
가 예스파다시브물텐하미라못사람이터를낭귀여알도
과고에디리꼬가갈오뒤티의말하느바시도를능히알냐하
문티의가말은거술너귀여들니미니우리가그뜻을알고저
한다하니아텐사람파타판사람이말은닐은하지안꼬오직
시일을혹말하며혹듯다라보로알료파고가온뒤셔서갈오
뒤아텐사람아너너의를보니모든일에귀신송상하기를심

이 호난지라 너나 가지 너다 가 너의 절호는 바를 도고 한나 단
을 만 너니 우에 아 지 못 할 신을 씻 난 지라 고로 너의 아 지 못 호
고 송 송 호는 바를 너 너의 게 고 호리 라 더 지 세 상 파 밋 잇는 바
를 지 은 하나 남은 턴 더의 주니 손으로 지 은 턴 에 거 호 지
안 이 호며 또 사 람의 손 에 섬 기 난 바 가 회 여 한 출 건 도 부 족 지
안 이 호 고 이 성 명 호 흡 파 만 불 노 셔 성 령 들 주 고 더 가 만 국 을
한 나 으 로 지 으 미 사 으 로 셔 거 호 며 차 려 파 거 한 더 게 로 셔 한
형 호 여 스 문 터 의 로 주 를 열 음 쓸 어 만 너 면 구 호 미 나 다 못
주 가 우 리 각 인 으 게 머 지 안 이 한 거 시 우 리 가 더 의 로 살 며
동 호 며 보 존 호 너 너 의 시 짓 는 자 혹 말 함 빠 갓 치 우 리 가 그 적
자 된 다 호 니 하나 남 의 적 자 되 면 하나 남 의 형 상 불 금 파
은 파 돌 노 셔 사 람 의 슈 단 파 공 포 가 식 긴 것 갓 치 뜻 호 미 맛 당
치 안 이 하 니 표 로 아 지 못 할 셔 여 난 하나 남 이 지 너 보 너 거
니 와 이 제 는 좃 난 곳 마 당 사 람 을 명 하 여 회 회 하 라 하 문 한

날출령하여한령한바사람으로써던하을의로판죄하려다
시닐무로써못사람으게딩험하미라하니못사람이죽은자
다시닐다벌듯고웃논자잇거날혹이갈오뒤우리다시네그
말을듯자하니이여보로가못사람을써나되터를친하저도
를밋논자가멧사람이요그중에알료과고사람도누쇼과부
인다마리파또멧사람이합지하다라

테차회적테습팔장

그후에보로아턴을써나끄린도에닐으리유뒤인아쿠라를
만히니본투에난지라킬노도가유뒤인을명하여로마를나
가라하니이런고로아쿠라과쳐권피릿길나가이타냐로붓
터갓와스니보로가터더문구슈단이갓튼프로함괴뉴하며
직업하니그슈단은쟁막지으미라사밧일마당보로가회당
에셔의논하여유뒤파시리니사람을권하더니마즘시라파
터모도가마기도나로붓터오거날보로도가강잉하여

수키리스토의물유디인으께간증하니유디인이디적하여
욕하거날보로오슬쉴치며갈오디너의피가너의멀이에이
스되나는간정한지라일노써너가외방사람으께가리라하
고이여씨나한사람의집에가니일흠은티투유스투니이
하나님으께절하는자라그집이회당에갓갑다라회당차더
하는자킨이스포가오은집이 주를밋으니키린도사람이
만이도를듯고밋어밤틈테를밧다라바음에 유가현성으
로보로배갈오디무셔위말고말하여잠잠코잇지말나너
를합괴하쳐사롬이여를부너하러히하미업스문너의만은
빅성이이고복에이스미라하니보로거하여일년반을 하
나님의도로터의게갈아치터라갈노아리아방빅되엇난데
유디인이일심으로보로를쳐공당에슬고와갈오디이사람
이사람을견하여법출등지고 하나님배절하란다하니보
로밋치입을열지못하여갈노유디인으께갈오디유디인아

실노올치 못한간 악의 일을 하니 너가 니되 너의 들들을 거
시되 노직언어 명씩파 너의 놀법을 의논할진던 너의 스사로
하라 나논이 일을 간섭할 뜻이 업다 하고 이역공당에 너쫓추
니 못사람이 회당차디 하난자 솟디니 들잡아 공당압페셔치
되갈 노쫓쫓하지안타라 보로 열어 날을 거호터니 모든 동성
을 작별호고 비타고 소라로 가난디 피릿길나파 아쿠라가 함
괴호니 보로 킨키랴에 서털을 삭그문 밍세 잇는 연고라 이비
소에 날으리 두사람을 머물으고 스사로 회당에 들어가 유디
인으로 의논호니 못사람이 오리거호기를 청호되 허락지안
이호고 오직 작별호여 갈오디만약 하나님이 즐겨호시면
너의게 돌아오리라 호고 이비소를 써나기사랴에 너려올나
가 피회에 운안하고 후에 안티옥으로 가오리 잇다가 썰나차
레로 가라타파 부류가 더방을 지너여 모든네 자를 곳건이 하
다라 유디인의 일홈은 아골노니 아리산 될랴에 나셔말지간

으로 성경에 능한지라 이 비소에 붙으리 사람이 주의도
풀비여 예수 의 일노써 마음에 간절히 말하여 갈아 치기를
자세히 하되 오직 요한너 밤침레베푸물알달음이 터니 그 회
당에서 당돌이 말하니 아쿠라 파 피릿길나가 듯고 밧자 하여
터오게 하나님의 도괴 솔하기를 사세이 하다라 터야 리야
로가 기록 뜻하되 모든 동성이 위하여 글을 네 자오게 보너 여
적되 하라 하니 붙으리 은 총으로 주를 밧난 사람으게 크게
유조하 다라 그 밧기 유되 인을 심이 육지르 요 성경으로 써
에 수키리스 토 되물 갈아 치 다라

데 자히적 데 습 구 장

마즘아 풀노 코린도에 잇는 뒤 보로가 웃디 방을 지너 여 이 비
소에 붙으리 멧테 자를 반너 여 갈오 뒤 너의 가 주를 밧을 석
에 성경을 바닷나냐 하니 끝오 뒤 안이라 성경이 스물우
리가 듯지도 못하엿노라 하니 갈오 뒤 그런즉 너의 가 뒤의 밧

팀테를바닷나냐갈오더요안니의밤팀테를바닷다호니보
로갈오더요안니는회리의밤팀테를베풀어되성으게일오
더그후에받으는자를밋으라한거사곳 예수라호니못사
람이이말을듯고 주 예수이일홈으로밤팀테를바드니
보로손으로안찰호되 성령이터으게남호여방언을말호
여말이호니이열두어사람이다라보로가회당에 들어가당
돌이말호여석말을 하나님의나라일을위호여의논호여
권호되혹강잉호여밋지안이호여못사람의암페셔그도를
비방호니보로곳셔나고또한데자로니별호게호고날마당
투란노셔당에셔의논호여이갓치호기를양년을하니아시
야에거하는자유되와시리니사람이다 주의도를들엇는
지라 하나님이보또의손으로써희한한능하물잉하여혹
그몸에셔수건파형자치마를취하여병하는자의끼가저간
즉질병이덜니고약귀가나오다라류리하난유되의술사가

악귀뱀튼쟈으게위력으로 주 예수 의 일홈을 불너 갈오
디너보로턴하난바 예수로너를명한다하고유디제사장
시큐아의닐굽아달이쏘하이를하니악귀괄오디너 예수
를알고보로도알거니와오직너의난뉘냐하며악귀뱀튼사
람이그사람우에쉬어들어들의주인이되여됨을이기니고
로벳고상하여그집에서도망하니비소에거하는유디파
시리니사람이다알고못사람이두러워 주 예수 의 일홈
을뵈피니밋난쟈만이나와그죄를알고험한바일을알위이
니술사가만이술셔뵈모와못사람압페셔불지리니그척갑
시오만냥이다라 주의도가심이잘이여이기미이갓다라
마즘이일을다하고보로마음에뵈하고마귀도냐파아기야
뵈지너여예루살임에가려하여갈오디거기간후에너로마
를맛당이보려하다하고이여송쟈두사람을마귀도냐에보
니니티모도와이라스토라자그는잠간아샤에머무다라그

씨여이도를인하여 혼동하기를볼쇼이후문한은장의일홈
은디밋료니알디미의은감실을지어그동뉴으게일이볼쇼
이후다니테덜파그직업하는쟈덜을모으고갈오디제위난
우리가이직업으로니를어든줄알지니이보르가뭇사람을
권하여의혹케하여갈오디손으로지은거손신이라안이후
며이비소썩안이라거의아샤에다하는거슬너의보고듯난
바라우리직업이위티하여경홀이네기들바들썩안이라곤
네신알디미의사당이또한무어시되며또오은아샤파턴하
에셔절후난바가이놈푼데로장차나자지리라하니뭇사람
이이를듯고노하여볼너갈오디큰지라이비소의알디미여
하니일성중이혼잡하여보르파동행하던쟈마기도나사람
리요파아릿탈고를잡아일심으로회원예달아가니보르들
어가고져후거날뭇데자가허치안이후고아샤에웃듬되난
뭇사람이보르의친그라사람을보너여권하여회원예들어

가지말나 할다라 중논이 불일 할고 회중이 혼잡 할여 뒤반이
나엿지 할여 모인지 아지 못 할다라 유덕 사람이 아리산 뒤를
밀어 웃사람으 깨 너셔 우니 아리산 뒤손을 흔들여 뵈성으 깨
보여 스사로 발명 꼬져 할니 못 사람이 그 유덕 사람인 줄 알고
소리를 함쇠 할여 일시를 볼으 되 큰지라 이 비소의 알더미라
할니 형니가 못사람을 안정 깨 할여 갈오 뒤 이 비소 사람아 누
가 무리고 을이 큰 알더기 파하 날노 못터 너려 온모양의 사당
직기 눈줄을 아지 못 할라 이를 능히 글사 못할지니 맛당이 안
정 할고 밧비 할치 말나 할문 이 사람이 턴에서 도적 할미 업고
우리신을 옥 할미 업스 데 너의 가 슬어와스니 만일 더 밧료파
그 무리가 사람으 깨 폭송사를 할진던 공사를 풀피고 썩방 뵈이
이스니 피차에 송사 할라 만일 말은 일을 물을진던 범으로 공
회에서 결단할지니 더기 우리가 오날 원고 업시 요란 할무로
써 송사 할가 위티 할니 이모이 물말할수 업다 할여 말을 다 할

고 못 사람을 해치 다라
데 자 형적 데 이 습장

분요 함미 머즈미 보로 데 자름 불너 권호 여 작별 호고 마기도
냐로 가그 디 경을 지 너며 허다 한 말 노 씨 데 자 털 늘 권 호고 시
리 니로 와 석 달 을 뉴 호 여 비 타 고 슈 리 아 로 가 려 호 미 유 뒤 사
롬 이 모 히 호 는 지 라 이 여 뜻 을 녕 호 여 마 기도 나 르 돌 아 가 니
아 샤 로 보 너 년 자 비 리 아 사 롬 푸 루 의 아 말 소 파 탈 파 데 살 노
니 가 사 롬 아 릿 탈 꼬 와 시 문 도 파 될 비 사 롬 키 유 와 티 모 도 와
아 샤 사 롬 투 기 꼬 와 티 로 비 모 는 다 만 저 가 티 로 아 에 셔 우 리
를 기 더 리 터 니 누 록 금 호 는 절 기 를 지 너 여 우 리 가 비 립 비 로
비 타 고 오 일 만 에 데 의 티 로 아 에 널 으 리 칠 일 을 머 무 다 가 사
밭 일 첫 날 에 우 리 모 여 섹 을 쉼 는 뒤 보 로 이 든 날 썬 나 려 호 여
못 사 람 으 게 강 논 호 여 밤 절 반 에 널 으 리 모 인 다 락 에 만 이 등
불 을 헛 는 데 한 쇼 년 사 롬 의 일 흥 은 유 투 고 니 문 터 에 안 저 김

피자더니 보로강논올오리호미쇼년이잠을심이김피들어
삼총다락에셔러지니뭇들으즉죽엇는지라보로너려가굽
어안고갈오더분요치말나괴음이잇다호고다시올나가씩
을세여먹고담논호기를올이호여날이발그미이여나가는
데뭇사람이쇼년살뭇들고심이안위하다라우리가만져
비에올나앗소에가보로뭇접디호려호문데는보HING으로가
고져호여이갓치명호미라앗소에셔우리를맛너여우리가
접호여미투리니로가거기셔비타고명일에키오를디호여
HING고쇼명일에사모에닐으러다가쇼명일에미리토에닐
은문보로가뿃을딩호여비틀타고이비소들지너여아샤에
머물기를면하고쌀니HING호여가하면오순절에예루살임에
닐으려하미라미리토로뭇쳐사람을이비소에보너여포회
의장노를청호여오니갈오더너의난알나너가아샤에발드
진첫날뭇쳐시종이너의로더부러엇터하노 주를성기기

를 구키 겸양하며 노릇을 하니며 유디 사람 모히호난 거슬 남
 어논을 만니 여스니 물은 너의게 니의 한 거스니 가혹 못 사람
 압페와 후이 집으로 테 집에 가 사양 치안 꼬 보여 가라 치고 유
 디와 시리니 사람으게 간증 하여 하나님으게 회기 하꼬 우
 리 주 예수 키리스 토를 미드라 호꼬 이제 너 마음 에 되
 호여 예루살 임에 가니 아지 못 거라 무삼 일을 만닐 지 오직
 성령 이 고을 마당 너게 간증 하여 말 하되 기 계와 신 고 가 나
 기 디 린 다 호 나 클 어 나 니 가 성 명 을 치 의 치 안 으 너 귀 이 네 기
 지 안 이 호 여 써 너 닐 을 다 하 며 주 예수 의 준 바 직 분 파
 하 나 님 은 총 의 복 음 을 간 증 호 노 라 이 제 너 가 너 의 중 에 노 난
 바 하 나 님 의 나 라 을 뵈 호 여 스 나 이 후 로 는 다 시 나 를 보 지
 못 할 줄 을 아 난 고 르 니 금 일 에 너 의 게 간 증 하 노 니 무 순 사 람
 의 피 던 지 나 난 간 정 한 지 카 니 가 하 나 님 의 뜻 으 로 써 너 의
 게 고 하 여 사 양 호 미 업 스 니 자 기 파 밋 성 령 이 너 를 셔 워 차

더 하노자의 오온우리를 누심하여 하나님이자 괴피로써
속한 교회를 치라니가 간 후에 포박한 죄랑이 너의 가온 뒤 들
어가 그 구리를 앗기 지안 죄너의 가온 뒤 사람이 벌어도를 어
그리치 난 말노써 데자를 호릴 술아 노니 너의 씨다드 마너삼
년을 밤낮마지안 죄너의를 권하여 눈물 흘니 던 거슬 생각하
라 이제 너너의를 하나님과 밋 너의를 세워 능히 성도로 함
죄직업을 준바우 총의도 오게 거 천호 노라 너 사람의 금과 은
과 폐퇴을 탐치안이 호고 너이 손으로 자괴과 종자의 수용을
관급한 거슬이 너의 스사로 아나 니라 너 범사를 너의게 가라
치 노니 맛당이 이갓치 뇌고 호여 유약한 자를 못드르라 또
쥬 예수의 말을 생각할진 딘스사로 엇지 말호 엇나 노주
는 거시 빛난 것보담 복이 잇나 니라 이 말을 다 호고 쓸어 안저
못사람으로 더 부러비나 못사람이 크게 울며 보로의 목을 안
고 입을 맛추고 그말이다 시나 를보지 못호리라 불위호여 심

이근심하며전송하여비에느으다랏

테자형적테이습일장

우리가못사람을작별하고비타고곳에느으리이튼날로도
에느으리거기로파타대에가비가되니기로건네고져호물
보고형호여굽로를바리보고우편으로도지니여수랏에가투
로에서못테느리니비가물건을부리우미라테자덜을만니
여거괴셔칠일을뉴하니테자덜이성령으로보로으게느
으되예루살임을가지말나하다니괴약이차우리가셔나형
하니못테자덜이쳐자로함씩성밧게전송하니우리가못테
살어안저빌요작별하고비에올으니못사람은집으로돌아
가다라튀로로숫차토리민에느으니꿀길이다한지라이여
동싱의게문안하고함씩하루를뉴하고이튼날우리셔나리
사랏에느으리복음을뉘는자비림의집에 들어가뉴하니
터난집사칠인중에한나이라터가쳐베살너이예언하는자

이스니오리뉴하미한션지일홈은아가포니유디로붓처와
셔우리게나와보로의허리씩를취하여스사로슈족을묵그
며갈오디 성령이말하기를예루살임에셔유디사람이씩
님직를이갓치묵거외방사룸의손에붓티리라하미그말을
듯고우리파그디방사룸이권하여예루살임에가지말나하
되보로디답하되너의가엇지하여올어니마음을상케하나
냐니가 주 예수일홈을위하여결박할션안이라예루
살임에곳죽기를등더호노라하며터가권하물밧지안이하
니우리가밧추고갈오디 주의뜻을일우라하니라수일을
지너여우리가행장을슈습하여예루살임에가난터키사랴
의멧데자동행하여그집에뉴할한데자를인도하니그일홈
은나손이요올인데자니굽로사룸이라예루사림에닐으미
동성덜이혼연이접디하거날명일에보로우리로함씩가야
꿈을보니모든쟝노또한잇다라보로안부를뭏고 하나님

이그직분으로써외방가온디헝헝단일을한나식기숭헝니
터덜이듯꼬 쥬를영화하여보로으게갈오디형이유디에
쥬를밋는쟈뎡반이이스를보니다여기로법을직기논쟈라
터덜이형이외방가온디셔모든유디사람을가라쳐모쇼를
비반헝꼬그아말노할레헝치말꼬레를숫지말나물듯꼬터
덜이형이닐으물들을지니엇지헝리요형이우리가말을숫
출진딘밍세꼬원헝논쟈네사람이이스니형이이네사람을
디리고하그간증하여디신으로부비를써터로말이를싸게
하라이갓튼죽못사람이들은바형의일을올치안코거즈신
줄을알요쎄형이스사로무던한사람으로법을직킨다할지
라밋난외방사람에불으려난우리가글을주워작명하여우
상의물건파피파딘육파간음으로직기라하니이튼날보로
그사람을디리고합의간정하여면예들이간성한일과다
하물고하과인을위하여제를하다라칠일이장차다하디

아시야로부쳐오노유더사람이보르를성뎐에서보코뭇사
람을취겨잡코불터갈오더이살일사람은도오라이사람이
꽃곳이갈아쳐우리빅성과놀범피성소을뎐다코고생한시
리니사람을뎐에인도코여성소이터러인다코문전에이비
소사람티로비모가보르로터부리성에서보고보르가티를
다리코뎐에들어간솔뚝코이여오온고을이진동코여빅
성이합과아라보르를잡아살여뎐에나오니뎐문이꽃뎐기
난지라주기고져코는디영문천부샅으끼들니기를에루사
림오은성이혼잡코다코니천부장이갑피빅부장파군사를
거날이코다라오니뭇사람이천부장파군사를보코보르티
기를밧추난지라천부장이압코여보르를취코여두쇠사슬
노미라코고불으퍼티눈뉘며무삼일을코엿나노코니뭇지
거리논거시불일코여분요코블위코여실정을능히아지코
코고분부코여살어영에들어가라코니중계에밧츠미빅성

이말티들거날군사가보로를지은뵝성이뒤에셔불으되비
 리라후미라영에들이가려후미보로천부장으께갈오되너
 말올네께고후미합당호노후니갈오되너시리니방언올아
 나나네가인굽사람으로전에노을지어사쳐홍도졸거날여
 광야로가던자안이냐하너보로갈오되나난유뒤사람이라
 기리까탈수에나스너소문노교을사람이라청컨딘나를뵝
 성과말하기를허락하사하너허락하거날보로섬에서서손
 으로뵝성으께흔드너잠잠하거날힐리방언으로말하더

테자형적테이습이장

갈오되제위부형은너가이제너의게발명호을들으라후니
 못사람이그힐리방언호을듣고잠잠하기를더하거날갈오
 더나난유뒤사람으로기리까의탈수게나셔이교을가마넬
 의문하에셔공부하여조종의활범엄하할보여 하나를올
 위하여에그하기를오날티의다갓치하느니라도을침박

하기를 죽게 하여 롬네를 열미여 옥에 붓친 거슬 제사장 파모
든 장노가 너의 간증이 되리라 너가 그 동성으로 주느 글을 바
다 다마스코에 가 그곳 사람을 열미여 물어 다에 루사림에 가
형벌을 밧게 하리라 하고 마즘 형하여 다마스코에 갔기 을 세
가 낮이 되었는 뒤 문득 하늘에 큰 빛이 나타나 제 두로 빛이 우기로
너가 곳사에 꺾구려져 소리를 들으니 너게 갈오 뒤 소로 소로
야엇지 하여나를 핼박하느냐 히미 콜으되 주느 귀노 하니
갈오 뒤 나는 너 핼박하난 나 살 잇 예수로 다 하니 할기 하단
자 빛을 보고 나 파말하난 소린 듯 지 못하난 지라 너 갈오 뒤
주야 너엇지 하리요 하니 주 갈오 뒤 날 어나 다마스코로
가라 거기 텅하여 너 핼 할 날 노 씨 다 보 이리 라 하 다 라 그 빛이
영광으로 보지 못하니 나로 함기 후 텅 자 너 손을 당기 여 다 마
스코에 날으니 거기 한 사람의 일홈은 아나냐 니 놀법을 안찰
후 여 정성 하니 동음 유 뒤 사람이 칭찬 후 난 바라 너 게 나 아 와

겻티셔서갈오디동성소로야보라하미너즉시터름본지라
또갈오디우리조상의 하나님이너를세기는그뜻을알며
올은쟈를보며그입에말을듯게하문너보고듯난바로써못
사람으게간증하라하미라이갓트니엇지하여느즈리이하
리요브어나밤팀레를밧고 주의일홍불너네죄를씻츠
라하다라마즘너에루사릭에돌아가성턴에셔빌적에사몽
비몽간에 주를보니너게말하되쌀니예루사림을나가라
하문너의간증을그사람덜이밧자안이하미라하미너갈
오디 주야사람이스사로너가 주를밧난쟈를가두며모
든회당게셔틴줄을알고또 주를간증하던스티반의피
흘올적에너가겻티셔서그죽는거슬합의하교취기난쟈의
오슬직기엇나이다하니 주갈오디갈지라너멀너너출외
방에보너리라하엿다하니 못사람이듯다가이말에밧쳐소
리를헤쳐갈오디이사람을세상에비리라그살미부당하다

하고 못사람이 험화하고 오슬 버스며 덕을 공중에 헛치난
디 천부장이 명하여 보로 틀영에 슬어덜여 말하여 티며 국문
하여 써 못사람 험화하고 난 거시 무삼 연곤지 알너 하여 가 죽오
리 로 보로 틀미니 보로 것 뒤 선 빅 부장으 게 갈오 디 로마 사람
을 죄를 텅 치 못하고 티는 거시 합당하냐 하니 빅 부장이 듯고
가 천부장으 게 고 하여 갈오 디 엇지 하려 하나 노이느 로마 사
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나와 갈오 디 너니 게고 하라 로마 사
람이냐 하니 갈오 디 클어 하오다 하니 천부장이 갈오 디 너가
이 문적을 허다 한은 으 쓰어 닷다 하니 보로 갈오 디 나 난 성
니여 클어 소다 한 디 이어 보로 틀 국문 하려 하던 자 다 들너 나
다 라 천부장이 터가 로마 사람 인 줄 알고 결박한 거 슬 쏘한 접
퍼 하다 니 이튼 날 천부장이 유 뒤 사람 송사 하던 실정을 알고
저 하여 풀어 못제 사장 파 공회 사람을 청하여 모으고 보로 틀
슬어 닷여 그 암 폐셔 우다 라

테 자히적테이 습삼장

보로눈을부워공회를보며갈오뒤동성될아너가 하나님
 의암페셔도은냥심으로살아지금것날으러다후니제사장
 아나냐자우를명하여구입을티라하거날이여보로갈오뒤
 너의난분발은담장이니 하나님이장차너의를티리라너
 의안저법들의지하여나를심문하노라하며이법을어클어
 처명하여나를티나냐하니자우갈오뒤너감이 하나님의
 제사장출비웃나냐하니보로갈오뒤다가그제사장인출아
 지못하였노라기록에하여스되빅성의판장을비방치말나
 하였다하고보로가일본은사투기사람이요일본은바리시
 사람인술알고회당에서크게볼오되동성될아너가바리시
 사람이요바리시사람의아달이라너가죽은쟈다시날출바
 리출입하여심문을받노라하니말을하미바리시사람이사
 투기사람으로닷토와논이우문사투기사람은다시니는것

도업고턴사도업고신도업다호고바리시사롬은다발기미
라크게지결이거날바리시파션비델이닐어닷도와갈오뒤
우리가이사롬의무삼죄를보지못하갓다혹신파혹턴사가
터파말하냐하여이여크게어졸업거날천부장이보로를
뜻사롬이쓰즐가접퍼하여군사를시겨그가온뒤셔치여슬
고영에들어가라하다라그바음에 주가보로의암페셔서
갈오뒤마음을노으라너예루살임에셔나를위하여간증하
여스니또이갓치로마에셔맛당이간증하라하다라아춤에
유뒤사람이합력하여서로악담하되보로를취기지못하면
음식하지안갓다하호함괴밍세한쟈사슴예위이라제사장
파장노으게나아가갈오뒤우리가악담하기를보로를취기
지못하면음식지안갓다하여스니클어면너의파공회가천
부장으게고하호터클너의게슬어다자세이연유들못년것
갓치하라갓갑기전에우리가취기기를등뒤하리라하다니

보로의외성이그복병호물듯고영에들어가보로게고한디
보로이여빅부장을청호여갈오뒤이쇼년을천부장으로게인
도호라고할일이있다호니이여다리고천부장으로게갈오
디슈금한보로가나를청호여이쇼년을인도호여녕감게고
할일이있다호니천부장이그손을잡고유벽한곳에가출으
되너무어슬니게고할나나갈오뒤유더사람이결단호기
를명일녕감을청호여보로를다리고공회에닐으리그연유
를자세이볼으리호면뜻지말으소서호문사슴예인이악담
호되보로를취기지못호면음식지안갓다호며복병호고이
제등디호여녕감의허락을기뒤리미라호니천부장이쇼년
을보니며명호되달은사람으게이일을너게고호엿다말치
말나호기빅부장두사람을불너보병이빅파마병칠습파창
군이빅을예비호여오날바움히시에기사라호가증싱늘갓
초와보로를뒤와호송호여방빅비릭스으게보너라고호글

노씨 주니 이 갓튼 지라 길 노도 루샤 난 명찰한 방 빅 디 인 으 게
문 암 학 노 이 다 두 키 이 사람 이 유 뒤 사 람 으 게 잡 피 운 바 되 여
침 기 리 호 기 로 너 가 그 로마 사 람 인 줄 알 고 군 사 를 거 나 려 가
구 호 여 너 여 너 가 티 를 고 호 텨 연 유 를 알 고 저 호 여 다 리 고 그
공 회 에 가 그 놀 법 을 의 논 호 무 토 고 한 바 틀 아 니 오 직 쥐 기 며
결 박 할 죄 에 싸 피 업 난 지 라 혹 이 너 께 고 호 되 유 뒤 사 람 이 티
를 도 모 죄 저 한 다 호 기 루 곳 녕 감 으 께 보 니 노 니 쓰 터 를 고 호
단 자 뽕 명 호 여 녕 감 으 께 고 호 리 라 호 었 다 라 군 사 가 명 함 갓
치 바 음 에 안 티 과 리 에 더 리 고 이 든 날 에 마 병 이 보 로 를 호 송
하 고 그 여 녕 영 으 로 도 라 오 니 라 기 사 람 에 놀 으 리 글 을 방 빅
으 께 더 리 고 보 르 를 암 폐 셔 우 니 보 기 를 필 하 고 어 니 도 사 람
인 가 줄 이 그 키 리 가 사 람 인 줄 알 고 갔 오 니 너 를 고 할 나 는 사
람 이 오 거 텨 너 너 를 들 으 리 라 호 고 이 여 명 하 여 헤 릿 의 공 당
을 직 키 라 호 다 라

태자형적테이습사장

오일후에제사장아나나파멧장고파변사틸돌노브으러보
 로를방복으께고하니보로들볼노오거날틸돌노고하여
 오뒤우리가방복비릭스뒤인의은해를감격호기는곳곳이
 서로뒤평한거시뒤인의덕퇴이요뒤인의연견을의지하여
 우리나라이션티하눔이드니이제조금노더연치못하가스
 나아무거나너멧마디말을들노소셔이사람이던하노유뒤
 사람을진동하고터가나살잇당의슈두가피여또성년를터
 리이릭하기로오리가잡아스니피인이스사루터를국문하
 면가히우리송사하난바일을다알지호하니유뒤사람이화
 답호호날호호이일이올타호니방복이던두호여보로노알
 호가항의이여디답호러니가너인기이나라호다살기노지
 열어힌출아는노로스사로발명호는기술깃거호노라니가
 예루살임에가절한다가가우열이돈일출너인이가이알지

라 터가 턴에 서 변 논 것 파 니 회 당 따 고 을 가 온 디 서 사 람
을 요 란 이 후 단 가 술 보 지 못 하 여 스 니 이 제 나 를 고 난 일 이
터 가 당 험 치 못 하 지 라 니 이 를 디 인 게 발 기 리 니 터 의 일 으
는 바 이 단 에 도 불 안 찰 하 지 니 가 조 샹 의 하 나 님 션 기 는 거
시 스 사 후 놀 법 을 안 찰 하 며 션 지 의 괴 롭 한 바 를 다 밋 으 미 고
너 가 하 나 님 으 게 바 리 는 거 술 터 가 쏘 스 사 로 밧 는 바 니 속
은 자 올 고 들 턴 지 다 시 볼 어 여 고 이 술 이 니 너 가 하 나 님 파
사 람 을 디 하 미 늘 스 사 로 씨 다 들 아 툴 니 가 업 스 어 금 마 음 을
두 고 쏘 너 가 열 어 히 만 에 와 서 너 바 라 을 구 제 파 제 늘 을 가 저
오 고 만 일 송 사 할 일 이 이 스 면 맛 당 이 여 괴 서 니 인 으 게 고
리 라 혹 이 사 람 들 이 너 공 회 에 가 술 석 에 이 일 외 여 올 치 못 한
거 술 보 면 스 사 로 밧 하 니 터 의 가 온 디 서 한 말 이 죽 은 자 다
시 볼 곱 위 하 여 니 금 일 국 문 하 물 밧 노 다 하 니 비 리 스 이 도 의
실 정 을 자 세 이 알 고 너 연 하 여 곱 오 너 천 부 장 루 샤 오 거 든 너

너의 인물이 허리까지 이르되 부장을 명하여 보로록 직기
 기를느 줄어이 하여 흑터의 친고와셔 공급할나면금치말
 나후다라수일호에비릭스가고쳐유디베인더루식라후터
 부리와셔보로록을볼키리스토 예수의를듯고보로록공
 의파절제파장너심판을할할적에비릭스무셔워디합하되
 네잠간클너가라물을거시이스면너를볼을이라후니비릭
 스보로의금먹기를바리논고로열어번볼너함지말하다라
 방년을지너여팔코비스토가비릭스를더하미비릭스유디
 사람외도와호물엇고저하여보로록얼민디로뉴하다라

데자형적태이습오장

비시토도임하지삼일만에키사라큰부터예루살임으로가
 니제사작파유디이존귀한사랑들이보로록고하여박박으
 게은총을구하여보로록예루살임으로잡아오다가길에서
 복병하여쥐기려하노라하니다못비시토디답하되보로록

간사라에 직키고 너장차속기 작지너 너의중에 능간잇난사
함귀가셔그을치못한거시이스면고하라고비시토팔구
일을그중에머무다가리사라갓가셔이튼날당에가져보로
를살어오라명하니벌오미에루살임으로붓터온유더사람
덜이들너셔서만이보로이중죄를해나징협치못하논지라
보르발명하여갈오더너가유더사람의홀범파성년과치살
오게야못죄를얻지안앗다하니비시토유더사람의조화하
물엇고져하여보르배더답하여갈오더너예루살임에가셔
너압페셔국문호려하나나하니보로과오되나논치살의당
압페셔스니여기셔국문호는거시맛당호오다더리너가유
더사람오게불의호미업사올더인이김피아논바니안일불
의하여쥐길더싼죄를행하여스며죽으나사양치안올이라
만약이사한이나를송사호는일이하나토실피지안으면나
를더오게붓칠사람이업나니너가치살오게격징하리라하

나이며 비시토공회로터부리의논하고 뒤답하되 너의 살으
게 격징하가 손속가라하다 다수일을 지나 여악림과 왕과 빌
니기가 키사랴에 빌으리 비시토의 안부를 뜻고 열어 날을 머
무니 비시토 부로의 일노써 왕으께 고하여 갈오니 비릭스 열
미요 구류한 자 하나 이이스니 너가 예루살임에 이슬적에 제
사장과 유대의 장노텔이 너께 고하여 그 죄형하 할구하되 너
뒤답하되 송사에 걸닌 자가 송사하난 자로터부리 실성하여
자괴일을 말명할피미 전에 사롬을 못치는 거시로 마사롬 외
규례가 안이라 고로 유대 사롬이여 귀오기로 너지연 치안고
이튼날 당에 안저명하여 그 사롬을 끌어오니 송사하난 자 날
어하난일이 하나 토너 뜻에 난악이 안이요 오직 멧가지의 논
이 그 고과 속은바 예수라는 자를 보로가 그 살물 말하미라
너가 이일을 잊지 곡문할지 주제하여 보로으게 들으되 예루
사림에 가 심문하난 거슬 들듯 나나 하니 보로가 직귀여 기 살

시밧토의공사돌구하기로니가명하여직기엇다가지살으
게잡아보니라하다하니악립과가비시토으게갈오디너또
한이사롬을듯고져하노라하니비시토갈오디명일에들으
소서하고명일에악립과파발니기가크게위의를베플고와
모든천부장파읍중에장샤덜노함괴공당에들어가니비시
토명하여보루를슬어오고갈오디악립과왕파무론여괴잇
는자난이사롬을보거니와유디의뜻사롬이혹예루사립파
혹이곳에서너게구하여볼오되맛당이살나두지못하리라
하니너그죄를살피미귀길디싼거시업난지라더가리살으
게격징하려하기로니가명하여잡아보니라주상으게알
위이려하나그실정이업난프로못사롬으게잡아너이꼬더
욱왕압페셔써심문한후에가이실정을어더알위이라하
문너가죄인을잡아보너며죄목을베꾸지안는거시리에합
지안으미라

테자헝적타이습곡장

악림과보로으게갈오디너를허하노니스사로말하라하면
 보로손을늘어발명하여갈오디악림과왕으금일너가유디
 송사하단일을왕의압제발명하니반항이오더욱왕게셔유
 더사름의규례와포법을아오니청견던너키나를늘으소
 셔너처음으르너의빅성가온디파에루사림에셔헝동거지
 를유더사름이다아오니만약즐겨너의간증이되면너가우
 리피익극기엄한길을가찰하여헝동거지가바리시인인출
 처음부터아니이제 하나님이조양으게허락한거늘바리
 물위하여너가셔서심중하물바드나또우리열두지귀가밤
 낮간설기섬겨이허락을바리노작왕아너바리물위하여유
 디사람의송사하느바가되어스니 하나님이죽은쟈를큰
 개하물너의가잇지하져밋지듯할거늘삼나냐너가나살잇
 예수의일흠을맛당이열어가지로웨방하물실노조이네겘

터니 예루살렘에서 너 파연이 갓치 형사하고 제사장의 권세
를 병자하여 만이 성도를 핍박하고 그 죽난 것을 너가 낙점하고
각 회당에서 너 누차 형벌하여 위겨 참남하게 하고 밍흔드시
터 핍박하여 외압거지하다가 제사장의 권세와 명으로 쓰
다 마속꼬에 가난더왕아오시에 길가온더셔하날노빛치이
스를보니 히보담선명하지라나 파동형하단자으께 빛치우
니 우리다사에 색글어진지라 너가 소리를 들으니 합리방언
으로 씨너께 갔오디소소로 가엇지하여 나를 핍박하나냐
네가 핍박하기가 열여우니라 하미니 갔오디 주느니라
하니 갔오디 너의 핍박하는 예수로다 너 날이셔라 너
때나 타나 문너를 썩여 너 본바와 네게 보일일에 사환하고 간
증하게 하미라 너가 너를 보너여 보성파외방으께 건지리니
너의 눈 불열케 하운어두은너로 말근케 파사탄의 권세로
하나님으게 돌아가셔 죄사함과 나들밧난 성도가 온네 귀업

을엇배하미각호오니악립과왕아이로써니하날에나타나
올어클어치지안이호고만져다마스괴와에루사림파오온
유디디방파또외방생지사람으게고호여회기하여하나
님으게돌아가회기예합당한일할행호라호니고로유디사
탁이나동성년에서잡아주기려호나늘어나하나님이나
를도와금일에밋처존귀와비천한사람으게간증호난거시
못연지와모쇼밀이말한일이일운외여난할호미업스니곳
키리스트가맛당이히를바다죽으누로다시날어써비르소
빅성과외방사람으게빛낫다하니보로말명할색여비시토
크게소리하여갈오던터밋첫다데가학눈이관아밋첫다하
니광오던비시토던인가늑가밋친거시안이라니할하느바
논진실되고온전하오다왕배셔도늑가그압페셔당늘기말
한바이일을알둔늑나난이거술하나토왕스베은밀한거시
업고이유백한네셔행호미안이미라악립과왕은션지를밋

눈잇가 너그릿난 줄을 아노이다 하니 악립과 모로 제 갈오너
너저근 말노나를 기리스토의 네자를 삼고 저히라 하니 모로
갈오너니 하나님 제 구호노니 혹저그며 혹만 탄지호늘노
왕한나시 란 썬임이라 나 곳금 빌너 미듯 난샤는 오식이 결박
외여 난일 설이나 파갓치 일우라 하니 이여 왕과 방벽과 비
니기와 함괴와 져넌자 다닐이 물로 가서로 란호되 이 사람이
호는 바가 쥐기며 결박할 날이 싸미 업나이다 하니 악립과 비
시토 제 갈오너 이 사람이 만약 리살으 제 격정호미 업스면 가
이 노을이라 호다라

테 자 혁적 네이 습칠장

터델이 텅호여 우리로 호여 금비 다고 이다 리로 가게 호고 곳
보로와 달은 죄인으로써 시비 스토의 영뉴 빅부장으 세 붓치
니 일흠은 유류다 아시야 더 방으로 가 려 호 난 앗라 뜻년의 비
를 타고 가니 석사로 니가의 한마기 돈사 란 아릿날고 가 우리

파함기가다가이튼날시돈게널으미유류가보르를션디호
고또친고으게나아가후디틀밧게호고그곳에서비를타미
바람이순치안이물위호여피호여굽로로너려가기기개의
밤부랴마준바다을지나여루개의무라에널으리빅부장이
아리산드라의비를만년여이다리로가려호여우리로그비
여올우제호니가가심기터진지라열어날반에가우키니
도마주견에널으리바람이불순호여피호여기리타를너려
가살모니를디호여가우지너보한디방에널으니일흙은쥬
은포구라라식아고을에갓가온지라웁의공연이기다가디
연호여지계절기가이무지너미비를타니심이위협호난디
보로권호여곽오디사참아너비가난거슬보니만이손상호
미이스리라비하물거썩안이락또한우리성명이라호디빅
부장이사공과선수의발을모로의말보담뉴심호표이포구
에서과동호기가편치안을지라티반이내여괴를싸나기를

도모호여혹아웃도룩보니키로가파동하러하니곳키리티
포구니동북향파동남향이차남풍이미미이부니못사람이
뜻을이든테호여이여닥클거두고키리티를의지호여지너
다가얼미안이호여팡풍이못트로블어나니그바람일홈은
유라쿠로라비가바람으께거드친바되어이지곳하여가
논더로가한져근섬에석세가니일홈은자우다라가우져근
비플거두워올난후에큰비밋들얼비고술티에걸을가접퍼
호여독클니리우기비가난더로가난네놀이심호여이튼골
에비가온더물건을버리다가데삼일에친이손으로미게고
명을버리고열어날히파별을보지못호며놀이적지안이호
니우리가구완바러던거시다쓴여지고못사람이다오러먹
으미업스니보로터의가온더셔서갈오더제위난맛당이너
말을듯표기리티를써나지안아손즉이손히를만너지안아
스리라이제너가너의게권호노니마음노으라호문비외여

난너의성명은한나토상치안일거시어제바음에너섬기는
하나님의텐사가너갓터셔서값오뒤보로야무셔워말나네
가맛당이키살의암페셔리니 하나님이합피비탄사람으
로너를준다흐미니고루제위논마음노으라너 하나님을
밋으니너게말한바갓타리라다못우리를한섬에너치리까
흐다라열나흘바음만애비가안라히둥에셔표루흐니저밤
에샤공이못테갓가온가험고물길을해알이니이습발이
요조금가쓰해알이니열다삿발이라돌잇는데너칠가접퍼
흐여비세리에닥너이를주공발세를바리다니샤공이도방
코져흐여저근비를너리워거주비말이에닥을주난것갓치
흐는뒤보로빅부장파군사게값오뒤이털이비게뉴치안으
면너의가구완치못흐리라흐니군사가저근키줄을손이너
치다라날이장차발그미보로못사살밤녁기를원호여값오
뒤너의기다려먹으미업고아모것도बाट자안은지가열나출

이라고로너의밭자하기를권하문너의구완하물위하미너
너의말이쓸한나토손치안으리라이말을다하고씩을취하
여못사람압페셔하나님게축슈하고세여먹으니이여다
마음뜻코스사로밥을밭자하다라우리비에잇는자가이되
칠습독인이라다비불니먹고밀을바다에버려비를가바여
이하고날이발그미그더방을아지못하갓는지라다못한늘
역을보미두던이이스니비올니기를의논하고이여닥을버
러바다에홀으게하며치를뜻고압독글달고두던을향하여
갈세두볼잠을만나여비가걸니니비말이논동치안이하고
비세리난큰물놀에세지기를시작하니군사가죄위털을취
기기를뜻하문험하여도망할가접퍼하미라뵈부장이고도
모를막고보루를두회하기를뜻하여능이험잘하난자틀명
하여물에너려가만져두던에올으고그남이논혹판디기와
혹비가온디물건을타고이여못사람이다피하여온천이두

던에올으니라

테자형적테이습팔장

파한후에곳그섬일홍할아니미리타라되가우리물비상이
 더접하고비가너려날이차물위하여물을뛰여우리를밧자
 하니보로가섭플거두워불에노으니한기독샤가터온거슬
 이하여나와그손을무너되가독샤보로기손에달닌거슬보
 고서로말하되이반다시살인자로다비록바다에서피하여
 스나리가터불살나두지안으리라하거날보로가독샤를불
 게설치니상하미업는지카되가터부워혹즉시색구러져죽
 을가흐녓다니이의하여상치안으물보고곳마음을좋은이워
 관오더려가신이루다하다라그섬토쥬의일홍은법요너던
 토가그근쳐여잇난지라우리를마사삼일을은근기더접하
 난디법요의가밤기연병파니질을하여구워스니보로들어
 가빌고손으로안찰하여낮게하니일노부터섬에달은병잇

난 자답와셔 곳치고 우리들 공경하다니 남히 할씨여 우리 소
공할 거스로 번에 늦타라 석달을 지내여 아나산드라 의회에
올으니 그 일흔은 쌍둥이니 그 섬에서 파동하고 수라쿠에 날
오리 삼월을 뉴하다가 거기로 노라리 판에 날으리 할우를 지
나여 남풍이 불어나니 이튼날에 포투리에 날으리 동성들을
만녀여 권하여 터의 파함과 날을 뉴하고 이레게 도마에 가
니 로마 동성들이 우리 소식을 좃고 압표당파 삼턴에 나와 우
리를 영접하니 보도 보고 하나를 축수하여 마음을 곳건
이하고 로마에 날으리 보도 파직기 난군사 일명으 두사 로이
이스라하 다라 마즐삼일 후에 보로가 유디의 두목을 청하여
모우고 갈오디 제와 형장은 너기 빅성으 개와 조상의 규례를
어글어치지 안이 하여 스나 클어나 열미이 위예 루살임으로
좃차 로마 사람으 께 잡아 보더니 터나를 심준하여 주실 죄업
스를 보고 늦코져 하다니 오직 유디 사람이 결우물 위하여 너

각 부득불 지살으 배구호니 요다 못너 뵈성을 고 할 것 갓치 안
 으미라 이를 취하여 형장네 측청하 프 당편호 처 갈 호 눈 나 들
 쇠사슬 2 결박한 거 시이 안 일의 바 리는 바 를 위 호 미 라 호 니
 턱 떨어 갈 오 뒤 우리 가 유 뒤 호 너 를 의 논 한 서 신 을 바 드 기 업
 고 동성이 여 괴 보 이 러 2 측 불 가 호 물 현 호 며 말 호 미 업 스 나
 우리 가 비 소 견 었 터 호 물 듯 고 저 하 문 이 길 을 도 체 여 결 우 난
 거 술 알 이 라 호 니 괴 약 을 형 호 고 허 다 한 사 람 이 무 로 보 세 닌
 집 호 로 오 너 보 루 앓 춤 으 루 부터 쥬 역 거 지 하 나 님 의 나 라
 올 간 증 하 며 모 슈 의 능 법 파 선 지 호 써 권 호 여 예 스 를 위 하
 니 호 말 호 밋 난 시 파 밋 지 안 는 자 이 서 서 루 합 지 안 이 호 여 허
 여 지 다 리 이 전 에 보 루 말 하 여 보 오 뒤 성 령 이 선 지 안 시 야
 의 게 부 탁 하 여 호 의 조 상 의 게 고 한 말 아 을 타 갈 오 뒤 가 셔 이
 뵈 성 으 게 고 호 라 호 의 가 귀 로 듯 호 쥬 닷 지 못 하 며 눈 으 로 보
 고 말 지 못 하 문 이 뵈 성 의 마 음 이 우 완 하 여 귀 를 막 고 눈 을 살

